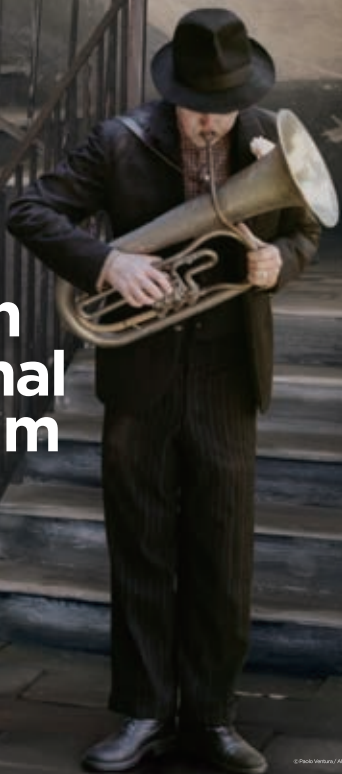




14th Jecheon 제천국제음악영화제
International Music & Film Festival
August 9-14, 2018

14th Jecheon International Music & Film Festival

제14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MYCAR를 갖는 가장 빠른 길

신한 MYCAR대출

연 3%대 금리로, 신용한도 차감 없이
지금 신한 MYCAR 대출로 갈아타세요!

“지금 [신한 SOL] 앱에서 신청하면
금리도 우대 받고, 더 쉽고 빠르게 내차를 가질 수 있으니까!”

(신한 풀만한 MYCAR 대출 / 신규 고객시(6개월만동) / 금연금리 1.6% 적용 / 2018.5.17 기준)



신한 풀만한 MYCAR 대출, 이렇게 신청하세요!

신한 SOL 앱에서 신청
신한 SOL 앱에서 신청
신한 SOL 앱에서 신청

내 차 살 편
신한
MYCAR

MYCAR를 갖고 싶다면
지금 '신한 SOL'
다운로드 받으세요



※ 대출 취급 시 고객별 연평균 소득(50%)에 대출상환시기 및 금액에 따라 중도상환 해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 만기 후 미상환시에는 연신거래처에서 정한 기간별 연체료가 적용되고 신용정보관리대상 등 특정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과 신용관리대상자 및 신용보증보험 청약 부적격자 등 연신 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은행에서 인계(7개월) 제 4.2%의 대출계약 체결의 대상 상환이 아닙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MYCAR상담센터(1577-9561)가개은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리인 사전심사발 제2018-2-1174호 (2018.5.15~2018.6.30)



VLIVE

영화제를 우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감독, 배우들을 통한 영화에 대한 새로운 시선
VLIVE와 함께 하세요!

주연 배우 단독 인터뷰부터 메이킹까지
영화를 즐기는 또 다른 방법, VLIVE에서 실시간 라이브로 즐겨보세요!



BANYAN TREE
CLUB & SPA SEOUL

도심 속의 안식처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남산에 자리하고 있는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은
숲 속에 머무는 듯 온전한 휴식을 선물합니다.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60 | banyantreeclub.com
예약 및 문의 02-2250-8000, clubandspa-seoul@banyantree.com

대한민국 No.1

롯데렌터카

신차 견적부터 계약까지 단, 5분만에 끝!

롯데렌터카 신차장 다이렉트



direct.lotterentacar.net

맛있게 **화**캔다!



페이스북 팔로우 숙취해소 브랜드 중 1위

(2018년 7월 10일 기준)

체내 흡수율을 28배* 개선한 커큐민 함유 숙취해소제는 레디큐 밖에 없습니다.

*섭취 4시간 후 일반 커큐민(30mg기준)과 비교한 사람에게 따라 다를 수 있음. Rel 박희정 외 산업식품공학 제 21권 제 3호 pp273~279(2017, 9)

Curcumin

커큐민(울금)은 향이 강하지 않지만 그 기운이 가벼워 술기운을 뽏고 먼 곳으로 보내 신을 내려오게 한다.

— 동의보감(향약)권 52권 분초루 —



커큐민(Curcumin)은 동인도산의 생강과에 속하는 식물인 Curcuma longa Linn(울금)의 뿌리에서 추출한 노란색의 건강성분으로 오래전부터 식용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Beauty, Slim & Balance 식물성밀크!



부담 없는 99kcal
맛, 영양, 밸런스 UP!



부담없는 90kcal
코코넛이 통째로!



부담 없는 81kcal
진~한 아몬드의 맛!



든든하게 채워줄게~!

✓ 갓 지은 밥 그대로~
간편하게 즐기는!

열린 옥개장국밥,
양평 해장국밥, 쇠고기죽

✓ 쌀로 만들어
속이 편한~

베트남 소고기맛쌀국수
한국식 멸치 쌀국수



주문처 전국 어디서나 1577-0426 쇼핑 트러스트 www.edaymall.com

문의 고객상담실 080-930-8888, (02)553-8888 www.vegemail.co.kr

www.daesang.com / www.jungoneshop.com

창소다워터

0 Kcal | 나트륨 ZERO | 카페인 ZERO



영화볼땐?



카라멜과 오리지널이 뭉쳤대!
씨네마 팝콘



임이 심심할땐?



치즈와 바질시즈닝의 환상조합!

피자칩 콤비네이션맛



PURE COCONUT WATER

Feel the Hydration

100% Premium Brazilian Coconut Water



Pulmuone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
아무 물이나 말고 풀무원 샘물만 마셔요
물도 풀무원이면 믿을수 있대요

깨끗한 화강암반수는 기본
550가지 검사로 철저하게

**대한민국 국민은
풀무원을 믿습니다**



PUREcoconutWater

www.GoPureCoCo.com



PURECocoWater

바른먹거리
풀무원 샘물
by Nature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원료까지 생각한다면 **고려은단**

“비타민C는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C 하나를 먹어도 제대로!

대한민국 1등 비타민C
고려은단
비타민C 1000



[2015 건강기능식품 지리산부산물 제품군 생산농자(전) 제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통계
비타민C 영양섭취기준 미만 섭취자
[57.6%]

고객센터 080-277-0006 | www.koreaeundan.com

건강기능식품 광고

성공적인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최고의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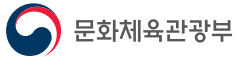
고객의 성공이 바로 우리의 성공이라는 것을 DHL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 220여 개 국가에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DHL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탁월한 서비스를 통해 여러분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돕는 최고의 물류 파트너가 되기 위해 국제특송전문가 과정을 수료한 전 세계 10만 명의 DHL EXPRESS 직원들이 고객님과 함께 합니다.

dhl.co.kr/express

DHL

협찬사 SPONSOR

PUBLIC SPONSOR



TITLE SPONSOR



PREMIERE SPONSOR



OFFICIAL SPONSOR



MAJOR SPONSOR



LEADERSHIP SPONSOR



FESTIVAL SPONSOR



목차 CONTENTS

19

상영일정표 SCREENING SCHEDULE

29

티켓 운영 안내 TICKET SALES INFORMATION

41

JIMFF 영화 프로그램 JIMFF FILM PROGRAM

42

개막작 Opening Film

44

세계 음악영화의 흐름 (국제경쟁부문)

World Music Film Today (International Competition)

50

시네 심포니 Cine Symphony

70

뮤직 인 사이트 Music in Sight

84

한국 음악영화의 오늘 Korean Music Film Now

100

패밀리 페스트 Family Fest

106

주제와 변주 - 인도 음악영화, 그 천 개의 얼굴

Theme & Variations - Thousand Faces of Indian Music and Film

111

시네마 콘서트 Cinema Concert

115

JIMFF 음악 프로그램 JIMFF MUSIC PROGRAM

116

원 썸머 나잇 One Summer Night

125

익림 썸머 나잇 Uirim Summer Night

130

2018 거리의 악사 페스티벌 JIMFF Busker Festival 2018

133

쿨나이트 Cool Night

136

제천 라이브 초이스 Jecheon Live Choice

142

JIMFF 특별 프로그램 JIMFF SPECIAL PROGRAM

143

2018 제천아시아영화음악상 Jecheon Asia Film Music Honorary Award 2018

144

교육·학술 프로그램 Education & Academic Program

146

JIMFF 특별 상영 JIMFF Special Screening

151

전시·체험 프로그램 Exhibition & Experience Program

153

이벤트: 만나 서비스 Event: Manna Service

156

JIMFF 숙박 패키지 프로그램: 바람불어 좋은 밤

JIMFF ACCOMMODATION PACKAGE PROGRAM: Summer Night Breeze

159

JIMFF 가이드 JIMFF GUIDE

170

음식점 & 숙박 리스트 RESTAURANT & ACCOMMODATION LIST








174

작품 색인 INDEX

상영 일정표 SCREENING SCHEDULE

상영 일정표 읽는 법 How to Read the Schedule



등급 RATE

 G	모든 관객이 관람할 수 있는 등급	General
 12	12세 미만인 자는 관람할 수 없는 등급	Under 12 not admitted
 15	15세 미만인 자는 관람할 수 없는 등급	Under 15 not admitted
 18	18세 미만인 자는 관람할 수 없는 등급	Under 18 not admitted
 QA	관객과의 대화	Q&A
 LC	라이브 콘서트	Live Concert
 GR	무대인사	Greeting
R/T	작품당 상영시간(분)	Running Time(min)

극장 THEATER

M1	메가박스 제천 1	Megabox Jecheon 1
M2	메가박스 제천 2	Megabox Jecheon 2
M3	메가박스 제천 3	Megabox Jecheon 3
M5	메가박스 제천 5	Megabox Jecheon 5
M6	메가박스 제천 6	Megabox Jecheon 6
JC	제천시 문화회관	Jecheon City Cultural Center
CL	청풍호반무대	Cheongpung Lakeside Stage
US	익림지무대	Uirimji Stage
UP	익림지 파크랜드	Uirimji Parkland
JP	제천시민공원	Jecheon Citizen Park

자막 SUBTITLE

 E	영어자막 있음 (비영어대사)	English Subtitle (Non-English Dialogue)
 NE	영어자막 없음 (비영어대사)	Non-English Subtitle (Non-English Dialogue)

※ 익림지무대와 제천시민공원의 모든 영화상영과 공연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 Free Admission for all film screenings and performances at Uirimji Stage and Jecheon Citizen Park.

08.09 Thu

개막식 Opening Ceremony

Time	Code	Title	R/T	Theater	Sub	Rate	Q&A	Page
19:00	001	개막작 Opening Film 아메리칸 포크 American Folk	99	CL		 		42

상영 일정표 SCREENING SCHEDULE

08.10 Fri

메가박스 제천 Megabox Jecheon

Time	Code	Title	R/T	Theater	Sub	Rate	Q&A	Page
10:00	002	싯대슈와리 Siddheshwari	89	M2	E	12		109
	003	로스 반도 Los Bando	94	M5	E	G		101
	004	만약 내가 떠나다면 - 레너드 스키너드 이야기 If I Leave Here Tomorrow: A Film about Lyrnyrd Skynyrd	95	M6		12		71
10:30	005	파차만카 - 자유를 노래함 PACHAMANKA - SINGING FOR FREEDOM	67	M1	E	G		74
	006	패밀리 페스트 단편 Family Fest Shorts	79	M3	E	G		101
12:30	007	산을 휘감는 목소리 Up Down & Sideways	83	M2	E	G	QA	47
	008	뮤직 인 사이트 단편 1 Music in Sight Shorts 1	98	M5	E	G	QA	77
	009	신이 잠들 때 When God Sleeps	90	M6	E	12		48
13:00	010	라디오그램 RADIOGRAM	84	M1	E	12		56
	011	이것도 내 인생 It's My Life	103	M3	E	G		53
15:30	012	말더듬이 발라드 Stammering Ballad	90	M2	E	G	QA	47
	013	한국 음악영화의 오늘 단편 1 Korean Music Film Now Shorts 1	89	M5	E	12	QA	89
	014	말람보 댄서 Malambo, the Good Man	71	M6	E	G		46
16:00	015	아메리칸 포크 American Folk	99	M1		G	QA	42
	016	로큰롤할배 Rock 'n' Roll Grandpa	95	M3	E	G	QA	86
18:30	017	뷰티풀마인드, 마음에 그 소리 있지? Listen to Your Heart. The Beautiful Mind	110	M2	E	G	QA	45
	018	라이브하드 LIVE HARD	100	M5	E	15		86
	120	감자마을 메탈밴드 Ready to Roll - Exterminator	117	M6	E	15		57
19:00	020	창공에서 Amidst the Atmosphere	138	M1	E	G		107
	021	비하르 민중의 드라마 Naach Bhikhari Naach	72	M3	E	G		108
	022	침묵여 안녕 Good-bye Silence	85	M2	E	18		52
21:00	023	Trip of Blues Trip of Blues	79	M5	E	12		87
	024	뮤직 인 사이트 중편 1 Music in Sight Double Screening 1 음악을 담은 사진가 + 영화음악의 거장들 - 마크 아이샴 The Accidental Photographer - Henry Diltz's 50 Years in Rock & Roll + IN THE TRACKS OF MARK ISHAM	114	M6	E	G		75
	025	시네 심포니 단편 1 Cine Symphony Shorts 1	94	M3	E	15		57
24:00	026	심야상영 1 Midnight Screening 1 니코, 1988 Nico, 1988 (93min) 할아버지의 노래 The Man behind the Microphone (98min) 벅스 BECKS (93min)	284	M1	E	18		55 72 51

제천시 문화회관 Jecheon City Cultural Center

Time	Code	Title	R/T	Theater	Sub	Rate	Q&A	Page
10:00	027	할아버지의 노래 The Man behind the Microphone	98	JC	E	12		72
13:30	028	음악 들려주는 영화관: 대관람차 Music Theater: The Goose Goes South	110	JC	E	12	QA	85
17:00	029	제천 라이브 초이스 Jecheon Live Choice 말하다: 김소이, 송다은, 닉앤แซม미 Talk: KIM SOY, SONG DA EUN, Nick & Sammy	90	JC			QA	137

원 썸머 나잇 - 영화 상영 & 공연 One Summer Night - Screening & Performance

Time	Code	Title	R/T	Theater	Sub	Rate	Q&A	Page
20:00	030	스페셜 큐레이터 프로젝트 - 픽 업 더 뮤직 Special Curator Project - PICK UP THE MUSIC 시네마 콘서트 Cinema Concert 탄둔 무협영화 3부작 Tan Dun: Martial Arts Trilogy 박해일 Curated 백현진 Park Hae Il Curated Bek Hyunjin 윤제문 Curated 씨 없는 수박 김대중, CR 태규 Yoon je moon Curated Seedless Watermelon Kim, CR Taegygy 수애 Curated N E L L SU AE Curated N E L L						
				CL		G	GR	117

이림 썸머 나잇 - 영화 상영 & 공연 Uirim Summer Night - Screening & Performance

Time	Code	Title	R/T	Theater	Sub	Rate	Q&A	Page
18:30	무료	첫 번째 밤, 블루 나잇 1st Night Blue Night 아도이 / 새소년 ADOY / SE SO NEON 상영작: 두개의 빛: 릴루미노 Screening: Two Lights: Relumino (31min)			US	E	G	
								126

쿨나이트 - 공연 Cool Night - Performance

Time	Code	Title	R/T	Theater	Sub	Rate	Q&A	Page
23:00	118	타이거디스코, 이박사 Tiger Disco, Lee Park Sa	120	UP		18		134

푸른 밤 시네마 Blue Night Cinema

Time	Code	Title	R/T	Theater	Sub	Rate	Q&A	Page
20:00	무료	Fiction & Other Realities Fiction & Other Realities	83	JP	E	G	GR	85

상영 일정표 SCREENING SCHEDULE

08.11 Sat

메가박스 제천 Megabox Jecheon

Time	Code	Title	R/T	Theater	Sub	Rate	Q&A	Page
10:00	031	저항의 발라드 Soz: A Ballad of Maladies	85	M2	E	12		109
	032	시네 심포니 단편 1 Cine Symphony Shorts 1	94	M5	E	15	QA	57
	033	뮤직 인 사이트 중편 2 Music in Sight Double Screening 2 영화음악의 거장들 - 알렉상드르 데스플라 + 영화음악의 거장들 - 장 클로드 프티 IN THE TRACKS OF ALEXANDRE DESPLAT + IN THE TRACKS OF JEAN-CLAUDE PETIT	114	M6	E	G		76
10:30	034	오 마이 블루 Oh Mammy Blue	87	M1	E	12		56
	035	이차크의 행복한 바이올린 Itzhak	83	M3		G		72
12:30	036	에티오피아 음악의 황금기 Ethiopiques - Revolt of the Soul	70	M2	E	12	QA	45
	037	한국 음악영화의 오늘 단편 3 Korean Music Film Now Shorts 3	102	M5	E	12	QA	94
	038	스웨덴의 걸크리쉬, 실바나 Silvana	94	M6	E	15		74
13:00	039	칼 슈미트의 귀환 Magical Mystery - or: The Return of Karl Schmidt	111	M1	E	15	QA	55
	040	시네 심포니 단편 2 Cine Symphony Shorts 2	85	M3	E	12	QA	61
15:30	041	마이클 잭슨 따라잡기 Sheikh Jackson	95	M2	E	12	QA	46
	042	한국 음악영화의 오늘 단편 2 Korean Music Film Now Shorts 2	89	M5	E	G	QA	92
	043	만약 내가 떠난다면 - 레너드 스키너드 이야기 If I Leave Here Tomorrow: A Film about Lynyrd Skynyrd	95	M6		12		71
16:00	044	다름의 하모니 Distinction	98	M1	E	G	QA	52
	045	수퍼 디스코 Super Disco	110	M3	E	12	G	87
	046	파차원카 - 자유를 노래함 PACHAMANKA - SINGING FOR FREEDOM	67	M2	E	G		74
18:30	047	한국 음악영화의 오늘 단편 1 Korean Music Film Now Shorts 1	89	M5	E	12	QA	89
	048	쇼팽 콩쿠르의 모든 것 Festival	84	M6	E	G		71
19:00	049	바지라오 마스타니 Bajirao Mastani	158	M1	E	12		107
	050	뮤직 인 사이트 단편 2 Music in Sight Shorts 2	94	M3	E	G		81
21:00	051	마리아 칼라스: 세기의 디바 Maria by Callas	113	M2	NE	G		73
	052	시네 심포니 단편 3 Cine Symphony Shorts 3	95	M5	E	15		64
	053	백스 BECKS	93	M6		18		51
21:30	054	라이트 업 Light Up	98	M3	E	12		54
24:00	055	심야상영 2 Midnight Screening 2 감자마을 메탈밴드 Ready to Roll - Exterminator (117min) 침묵이며 안녕 Good-bye Silence (85min) 스웨덴의 걸크리쉬, 실바나 Silvana (94min)	296	M1	E	18		57 52 74

제천시 문화회관 Jecheon City Cultural Center

Time	Code	Title	R/T	Theater	Sub	Rate	Q&A	Page
10:00	056	피아노의 거장, 주앙 카를로스 마틴스 João, the Maestro	116	JC	E	12		53
13:30	057	음악 들려주는 영화관: Fiction & Other Realities Music Theater: Fiction & Other Realities	83	JC	E	G	QA	85
17:00	058	제천 라이브 초이스 Jecheon Live Choice 말하다: 김태훈, 최고은 Talk: KIM TAE HOON, CHOI GONNE	90	JC			QA	137

원 썸머 나잇 - 영화 상영 & 공연 One Summer Night - Screening & Performance

Time	Code	Title	R/T	Theater	Sub	Rate	Q&A	Page
20:00	059	미드나잇 바이브 Midnight Vibe 시네마 콘서트 Cinema Concert 찰리 채플린 단편모음 with 신나는섬 Charlie Chaplin's Short Films with band SINSUM (78min)		CL		G	GR	121
		자이언티, 혁오, 카터가든 Zion, T, HYUKOH, Car, the garden						

이름 썸머 나잇 - 영화 상영 & 공연 Uirim Summer Night - Screening & Performance

Time	Code	Title	R/T	Theater	Sub	Rate	Q&A	Page
18:30	무료	두 번째 밤, 레드 나잇 2nd Night Red Night 밴드 소울트레인 / 신촌블루스 Band Soultrain / Shinchon Blues 상영작: Trip of Blues Screening: Trip of Blues (79min)		US	E	12		127

쿨나이트 - 공연 Cool Night - Performance

Time	Code	Title	R/T	Theater	Sub	Rate	Q&A	Page
23:00	119	타이거디스코, 불나방스타썰세지클럽 Tiger Disco, Bulnabang Star Sausage Club	120	UP		18		135

푸른 밤 시네마 Blue Night Cinema

Time	Code	Title	R/T	Theater	Sub	Rate	Q&A	Page
20:00	무료	대관팔차 The Goose Goes South	110	JP	E	12	GR	85

상영 일정표 SCREENING SCHEDULE

08.12 Sun

메가박스 제천 Megabox Jecheon

Time	Code	Title	R/T	Theater	Sub	Rate	Q&A	Page
10:00	060	마리아 칼라스: 세기의 디바 Maria by Callas	113	M2	NE	G		73
	061	한국 음악영화의 오늘 단편 4 Korean Music Film Now Shorts 4	92	M5	E	12	QA	96
	062	첼로의 거장 로스트로포비치 MSTISLAV ROSTROPOVICH, the Indomitable Bow	79	M6	E	G		73
10:30	063	뮤직 인 사이트 중편 2 Music in Sight Double Screening 2 영화음악의 거장들 - 알렉상드르 데스플라 + 영화음악의 거장들 - 장 클로드 프티 IN THE TRACKS OF ALEXANDRE DESPLAT + IN THE TRACKS OF JEAN-CLAUDE PETIT	114	M1	E	G		76
	064	주자나 루지치코바와 첼발로 Zuzana: Music is Life	89	M3	E	G		75
	065	신이 잠들 때 When God Sleeps	90	M2	E	12	QA	48
12:30	066	라이브하드 LIVE HARD	100	M5	E	15	QA	86
	067	상송가수 바르바라 Barbara	99	M6	E	12		51
	068	에티오피아 음악의 황금기 Ethiopiques - Revolt of the Soul	70	M1	E	12		45
13:00	069	침묵이며 안녕 Good-bye Silence	85	M3	E	18	QA	52
	070	말람보 댄서 Malambo, the Good Man	71	M2	E	G	QA	46
	071	무료 JIMFF 포럼 JIMFF Forum		M5			QA	145
15:30	072	할아버지의 노래 The Man behind the Microphone	98	M6	E	12		72
	073	니코, 1988 Nico, 1988	93	M1		15		55
	074	첫대수위리 Siddheshwari	89	M3	E	12		109
18:30	075	반값 여행 Half Ticket	120	M2	E	G		108
	076	수퍼 디스코 Super Disco	110	M5	E	12		87
	077	오 맘미 블루 Oh Mammy Blue	87	M6	E	12		56
19:00	078	라디오그램 RADIOGRAM	84	M1	E	12		56
	079	이것도 내 인생 It's My Life	103	M3	E	G		53
	079	스웨덴의 걸크러쉬, 실바나 Silvana	94	M2	E	15		74
21:00	080	뮤직 인 사이트 단편 1 Music in Sight Shorts 1	98	M5	E	G		77
	121	파차만카-자유를 노래함 PACHAMANKA - SINGING FOR FREEDOM	67	M6	E	G		74
	082	또 다른 삶 Life without Life	91	M1	E	G		54
21:30	083	로큰롤할배 Rock 'n' Roll Grandpa	95	M3	E	G		86

제천시 문화회관 Jecheon City Cultural Center

Time	Code	Title	R/T	Theater	Sub	Rate	Q&A	Page
10:00	084	만약 내가 떠난다면 - 레너드 스키너드 이야기 If I Leave Here Tomorrow: A Film about Lynnyrd Skynyrd	95	JC		12		71
13:30	085	음악 들려주는 영화관: 보이지 않는 도시 + 봄날 + 울림 Music Theater: Invisible Cities + A Spring Day + Résonances	87	JC	E	G	QA	88
17:00	086	제천 라이브 초이스 Jecheon Live Choice 상영작: 이차크의 행복한 바이올린 Screening: Itzhak (83min) 만나다: 우정훈, 박요셉 Meet: WOO JUNG HOON, PARK JOSEPH		JC		G	QA	140

원 썸머 나잇 - 영화 상영 & 공연 One Summer Night - Screening & Performance

Time	Code	Title	R/T	Theater	Sub	Rate	Q&A	Page
20:00	087	이터널 썸머 나잇 Eternal Summer Night 시네마 콘서트 Cinema Concert 카메라맨 with 신나는섬 The Cameraman with band SINSUM (76min) 김연우, 소란, 마틴 스미스 KIM YEON WOO, SORAN, MARTIN SMITH		CL		G	QA	123

이림 썸머 나잇 - 영화 상영 & 공연 Uirim Summer Night - Screening & Performance

Time	Code	Title	R/T	Theater	Sub	Rate	Q&A	Page
18:30	무료	세 번째 밤, 골드 나잇 3rd Night Gold Night 스텔라장 / 폴킴 Stella Jang / Paul Kim 상영작: 뷰티풀마인드, 마음이 그 소리 있지? Screening: Listen to Your Heart. The Beautiful Mind (110min)		US	E	G		128

푸른 밤 시네마 Blue Night Cinema

Time	Code	Title	R/T	Theater	Sub	Rate	Q&A	Page
20:00	무료	시네 심포니 단편 2 Cine Symphony Shorts 2	85	JP	E	12		61

상영 일정표 SCREENING SCHEDULE

08.13 Mon

메가박스 제천 Megabox Jecheon

Time	Code	Title	R/T	Theater	Sub	Rate	Q&A	Page
10:00	088	쇼팽 콩쿠르의 모든 것 Festival	84	M2	E	G		71
	089	한국 음악영화의 오늘 단편 2 Korean Music Film Now Shorts 2	89	M5	E	G		92
10:30	090	산을 휘감는 목소리 Up Down & Sideways	83	M1	E	G		47
	091	감자마을 메탈밴드 Ready to Roll - Exterminator	117	M3	E	15		57
	092	또 다른 삶 Life without Life	91	M2	E	G		54
12:30	093	주제와 변주 중편 Theme & Variations Double Screening 상카르 마하데반 + 라비 상카르 Decoding Shankar + Ravi Shankar	86	M5	E	G	QA	110
	094	말더듬이 발라드 Stammering Ballad	90	M1	E	G		47
13:00	095	비하르 민중의 드라마 Naach Bhikhari Naach	72	M3	E	G		108
	096	마이클 잭슨 따라잡기 Sheikh Jackson	95	M2	E	12		46
15:30	097	저항의 발라드 Soz: A Ballad of Maladies	85	M5	E	12		109
	098	상송가수 바르바라 Barbara	99	M1	E	12		51
16:00	099	Trip of Blues Trip of Blues	79	M3	E	12	QA	87
	100	칼 슈미트의 귀환 Magical Mystery - or: The Return of Karl Schmidt	111	M2	E	15		55
18:30	101	한국 음악영화의 오늘 단편 3 Korean Music Film Now Shorts 3	102	M5	E	12		94
	102	피아노의 거장, 주앙 카를로스 마빈스 João, the Maestro	116	M1	E	12		53
19:00	103	Fiction & Other Realities Fiction & Other Realities	83	M3	E	G		85
	104	시네 심포니 단편 2 Cine Symphony Shorts 2	85	M2	E	12		61
21:00	105	뮤직 인 사이트 단편 2 Music in Sight Shorts 2	94	M5	E	G		81
	106	라이트 업 Light Up	98	M1	E	12		54
21:30	107	다름의 하모니 Distinction	98	M3	E	G		52

제천시 문화회관 Jecheon City Cultural Center

Time	Code	Title	R/T	Theater	Sub	Rate	Q&A	Page
10:00	108	창공에서 Amidst the Atmosphere	138	JC	E	G		107
17:00	109	제천 라이브 초이스 Jecheon Live Choice 상영작: 아메리칸 포크 American Folk (99min) 만나다: EXP EDITION Meet: EXP EDITION		JC		G	QA P	140

여름 썸머 나잇 - 영화 상영 & 공연 Uirim Summer Night - Screening & Performance

Time	Code	Title	R/T	Theater	Sub	Rate	Q&A	Page
18:30	무료	네 번째 밤, 퍼플 나잇 4th Night Purple Night 타틀즈 / 윤수일 Tatles / Yoon Su Il		US	E	G		129
		상영작: 로큰롤발매 Screening: Rock 'n' Roll Grandpa (95min)						

푸른 밤 시네마 Blue Night Cinema

Time	Code	Title	R/T	Theater	Sub	Rate	Q&A	Page
20:00	무료	수퍼 디스코 Super Disco	110	JP	E	12		87

08.14 Tue

메가박스 제천 Megabox Jecheon

Time	Code	Title	R/T	Theater	Sub	Rate	Q&A	Page
11:00	110	주자나 루지치코바와 첼발로 Zuzana: Music is Life	89	M1	E	G		75
	111	뮤직 인 사이트 중편 1 Music in Sight Double Screening 1 음악을 담은 사진가 + 영화음악의 거장들 - 마크 아이샴 The Accidental Photographer - Henry Diltz's 50 Years in Rock & Roll + IN THE TRACKS OF MARK ISHAM	114	M2	E	G		75
	112	패밀리 페스트 단편 Family Fest Shorts	79	M5	E	G		101
	113	로스 반도 Los Bando	94	M3	E	G		101
14:00	114	첼로의 거장 로스트로포비치 MSTISLAV ROSTROPOVICH, the Indomitable Bow	79	M1	E	G		73
	115	칼 슈미트의 귀환 Magical Mystery - or: The Return of Karl Schmidt	111	M2	E	15		55
	116	시네 심포니 단편 3 Cine Symphony Shorts 3	95	M3	E	15		64
	117	한국 음악영화의 오늘 단편 4 Korean Music Film Now Shorts 4	92	M5	E	12		96

폐막식 Closing Ceremony

Time	Code	Title	R/T	Theater	Sub	Rate	Q&A	Page
19:00	무료	폐막작 Closing Film 국제경쟁부문 롯데 어워드 수상작 특별 상영 The LOTTE Award winner of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Section		US	E			



*Heritage make
squarely utilitarian bags*

JOHN PETERS
NEW YORK

존피터뉴욕코리아 www.johnpetersnewyork.co.kr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10길 55 (양재동)
문의 02-6085-6766



티켓 구입 안내

티켓 종류

개막식

10,000원

청풍호반무대

- 보호자 동반 시 7세 이하(2012년 이후 출생) 무료 발권
- 모바일 티켓 입장 불가

콜나이트

12,000원

의림지 파크랜드

- 20세 미만(2000년 이후 출생) 미성년자 입장 불가
(입장 시 신분증 확인)
- 모바일 티켓 입장 불가, 입장 팔찌 필수 착용

일반상영

6,000원

메가박스 제천,
제천시 문화회관

- 보호자 동반 시에도 5세 미만(2015년 이후출생) 입장 불가
- 모바일 티켓 입장 가능

원 썸머 나잇

30,000원

(야외상영 + 공연)

청풍호반무대

- 보호자 동반 시 7세 이하(2012년 이후 출생) 무료 발권
- 모바일 티켓 입장 불가, 얼리버드 티켓 입장 팔찌 필수 착용

심야상영

12,000원

메가박스 제천

- 보호자 동반 시에도 5세 미만(2015년 이후출생) 입장 불가
- 모바일 티켓 입장 가능

의림 썸머 나잇

무료

(야외상영 + 공연)

의림지무대

- 별도의 티켓 없이 당일 선착순 무료 입장

제천 라이브 초이스 (토크 + 공연)

12,000원

제천시 문화회관

- 보호자 동반 시에도 5세 미만(2015년 이후출생) 입장 불가
- 모바일 티켓 입장 가능

폐막식

무료

의림지무대

- 별도의 티켓 없이 당일 선착순 무료 입장

티켓 할인

프로그램	할인 종류	할인가	참고
개막식	제천시인 할인	무료	신분증 확인 후 1인 2매 무료 발권
	티켓 패키지 할인	무료	zim프랜드, 문화회관 프리패스 구매자에 한해 1인 2매 무료 발권
원 썸머 나잇	7세 이하 할인	무료	증빙서류 확인 후 7세 이하(2012년 이후 출생) 무료 발권
	온라인 예매 할인	27,000원	- 홈페이지 통해 예매 시 1인 4매 할인 - '원 썸머 나잇' 상영 전날 자정까지 예매 가능
	7세 이하 할인	무료	증빙서류 확인 후 7세 이하(2012년 이후 출생) 무료 발권
	제천시인 할인	19,000원	신분증 확인 후 1인 2매 할인 발권
	장애인, 국가유공자 할인	19,000원	신분증 확인 후 1인 2매 할인 발권
제천라이브 초이스	단체 할인	26,000원	- 10매 이상 구입 시 할인 - 신청 기간: 2018.7.17(화) ~ 8.2(목)
	단체 할인	10,000원	- 홈페이지 내 단체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후 이메일 접수
	클라우드	10,000원	(ticket@jimff.org)

※ 모든 할인은 중복 적용 불가합니다.

※ 온라인 예매 할인, 단체 할인을 제외한 모든 할인은 현장에서 신분증이 확인되지 않으면 적용 불가합니다.

온라인 예매

예매기간	2018.7.26(목) 14:00 ~ 8.13(월) 24:00
예매시간	예매기간 내 24시간 예매 가능(단, 상영 및 공연 당일 온라인 예매 불가)
예매방법	홈페이지(www.jimff.org) 회원가입 후 예매
결제수단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예매인증번호(바람볼어 좋은 밤, zim프랜드)
수령방법	각 현장매표소 운영시간 내 예매번호 및 본인 확인(이름·ID) 후 티켓 수령

현장 예매 (현장매표소)

현장매표소	메가박스 제천	제천시 문화회관	청풍호반무대	의림지 파크랜드
운영기간	2018.8.10(금) ~ 8.14(화)	2018.8.10(금) ~ 8.13(월)	2018.8.9(목) ~ 8.12(일)	2018.8.10(금) ~ 8.11(토)
프로그램	일반상영, 심야상영	일반상영, 제천 라이브 초이스	개막식, 원 썸머 나잇	클라우드
운영시간	09:00 ~ 해당 일차 마지막 상영 시작 후 10분까지 * 개막일(8.9)은 운영하지 않음	16:00 ~ 해당 일차 마지막 공연 시작 시간까지	21:30 ~ 23:30	
결제수단	현금, 신용카드, 예매인증번호(바람볼어 좋은 밤, zim프랜드), 문화회관 프리패스, ID카드			

예매 유의사항

수용 인원 제한 및 매진 안내

청풍호반무대에서 진행되는 '원 썸머 나잇'은 최대 3,000명까지 입장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매로 전석이 매진된 경우, 안전상의 문제로 부득이하게 현장에서는 티켓을 구매하실 수 없습니다. 온라인 예매를 통한 사전 티켓 예매를 권장합니다.

※ 개막 당일 청풍호반무대 현장매표소에서는 개막식 티켓의 구매 및 발권만 가능합니다.

※ 온라인 예매 매진작은 상영 및 공연 당일 현장매표소에서 선착순으로 현장 판매분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5세 미만 어린이(2015년 이후 출생)는 보호자를 동반해도 메가박스 제천, 제천시 문화회관 상영관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 '원 썸머 나잇' 상영 시 타인의 관람을 방해할 경우, 장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잠시 퇴장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 정시 상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티켓 발권은 상영 시작 후 10분까지 가능하며, 상영 시작 15분 후에는 입장이 제한됩니다.
(상영 시작 후 입장 시 지정 좌석 보장 불가)

※ '원 썸머 나잇', '익림 썸머 나잇', '클라우드'는 프로그램 시작 후에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예매자의 경우 메가박스 제천, 제천시 문화회관 상영작에 한해 모바일 티켓이 가능합니다.

(‘개막식’, ‘원 썸머 나잇’, ‘클라우드’는 모바일 티켓 발권 불가)

※ '원 썸머 나잇(얼라버드 티켓)', '클라우드' 입장 시 입장 팔찌를 착용하지 않으면 입장이 불가하며,

분실 및 파손 시 재지급되지 않습니다.

취소 및 환불

구분	온라인 예매	현장 예매 (현장매표소)
취소기간	온라인 예매기간 내 해당 상영 및 공연 전날 자정(24:00)까지	해당 상영 및 공연 시작 1시간 전까지
취소방법	홈페이지(www.jimff.org) [마이페이지 > 예매내역확인]에서 취소	각 현장매표소에서 취소할 티켓 지참 후 취소
취소수수료	없음	- 상영-공연 전날까지: 없음 - 상영-공연 당일 1시간 전까지: 한 건당 1,000원의 취소수수료 부과(현금만 가능)

※ 관객의 개인사정(교통정체로 인한 지각, 상영 및 공연 시간 착오 등)으로 인해 입장하지 못한 경우에는 환불 불가합니다.

※ 일반적인 우천 시에는 우비 배포 후 예정대로 야외상영 및 공연이 진행되므로 환불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 온라인 예매 후 발권된 티켓은 현장매표소에서만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티켓 지참)

※ 상영 및 공연 당일 티켓 수량-상영작-작사-결재 방법 등의 변경을 위한 취소라도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티켓의 부분 취소는 불가합니다. (3매 예매 후 1매 취소의 경우, 3매 전체 취소 후 2매 예매)

※ 초대권으로 발권된 티켓은 취소 및 교환이 불가합니다.

티켓 나눔터

운영기간	2018.8.10(금) ~ 8.14(화)
운영장소	메가박스 제천 현장매표소 앞
운영방법	상영 및 공연 당일 취소하지 못한 관객이 자율적으로 게시판에 정보를 기재, 원하는 관객과 티켓을 교환 또는 거래

※ 제천시 문화회관, 청풍호반무대 현장매표소에서는 티켓 나눔터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 ID카드, 초대권 등으로 무료 발권된 티켓은 양도만 가능하며 판매하실 수 없습니다.

※ 영화제 측에서는 부정당한 거래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지거나 보상하지 않습니다.

※ 현장매표소와 티켓 나눔터에서 티켓의 보관 및 대리 거래는 불가합니다.

상영관 및 공연장 입장 주의사항

[메가박스 제천, 제천시 문화회관]

- ※ 해당 상영관의 실물 티켓 또는 모바일 티켓을 소지해야만 입장 가능하며, 분실 및 파손 시 재발권 불가합니다.
- ※ 정기 상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티켓 발권은 상영 시작 후 10분까지 가능하며, 상영 시작 15분 후에는 입장이 제한됩니다.
(상영 시작 후 입장 시 지정 좌석 보장 불가)
- ※ 쾌적한 관람 환경을 위해 음식을 반입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문화회관은 뚜껑 있는 물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 반입 불가)
- ※ 영화 상영 중 사진이나 비디오 촬영은 불가합니다.
- ※ 5세 미만 어린이(2015년 이후 출생)는 보호자를 동반해도 상영관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보호자를 동반해도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의 영화 관람이 불가합니다.

[야외상영장(청풍호반무대, 의림지무대, 의림지 파크랜드)]

- ※ '원 썸머 나잇(얼리버드 티켓)', '쿨나이트' 입장 시 입장 팔찌를 착용하지 않으면 입장이 불가하며,
분실 및 파손 시 재지급되지 않습니다.
- ※ 야외상영장은 프로그램 시작 후에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 ※ 청풍호반무대의 '원 썸머 나잇'은 영화와 공연의 개별 구매가 불가합니다.
- ※ '원 썸머 나잇' 상영 시 타인의 관람을 방해할 경우, 장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잠시 퇴장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 ※ 야외상영장은 비저장 좌석제로 운영되며 선착순으로 입장하여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공연의 경우 스탠딩 진행)
- ※ 일반적인 우천 시에는 우비 배포 후 예정대로 야외상영 및 공연이 진행되므로 환불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 ※ 청풍호반무대 인근 주차장이 혼잡하니 제천시내에서 출발하는 셔틀버스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 청풍호반무대에는 뚜껑 있는 음료를 제외한 모든 음식물 반입이 불가합니다.
- ※ 영화 상영 중 사진이나 비디오 촬영은 불가합니다.
- ※ 공연 도중 아티스트 및 관객의 모습을 담은 공식 사진 또는 영상이 촬영될 수 있습니다.
일부는 추후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 ※ 휴연은 지정된 구역에서만 가능합니다.
- ※ 야외상영장 내 반려동물의 출입은 불가합니다.

TICKET PURCHASE GUIDE

Tickets

Opening Ceremony ₩ 10,000

Cheongpung Lakeside Stage

- Children under 7(Born after 2012) are given free tickets with adult guardians who have tickets.
- NOT admitted with mobile tickets.

Cool Night ₩ 12,000

Uirimji Parkland

- People who are under 20(Born after 2000) are NOT admitted. (ID Checks)
- NOT admitted with mobile tickets.
- Wearing entry bracelets is essential.

General Screening ₩ 6,000

Megabox Jecheon,
Jecheon City Cultural Center

- Children under 5(Born after 2015) are NOT admitted, even if with adult guardians.
- Mobile tickets are available.

One Summer Night ₩ 30,000

(Outdoor Screening + Music Live)

Cheongpung Lakeside Stage

- Children under 7(Born after 2012) are given free tickets with adult guardians who have tickets.
- NOT admitted with mobile tickets, wearing entry bracelets is essential for an early bird ticket.

Midnight Screening ₩ 12,000

Megabox Jecheon

- Children under 5(Born after 2015) are NOT admitted, even if with adult guardians.
- Mobile tickets are available.

Uirim Summer Night Free

(Outdoor Screening + Music Live)

Uirimji Stage

- All admission free, but in the order of arrival.

Jecheon Live Choice ₩ 12,000

(Talk Show + Music Live)

Jecheon City Cultural Center

- Children under 5(Born after 2015) are NOT admitted, even if with adult guardians.
- Mobile tickets are available.

Closing Ceremony Free

Uirimji Stage

- All admission free, but in the order of arrival.

Ticket Discount

Program	Type	Price	Note
Opening Ceremony	Jecheon Citizen Discount	Free	2 free tickets for 1, after ID Checks
	Ticket Package Discount	Free	2 free tickets for 1 who holds JIMFFriends or JC Free Pass
	Under Age 7 Discount	Free	Children under 7(Born after 2012) are given free tickets with certifications of the children's date of birth.
One Summer Night	Online Purchase in Advance Discount	₩ 27,000	- Online Purchase in advance on the official website, 4 discounted tickets for 1. - Up to the day(By 24:00) before One Summer Night.
	Under Age 7 Discount	Free	Children under 7(Born after 2012) are given free tickets with certifications of the children's date of birth.
	Jecheon Citizen Discount	₩ 19,000	2 free tickets for 1, after ID Checks
	People with disabilities & Men of National Merit Discount	₩ 19,000	2 free tickets for 1, after ID Checks
	Group Discount	₩ 26,000	- Discount for more than 9 - Purchase Period: 17. July(Tue) - 2. Aug(Thu), 2018 - Download the group application from the official website and fill out, then E-mail to ticket@jimff.org
Jecheon Live Choice	Group Discount	₩ 10,000	
Cool Night	Group Discount	₩ 10,000	

※ Doubled discounts are not applicable.

※ All discounts, excluding Online Purchase in Advance Discount and Group Discount, are NOT applicable without ID Checks.

Online Purchase in Advance for Foreigners

Reservation period	14:00 17. July(Tue) - 18:00 2. Aug(Thu), 2018
How to	Download the application from the official website(www.jimff.org) and fill out, then E-mail to ticket@jimff.org
Cancellation period	Change and cancellation are available only during the reservation period.
Payment methods	Cash, Credit cards(Reservation approval number or cultural and book vouchers are not applicable)
Receiving methods	Receive after checking ID & E-mail application and paying during the opening time of each box office.

※ Foreigners(Including Foreign registration number holders) can NOT sign up for the official website, so can NOT purchase the tickets in advance.

※ After the period of purchase in advance, purchase in advance is possible at on-site box offices like general ticket purchasing.

On-site Reservation (Box office)

On-site box office	Megabox Jecheon	Jecheon City Cultural Center	Cheongpung Lakeside Stage	Uirimji Parkland
Days of operation	10. Aug(Fri) - 14. Aug(Tue), 2018	10. Aug(Fri) - 13. Aug(Mon), 2018	9. Aug(Thu) - 12. Aug(Sun), 2018	10. Aug(Fri) - 11. Aug(Sat), 2018
Program	General Screening, Midnight Screening	General Screening, Jecheon Live Choice	Opening Ceremony, One Summer Night	Cool Night
Hours of operation	09:00 - After 10 min. of the last screening of the day *No operation on the opening day(9. Aug)		16:00 - Before the last performance of the day begins	21:30 - 23:30
Payment methods	Cash, Credit cards, Reservation approval number (Summer Night Breeze, JIMFFriends), JC Free Pass, ID card			

Note for Purchasing in Advance

Limit of the number of people to be admitted & Sold out

'One Summer Night' on Cheongpung Lakeside Stage has a seating capacity of 3,000. In case of sold out online, purchasing tickets on-site is not available due to safety issue. Online purchasing in advance is recommended.

- ※ On the opening day, at the box office of Cheongpung Lakeside Stage ONLY 'Opening Ceremony' ticket purchasing & issuing are available.
- ※ Sold out online tickets are available at on-site box office on the day by order. (For offline portion)
- ※ Children under age 5(Born after 2015), even if with adult guardians, NOT admitted to Megabox Jecheon, Jecheon City Cultural Center.
- ※ If audiences interrupt screening of 'One Summer Night', the staff may order to leave.
- ※ JIMFF makes it a rule to start film screening on scheduled time. Issuing tickets are available up to 10 minutes after the beginning of screening. Entering more than 15 minutes after the beginning of screening is not allowed. (Reserved seats will NOT be guaranteed after screening starts.)
- ※ Audiences may be admitted to 'One Summer Night', 'Uirim Summer Night' and 'Cool Night' even after it starts.
- ※ Audiences who purchased tickets online in advance can be admitted with mobile ticket only to Megabox Jecheon and Jecheon City Cultural Center. (Mobile tickets are NOT applicable to 'Opening Ceremony', 'One Summer Night' and 'Cool Night'.)
- ※ It is essential to wear entry bracelets for entering 'One Summer Night(Early bird ticket)' and 'Cool Night'. You cannot receive the new bracelets if it is lost or damaged.

Cancellation and Refund

Cancellation	Online Purchasing in Advance	On-site box office
Cancellation Period	Up to 1 day (By 24:00) before the screening or performance	1 hour before the screening or performance starts
Cancellation Methods	Cancel on official website (www.jimff.org) at [My Page > Confirmation of reservation]	Cancel at each on-site box office (Need to bring the ticket)
Cancellation Fee	No fee	- Up to the 1 day before the screening or performance: None - Up to 1 hour before screening or performance starts: ₩ 1,000 per cancellation (Cash only)

※ Refunds are not available when it is caused by the audience's personal excuse.

(ex: Traffic jam, a personal mistake about the schedule for screening/performance, etc.)

※ When it rains(Not extremely), the staff distributes raincoats then open air screening and performance are still on, so refund or cancellation is not applicable.

- ※ After purchasing online and issuing, cancellation is available only at an on-site box office and must bring the actual ticket.
- ※ On the day of screening or performance, a cancellation fee will be charged, even if it is only for the change of the number of tickets/programs/seats/options of payment.
- ※ Partial cancellation is not applicable. (ex: When audience wants to cancel only 1 ticket after purchasing 3 tickets, he or she cancels 3 tickets and reserves 2 tickets again.)
- ※ Invitation tickets are not available to cancel or exchange.

Ticket Exchange Center

Period	10. Aug(Fri) - 14. Aug(Tue), 2018
Venue	In front of Megabox Jecheon on-site box office
How it works	Non-refundable tickets can be freely re-sold or exchanged by posting on the bulletin board.

- ※ The Ticket Exchange Center will not be operated at on-site box office at Jecheon City Cultural Center and Cheongpung Lakeside Stage.
- ※ Invitation tickets or free tickets issued by festival ID card holders are not subject for sale, but can transferred.
- ※ The Film Festival is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damages resulting from ticket exchanges.
- ※ Box offices and Ticket Exchange Center do not keep tickets or sell any type of tickets on behalf of ticket holders.

Notice

[Megabox Jecheon, Jecheon City Cultural Center]

- ※ All audiences must hold actual tickets or mobile tickets for the screening to be admitted. Lost or damaged tickets cannot be reissued.
- ※ The Jecheon International Music & Film Festival's screenings begin on time. Ticket purchase is not available from 10 minutes after the screening begins, and admission is prohibited from 15 minutes after the screening begins. (Reserved seats will NOT be guaranteed after screening starts.)
- ※ For the better experience and other audiences, all food or drinks are not allowed.
(In Jecheon City Cultural Center, any kind food or drinks are prohibited except for water with lids.)
- ※ Photographing or filming during the screenings is strictly prohibited.
- ※ Children under 5 (Born after 2015) will not be admitted in the theater, even if accompanied with adult guardians. Also, people under age 18 are not allowed to watch films 'rated R' even if accompanied by their adult guardians.

[Outdoor Screening Venue (Cheongpung Lakeside Stage, Uirimji Stage, Uirimji Parkland)]

- ※ It is essential to wear entry bracelets for entering 'One Summer Night(Early bird ticket)' and 'Cool Night'. You cannot receive the new bracelets if it is lost or damaged.
- ※ Since it is open air performance, audiences may be admitted after the program starts.
- ※ The program combines screening and performance, so tickets are not sold separately.
- ※ For the better experience and other audiences, if audiences interrupt screening of 'One Summer Night', the staff may order to leave.
- ※ Audiences must possess tickets to be admitted and lost or damaged tickets cannot be reissued.
- ※ The seats for the outdoor screening venues are taken on a first-come-first-served basis.
(Some performances may be standing only.)
- ※ When it rains (Not extremely), the staff distributes raincoats then open air screening and performance are still on, so refund or cancellation is not applicable.
- ※ It may be difficult to park near the Cheongpung Lakeside Stage. Please take the shuttle bus from Jecheon City downtown.
- ※ In Cheongpung Lakeside Stage, any kind of food or drink is not allowed, except for drinks with lids.
- ※ Photographing or filming during the screening is strictly prohibited.
- ※ Smoking is allowed in designated smoking areas only.
- ※ Pets are not allowed in the outdoor screening venue.

김치
맛있는
집이
요리도
맛있잖아요.



전통을 잇는 새로운 한식의 맛 -
그맛의 중심엔 언제나 종가집이 있습니다



티켓 패키지 프로그램

짐프렌즈 (JIMFFriends)

‘짐프렌즈’는 단 100명의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열혈 관객들을 위한 티켓 패키지입니다. 온라인과 현장 예매가 모두 가능한 예매인증번호가 제공됩니다. 꿈 같은 공연, 아름다운 음악 영화로 여름 날을 가득 채우고 싶은 당신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판매기간	2018.7.17(화) 14:00 ~ 7.20(금) 18:00
판매수량	100개(1인 1패키지 구입 가능)
금액	50,000원
혜택	10편 예매권 - 온라인과 현장 예매 가능한 예매인증번호 발급 - 일반상영(1매 차감) / 심야상영-클라우드-제천 라이브 초이스(2매 차감) / 원 썸머 나잇(5매 차감) ID카드 현장에서 바코드로 예매 가능한 특별 ID카드 제공 무료 발권 개막식 무료 입장권 1인 2매 제공 무료 음료 ID카드 제시 시 영화제 기간 중 게스트 센터에서 음료 1일 1회 무료 제공 특별 선물 드릴리스 신발 증정(주후 변동 가능)
구입방법	홈페이지(www.jimff.org) 회원 가입 및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문화회관 프리패스 (JC Free Pass)

‘문화회관 프리패스’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만의 특별한 복합문화공간인 제천시 문화회관의 상영작을 모두 관람할 수 있는 티켓 패키지입니다. 현장 예매가 가능한 ID카드가 제공됩니다. 문화회관에서 열리는 다양한 전시-채널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판매기간	2018.7.17(화) 14:00 ~ 7.20(금) 18:00
판매수량	50개(1인 1패키지 구입 가능)
금액	35,000원
혜택	전편 예매권 제천시 문화회관에서 상영하는 모든 일반상영작과 제천 라이브 초이스 예매 가능한 ID카드 발급 ID카드 현장에서 바코드로 예매 가능한 특별 ID카드 제공 무료 발권 개막식 무료 입장권 1인 2매 제공 무료 음료 ID카드 제시 시 영화제 기간 중 게스트 센터에서 음료 1일 1회 무료 제공 특별 선물 디마티니 백팩 증정(주후 변동 가능)
구입방법	홈페이지(www.jimff.org) 회원 가입 및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 영화제 사정에 의해 티켓 패키지 운영 방법이 변경 될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사항은 홈페이지(www.jimff.org)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TICKET PACKAGE PROGRAM

JIMFFriends

‘JIMFFriends’ is a ticket package for only 100 enthusiastic fans of JIMFF. It provides certificate code available for both online and on-site reservation. We strongly recommend this package to all who want to enjoy their summer with great memories and music films.

Sales period	14:00 17. July(Tue) - 18:00 20. July(Fri), 2018
Sales quantity	100(1 person can buy only 1 package)
Price	₩ 50,000
Benefits	Purchase 10 tickets in advance - Providing certificate code available for both online and on-site reservation. - Counting 1 ticket for General Screening / Counting 2 tickets for Midnight Screening, 'Cool Night' and 'Jecheon Live Choice' / Counting 5 tickets for 'One Summer Night' ID card Providing special ID card can reserve with a barcode at the on-site box office. Free tickets 2 'Opening Ceremony' tickets for 1 person Free beverage With JIMFFriends ID card, a free beverage is provided in the Guest Center once a day. Special gift A pair of Drilleys shoes (Object can be replaced with another)
Purchasing methods	Apply online, after signing up and logging in to the official website. (www.jimff.org)

JC Free Pass

‘Jecheon City Cultural Center Free Pass’ is a ticket package, JC Free Pass holders can watch all films that are screening in Jecheon City Cultural Center. ID card for on-site reservation is provided. The JC Free Pass holders can enjoy various exhibitions and programs, too.

Sales period	14:00 17. July(Tue) - 18:00 20. July(Fri), 2018
Sales quantity	50(1 person can buy only 1 package)
Price	₩ 35,000
Benefits	Purchase all screenings in advance All General Screenings and 'Jecheon Live Choice' in Jecheon City Cultural Center ID Card Providing special ID card can reserve with a barcode at the on-site box office. Free tickets 2 'Opening Ceremony' tickets for 1 person Free beverage With JC Free Pass ID card, a free beverage is provided in the Guest Center once a day. Special gift De Martini Backpack(Object can be replaced with another)
Purchasing methods	Apply online, after signing up and logging in to the official website. (www.jimff.org)

※ Packages benefits and operation may differ due to the festival's circumstance.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heck the official website. (www.jimff.org)



충북 제천시 바이오밸리 1로 56(왕암동)
Tel) 1644-9606
농업회사법인(주)에이치팩스

청백로 증류수차
“한국의 차에 건강을 더하다”

백세시대를 준비하는 현대인의 필수 건강식품
‘청백로 증류수차 : 방’

www.teaterramall.com

14th JIMFF FILM PROGRAM

JIMFF 영화 프로그램

개막작

Opening Film

세계 음악영화의 흐름 (국제경쟁부문)

World Music Film Today (International Competition)

시네 심포니

Cine Symphony

뮤직 인 사이트

Music in Sight

한국 음악영화의 오늘

Korean Music Film Now

패밀리 페스트

Family Fest

주제와 변주 - 인도 음악영화, 그 천 개의 얼굴

Theme & Variations -
Thousand Faces of Indian Music and Film

시네마 콘서트

Cinema Concert

아메리칸 포크 American Folk



Director 데이비드 하인즈 David Heinz
USA / 2017 / 99min / DCP / Color / Drama

001	08.09 Thu	19:00	CL	G 12A
015	08.10 Fri	16:00	M1	G 12A
109	08.13 Mon	17:00	JC	G

2001년 9월 11일 아침, LA발 뉴욕행 비행기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된 두 이방인 엘리엇과 조니. 하지만 911테러의 여파로 비행기는 로스앤젤레스로 회항하고 두 사람 역시 혼란의 한가운데 놓이게 된다. 급히 뉴욕에 가야 한다는 것 외에 공통점이 별로 없는 두 사람은 조니 가족의 친구인 스코티가 낡은 밴을 빌려주겠다는 제안을 승낙한다. 두 사람의 미국 횡단 여정은 911테러의 충격과 스트레스로 우여곡절을 겪지만, 둘 사이에도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바로 오래된 포크송에 대한 애정이다. 엘리엇과 조니는 함께 노래를 부르며 음악에 담긴 치유의 힘을 다시금 깨닫고, 비극에 애도하면서도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는 시민들을 만나게 된다. 14개 주, 3500마일 이상의 여정을 촬영한 <아메리칸 포크>는 미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역사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게 도와준 포크 음악, 미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민들의 친절함을 노래하는 러브레터와 같은 영화이다.

When their plane from Los Angeles to New York is grounded on the morning of September 11, 2001, strangers Elliott and Joni are unexpectedly thrust together amidst the chaos of that historic day. With little in common but both needing to get to NYC urgently, they accept help from Joni's family friend Scottie who lends the duo a rusty old Chevy Van. The shock and stress of 9/11 quickly threatens to derail their cross-country journey until the pair discover what they do have in common: a love for old folk songs. Elliott and Joni raise their voices together, re-discovering the healing nature of music and bearing witness to a nation of people who, even while mourning, manage to lift each other up in the wake of tragedy. Filmed over 3,500 miles in fourteen states, *American Folk* serves as a love letter to the natural beauty of America, to the style of music that has shepherded us through historically tough times and to the kindness of all of the 'folk' that make America what it is.



데이비드 하인즈는 지난 10년간 독립영화와 상업영화를 편집하는 일을 해왔다. 2013년에는 존 쿠삭이 출연한 <어덜트 월드>를 편집했고, 2011년에는 폭스에서 제작한 <디스 민즈 워>를 비롯한 다수의 독립 장편영화를 편집했다. 또한 최근에는 <정글북>, <혹성탈출: 반격의 서막>, <다이하드4.0> 등의 시각효과편집을 맡기도 했다. <아메리칸 포크>는 하인즈의 장편영화 감독 데뷔작이다.

Director
데이비드 하인즈
David Heinz

For the last decade, David Heinz has been working in cutting rooms on both independent and studio pictures alike. Recently he edited *Adult World* with John Cusack. In 2011 he served as the additional editor of *This Means War* for FOX as well as several other recent independent features. He recently contributed as the visual effects editor to *The Jungle Book*, *Dawn of The Planet of the Apes*, and *Live Free or Die Hard*, to name a few. *American Folk* marks his feature directorial debut.

세계 음악영화의 흐름 (국제경쟁부문)

WORLD MUSIC FILM TODAY (INTERNATIONAL COMPETITION)

‘세계 음악영화의 흐름’에서는 장르의 구분 없이 음악을 소재로 한 다양한 최신 음악영화가 소개된다. 국내외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경쟁작 중 1편을 선정, 롯데 어워드를 수여한다. 수상작에는 2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올해에는 아르헨티나의 전통 무용인 말람보 무용수의 이야기를 극화한 <말람보 댄서>, 사춘기 시절 마이클 잭슨이 꿈이었던 이슬람 종교 지도자의 코믹한 이야기 <마이클 잭슨 따라잡기> 등 2편의 드라마와 1960년대 서구의 영향을 받은 에티오피아 음악계를 조명하는 <에티오피아 음악의 황금기>, 반체제적인 내용을 노래하여 망명을 떠난 이란의 뮤지션을 다룬 <신이 잠들 때>, 중국과 인도의 민속 음악 세계를 담아낸 <말더듬이 발라드>와 <산을 휘감는 목소리> 등 5편의 다큐멘터리가 상영된다. 음악이 소통의 중심이 되는 다양한 주제와 최신 음악영화들을 통해 세계 음악영화의 경향을 파악해본다.

‘World Music Film Today’ introduces latest films across all genres in which music plays a central role. A jury of five international members will select one film to receive the LOTTE Award, which is accompanied by 20 million KRW prizes. The selection of 2018 includes two narrative films and 5 documentaries. This year, two dramas and four documentary films will be screened: *Malambo, the Good Man*, a drama that unveils a story of a Malambo dancer; *Sheikh Jackson*, a comedy featuring a Muslim preacher who once admired and dreamed to be like Michael Jackson; *Ethiopiennes - Revolt of the Soul*, a film about the world of Ethiopian music which was influenced by the Western world in the 60's; *When God Sleeps*, a documentary about an Iranian musician who had to go into exile because of singing rebellious songs; *Stammering Ballad*, capturing the disappearing of Chinese folk song; and *Up Down & Sideways*, introducing agricultural work music of India. Through various films of all subjects and genres that feature music as means of communication, this section provides a snapshot of the latest trend in world music films.

에티오피아 음악의 황금기 Ethiopiques - Revolt of the Soul



Director 마시엑 보치니악 Maciek Bochniak

Poland, Germany / 2017 / 70min /
DCP / Color, B&W / Documentary, Animation

036	08.11 Sat	12:30	M2	12	ON
068	08.12 Sun	13:00	M1	12	

‘격동의 60년대’, 아디스아바바에서 폭발적인 문화혁명에 불을 지핀 에티오피아 재즈 뮤지션들의 흥망성쇠, 그리고 부활을 그린 영화. 이들의 음악은 탁월했지만, 군사정권이 권력을 잡고 음악가들을 망명하고 투옥으로 압박하여 황금기는 끝이 나고 말았다.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른 오늘, 그 뮤지션들이 세계 무대에 올라 음악을 연주하며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고 있다. <에티오피아 음악의 황금기>는 자신의 삶을 통해 음악이 가진 부활의 힘을 보여준 뮤지션들의 모습을 그린다.

A film about the rise, fall, and redemption of a group of spectacular Ethiopian Jazz musicians who in the swinging 60's ignited an explosive cultural revolution in Addis Ababa. Their music was sublime but this golden era was brought to an end by the military regime that took over the country and forced the musicians into exile and jail. Now, after many years, they are back on a world stage, making up for lost time and still swinging. This film follows the inspirational figures whose amazing life stories illustrate music's power of redemption.

뷰티플마인드, 마음에 그 소리 있지? Listen to Your Heart. The Beautiful Mind



Director 류장하 Ryu Jang-ha, 손미 Son Mi

Korea / 2018 / 110min / DCP / Color / Documentary

017	08.10 Fri	18:30	M2	G	ON
무료	08.12 Sun	18:30	US	G	

다양한 특성을 가진 아이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앙상블’. 이곳에서는 각기 다른 장애를 지닌 장애인과 비장애인 친구들이 모여 하모니를 이루어낸다. 또한 이들을 음악적으로 이끌어주는 선생님, 무대 뒤 스태프처럼 지원해주는 부모님, 그 과정을 돕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한다. 오케스트라 ‘앙상블’은 곧 서로의 장애와 차이를 이해하고 음악을 매개체로 소통하는 작은 사회다. 이제 이들의 이야기와 음악에 귀 기울여 보자.

‘Ensemble’. An orchestra made of kids with different handicaps. The teacher, parents and many others get together to complete the orchestra. The orchestra ‘Ensemble’ is a small community of people who understand the difference of each other, and music is a communicative medium for them. Now listen to their stories and music.

말람보 댄서 Malambo, the Good Man



Director 산티아고 로자 Santiago Loza
Argentina / 2018 / 71min / DCP / B&W / Drama

014	08.10 Fri	15:30	M6	G
070	08.12 Sun	15:30	M2	G OA

말람보 댄스대회를 위해 연습하는 가스파르. 몸은 아프지만 그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불굴의 노력을 쏟는다. 자신에게 패배를 안겨준 라이벌의 환상을 본 가스파르는 화가 치밀고, 라이벌에 대한 피할 수 없는 감정은 그를 방해한다. 가스파르는 강사의 도움을 받아 실력을 연마하는 동시에, 아이들에게 춤을 가르친다. 어느 날, 가스파르는 말람보 대회 우승자인 라이벌을 마주친다. 실제로 만난 라이벌은 친절하고, 가스파르가 느낀 질투와 씁쓸함은 무너져 버릴 지도 모른다.

Gaspar trains for the Malambo dancing tournament. His body aches, but he makes an extraordinary effort in order to achieve his goal. He has visions of his opponent, who has beat him. He feels resentful, and that inescapable feeling towards his competitor disturbs him. Gaspar tries to improve his technique aided by his instructor, and at the same time, he trains children in the art of zapateo. One day, he bumps into his enemy, the winner of the tournament. His rival is kind and real, and Gaspar's envy and bitterness might give way at that moment.

마이클 잭슨 따라잡기 Sheikh Jackson



Director 아므르 살라마 Amr Salama
Egypt / 2017 / 95min / DCP / Color / Drama

041	08.11 Sat	15:30	M2	12 OA
096	08.13 Mon	15:30	M2	12

마이클 잭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 이슬람 종교지도자는 패닉에 빠진다. 학교 다닐 때 '잭슨'이라 불렸던 그. 대체 이 종교인과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사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종교 지도자로서의 삶과 자신의 과거의 삶, 그리고 관계들을 어우러지게 만들려는 간절한 노력은 그의 마음 속에 이런 질문을 불러온다. '나는 이 이슬람 종교 지도자인 건가, 잭슨인 건가, 혹은 둘 다?'

The news of Michael Jackson's death takes an Islamic cleric, known as 'Jackson' during his school days, by surprise. But what does a preacher have in common with the King of Pop? More importantly, his struggle to conciliate his life as a preacher with his past life and relationships raises the most prominent question in his mind: is he the Sheikh, Jackson, or both?

말더듬이 발라드 Stammering Ballad



Director 장 난 Zhang Nan
China / 2018 / 90min / DCP / Color / Documentary

012	08.10 Fri	15:30	M2	G OA
094	08.13 Mon	13:00	M1	G

30년 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사막 지역에서 황하 유역인 간쑤성 바이안 시로 이주하면서 이 지역에 남아있던 전통 음악과 포크송도 점점 사라지게 된다. 어릴 때부터 유독 말을 더듬던 장가송은 버릇을 고치기 위해 전통 음악을 배운다. 비록 노래가 말더듬이를 고치지는 못했지만 장가송은 다른 젊은이들과 달리 전통 포크송에 심취하게 된다. 7년간 전통음악의 장인들을 만나며 음악을 배우고, 포크 가수로 성공하겠다는 꿈을 기우며 중국 전역을 전전하는 장가송!

Three decades ago, with the help of United Nations, thousands of population of a remote village was relocated from the desert to the banks of the Yellow River, nearby a city, while most of their local ballads and folk music that had been sung for generations were lost. But this young man, who got stammered since childhood, learned many folk songs to treat his stutter. The treatment was failed, but he became crazy about the folk music of his homeland. For last seven years, he stayed away from home to make a living as a touring singer.

산을 휘감는 목소리 Up Down & Sideways



Director 아누슈카 미낙시 Anushka Meenakshi, 이쉬와르 스리쿠마르 Iswar Srikumar
India / 2017 / 83min / DCP / Color / Documentary

007	08.10 Fri	12:30	M2	G OA
090	08.13 Mon	10:30	M1	G

인도-미얀마 국경 가까이에 위치한 인도 나갈랜드 주의 펙 마을. 마을 주민은 대부분 자급자족을 위해 쌀을 경작한다. 주민들은 두레를 형성하여 농사를 짓고 노동요를 부른다. 계절에 따라 노동요도 바뀌고, 매일 같은 일상은 노래로 아름답게 승화된다. 펙 마을 주민들이 노래하는 사랑은 공동체와 이웃들이 화음을 만들어야 한다는 걸 나타내는 은유이기도 하다. 벼농사꾼 공동체와 그들의 사랑과 상실에 대한 기억을 음악적으로 그렸다.

Close to the India-Myanmar border is the village of Phek in Nagaland. Almost all people in the village cultivate rice for their own consumption. They sing as they work in cooperative groups. The seasons change, and so does the music, transforming the mundane into the hypnotic. The love that they sing of is also a metaphor for the need for the fellows and the community, to build a polyphony of voices. It is a musical portrait of a community of rice cultivators and their memories of love and loss.

신이 잠들 때 When God Sleeps



Director 틸 샤우더 Till Schauder

USA, Germany / 2017 / 90min / DCP / Color / Documentary

009	08.10 Fri	12:30	M6	12
065	08.12 Sun	12:30	M2	12 6A

이란 가수 샤힌 나자피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가 선보인 풍자적인 랩은 수천 명이 그를 암살하라는 집회를 하게 만들었다. 강경파 종교지도자들은 그를 죽이라는 이슬람 율령을 내렸고 10만불의 현상금을 걸었다. 탈출한 샤힌은 이란의 첫 수상의 손녀인 레일리와 사랑에 빠져 불가능한 로맨스의 주인공이 된다. 샤힌과 레일리는 유럽의 난민위기, 점점 힘을 얻는 트럼프주의 그리고 증가하는 예술과 종교 간의 폭력적인 충돌에 관한 세계인의 걱정이라는 폭풍 한 가운데 놓이게 된다.

The film tells the story of Iranian singer Shahin Najafi. He released a satirical rap song that triggered thousands to rally in a campaign for his assassination. Hardline clerics issued a death fatwa against him and placed a \$100,000 bounty on his head. Shahin's escape leads to an impossible romance when he falls in love with Leili Bazargan, the granddaughter of the first Prime Minister of Iran. Shahin and Leili caught in the storm of Europe's refugee crisis, rising Trumpism and global anxiety about the increasingly violent clash between art and religion.

자외선차단 공기처럼 가볍게

케어놀로지 쓰리 액티브 디펜스 선크림

SPF 50+ PA++++



#3초흡수 #에어자차

시네 심포니 CINE SYMPHONY

‘시네 심포니’는 뮤지컬은 물론 음악이나 음악가를 소재로 다룬 다양한 장르의 영화, 극의 전개에 음악이 중요하게 사용된 동시대 극영화를 소개하는 섹션이다. 올해도 영화적 재미와 음악적 감동이 함께하는 음악영화들이 상영될 예정이다. 프랑스의 가수 바르바라의 전기영화 <상송가수 바르바라>와 브라질의 피아니스트 주앙 카를로스 마틴스의 전기영화 <피아노의 거장, 주앙 카를로스 마틴스>를 비롯해 독일과 스페인의 유쾌한 음악영화 <칼 슈미트의 귀환>과 <오 마이 블루> 등 다양한 장르와 소재의 음악영화가 관객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

This section introduces musical films, films of various genres that feature music or musicians, and contemporary drama films in which music has been used crucially for the development of the drama. This year JIMFF presents a number of films that captivate the audience with both cinematic pleasure and touching music. In Cine Symphony, music films of various genres and themes await the audiences, including two biopics: *Barbara* which is about the famous French singer Barbara, and *João, the Maestro* is about the Brazilian pianist João Carlos Martins. And two comedy films are showing: a Spanish film *Oh Mammy Blue* and a German film *Magical Mystery – or: The Return of Karl Schmidt*.

상송가수 바르바라 Barbara



Director 마티유 아말릭 Mathieu Amalric
France / 2017 / 99min / DCP / Color / Drama

067	08.12 Sun	12:30	M6	12
098	08.13 Mon	16:00	M1	12

배우 브리짓은 곧 촬영에 들어갈 영화에서 전설적인 상송 가수 바르바라 역을 맡았다. 브리짓은 바르바라의 캐릭터를 연기하기 위해 성격부터 목소리, 음악, 몸짓, 뜨개질, 대사까지 연습한다. 점점 브리짓 안의 바르바라가 깨어나고 심지어는 브리짓을 정복하기 시작하는데... 한편, 감독 이브는 여러 만남과 촬영, 음악 작업을 하며 일에 열중한다. 이브는 그녀에게서 영감을 받는 듯 보이는데... 이브에게 영감을 주는 건 브리짓일까 바르바라일까?

An actress, Brigitte, is playing Barbara in a film that soon begins shooting. Brigitte works on her character, her voice, the songs and scores, the imitation of her gestures, her knitting, the lines to learn. Things move along. The character grows inside her, invades her, even... Yes, the director, is also working - via encounters, archival footage, the music. He seems inhabited and inspired by her... But by whom? The actress or Barbara?

벅스 BECKS



Director 엘리자베스 로보그 Elizabeth Rohrbach,
다니엘 파웰 Daniel Powell
USA / 2017 / 93min / DCP / Color / Drama

026	08.10 Fri	24:00	M1	18
053	08.11 Sat	21:00	M6	18

싱어송라이터 알리사 로빈스의 실제 삶에서 영감을 받은 영화 <벅스>는 오랫동안 사랑했던 여자친구와 아프게 헤어진 뒤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고향 집으로 돌아간 주인공 벅스를 쫓는다. 그녀는 돈을 벌고자 마를 술집에서 공연을 하고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엄마와의 관계를 회복 하려고 애쓰면서 학창시절 앙숙이었던 친구의 부인과 독특한 우정을 쌓는다. 벅스는 전 애인과, 그들의 이별에 관한 매우 사적인 노래들을 부르면서 그녀의 음악적 목소리를 발견한다.

Inspired by the real life of singer-songwriter Alyssa Robbins, *BECKS* follows a musician who moves back to her childhood home in St. Louis after a crushing breakup with her longtime girlfriend. While performing for tips at a local tavern and struggling to reconnect with her ultra-Catholic mother, she strikes up a unique friendship with the wife of an old nemesis. Becks begins to discover her musical voice as she performs deeply personal songs about her ex and the loss of their relationship.

다름의 하모니 Distinction



Director 구문걸 Jevons Au

Hong Kong / 2018 / 98min / DCP / Color / Drama

044	08.11 Sat	16:00	M1	G	QA
107	08.13 Mon	21:30	M3	G	

편견과 낙인 때문에 일반학교로 이적을 못하고 있는 특수학교 음악교사 츀이, 일류 학교에서 뒤처지며 대학입시 때문에 고민하는 학생 조이, 매일 빈둥거리며 3등급 학교에 다니는 반항 청소년 카호의 이야기이다. 음악공연 지도를 맡게 된 츀이는 업무와 사생활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동시에 꼭 참고 공연을 진행하게 생겼다. 조이는 높은 성적을 위해 밤과 후 음악활동에 자원하고, 카호는 퇴학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느 특수학교의 뮤지컬을 보러 가야 한다.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한 뮤지컬에 참여하게 된 세 사람은 꿈과 목표를 찾는 자아탐구의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

Ms.Tsui is a music teacher in a special education needs school, who is not able to switch to a mainstream school due to stereotyping and labelling; Zoey is an underachiever from a Band 1 school, who is struggling for the public exam; Ka Ho is a rebellious teenager from a band 3 school, who idles away his time. Three individuals take part in a musical they deem worthless for their own purposes, which turns out to be a journey of self-discovery towards their dreams and goals.

침묵이여 안녕 Good-bye Silence



Director 우가나 켄이치 Ugana Kenichi

Japan / 2017 / 85min / DCP / Color / Drama

022	08.10 Fri	21:00	M2	18	
055	08.11 Sat	24:00	M1	18	
069	08.12 Sun	13:00	M3	18	QA

일본에서 모든 종류의 엔터테인먼트를 금지하는 '쾌락법'이 시행된다.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소음'이라 불린다. 나사 못 공장 노동자로 단조로운 삶을 살고 있는 미즈토와 토키오는 어느 날 우연히 근절 대상인 수많은 음악이 보존되어 있는 폐허를 발견하게 된다. '소음의 자식들'이 살아있고 언더그라운드 라이브 쇼가 여전히 진행된다는 것을 안 두 친구는 점점 음악에 빠진다.

'The Pleasure Law' which forbids all of entertainment has been taken into effect in Japan. People who listen to music were called 'Noise'. Mizuto and Tokio are living a monotonous life as screw factory workers. One day, they accidentally find ruins where thousands of music, that should have been eradicated, was preserved. The two dudes become gradually more fascinated by music, after knowing the existence of 'Son of a Noise', an underground live show that is still being done.

이것도 내 인생 It's My Life



Director 하라 케이노스케 Hara Keinosuke

Japan / 2018 / 103min / DCP / Color / Drama

011	08.10 Fri	13:00	M3	G	
078	08.12 Sun	19:00	M3	G	

리듬체조 스타선수로서 장래가 촉망받던 카네시로 미즈호는 연습 중에 척추경색증으로 쓰러져 하반신마비가 된다. 선수 인생이 끝나버린 그녀는 부모님과 트레이너인 Honda Tetsuji의 배려를 받지 못한 채 절망과 고독에 시달리게 된다. 우울한 나날이 계속 되던 중 그녀는 스트리트 뮤지션 카시와바라 준노스케와 몇 년만에 다시 만나게 된다. 그는 함께 노래하자고 부추기지만 그녀는 당황스럽기만 하다. 그러나 미즈호는 기타를 연주하면서 조금씩 음악에 빠져들기 시작한다.

Rhythmic gymnastics star athlete Kaneshiro Mizuho was practicing when she collapsed due to spinal cord infraction and became hemiparalyzed. Her career as an athlete was over, and instead of being considered by her parents or trainer Honda Tetsuji, she fell in despair and solitude. As she was spending her days in depression, she meets street musician Kashiwabara Junnosuke again in many years. He encourages her to sing with him. Mizuho starts to sink into music as she plays the guitar.

피아노의 거장, 주앙 카를로스 마틴스 João, the Maestro



Director 마우로 리마 Mauro Lima

Brazil / 2017 / 116min / DCP / Color / Drama

056	08.11 Sat	10:00	JC	12	
102	08.13 Mon	19:00	M1	12	

주앙은 심각한 병 때문에 은둔해 사는 아이이다. 하지만 어느 날 그의 인생에 피아노가 등장한다. 이 날을 계기로 몇 년 지나지 않아 고집 센 소년이었던 주앙은 전세계적인 음악 기대주가 된다. 국제 예술계에서 인정받기 시작하던 무렵, 주앙은 추구를 하다가 생긴 사소한 사고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된다. 사소한 보였던 사고는 팔 신경에 영향을 줘 그의 커리어를 방해한다. 주앙은 피아노 연주를 멈추지 않지만 한계를 넘은 노력은 오히려 피아노에서 그를 더 멀어지게 만든다.

João was a child with serious health problems, which led to a reclusive childhood. But one day, a piano came into his life. From this emerges an obstinate boy who, in few years, transforms into one of the greatest promises of erudite music in the world. When he starts to gain recognition from the international artistic community, he suffers an apparently trivial accident during a soccer game. This accident, however, affects a nerve in his arm and interrupts his career. João does not give up on playing piano. But the efforts beyond limits force him to retreat even more from the piano.

또 다른 삶 Life without Life



Director 카베흐 모에인파르 Kaveh Moeinfar
Iran / 2017 / 91min / DCP / Color / Drama

082	08.12 Sun	21:30	M1	6
092	08.13 Mon	12:30	M2	6

아르데시르는 폐암으로 6개월 밖에 더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는다. 음악가인 그의 아들 사트야르는 아버지에게 돈을 빌린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간다. 독특한 방식으로 돈을 받아내기 위한 그의 여정을 통해 영화는 욕심, 상실, 관계와 가족 등 삶의 중요한 요소들을 수면에 끌어내고, 우리는 유머를 통해 던져진 묵직한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Ardehsir Suffers from lung cancer and has only six months to live. Ardehsir's son, Satyar is a musician and collects his father's money from debtors in an unusual way. Visiting the debtors one by one, he goes through a journey that unveils one's life, relationship and how music works to them. The film brings up the fragments of life such as greed, loss, love and connection onto the surface and invites us to see them in different way.

라이트 업 Light Up



Director 키릴 플레트노프 Kirill Pletnyov
Russia / 2017 / 98min / DCP / Color / Drama

054	08.11 Sat	21:30	M3	12
106	08.13 Mon	21:30	M1	12

알레티나 로마노바는 여자교도소의 교도관으로 오페라 가수가 부러워할 만한 아름다운 목소리만 빼면 엄격한 교도관의 이미지에 꼭 맞는다. 어릴 때부터 자신의 재능을 부끄러워한 그녀는 혼자 있을 때에만 노래를 부른다. 어느 날, 한 재소자가 알레티나가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리면서 그녀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난다. 영상은 인기를 끌고, 알레티나는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러시아 최고의 노래대회에 초청받는다. 그녀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침내 인생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다.

Alevtina Romanova is a penal officer in a women's prison colony. Her image of a stern officer is betrayed only by her voice - a kind of voice to be envied by opera stars. She has been embarrassed of her gift since she was a child and now sings only when she stays alone, to herself. Once, her secret is revealed - an inmate records a video with her cell phone and uploads it in the internet. The video is a hit, and Alevtina is invited to Moscow to the country's most popular song contest. The woman is eager not to miss her chance, and, finally, to change her life.

칼 슈미트의 귀환 Magical Mystery - or: The Return of Karl Schmid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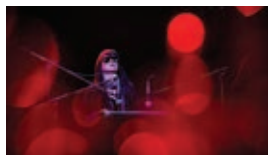
Director 아르네 펠트후센 Arne Feldhusen
Germany / 2017 / 111min / DCP / Color / Drama

039	08.11 Sat	13:00	M1	15
100	08.13 Mon	18:30	M2	15
115	08.14 Tue	14:00	M2	15

1994년 함부르크, 찰리는 1989년 삶이 한 번 망가진 이후 함부르크 알토나의 '마약 없는 집'에서 살고 있다. 그가 안정적인 삶을 살고자 애쓰는 동안 베를린으로 돌아간 그의 친구들은 테크노 음악 덕분에 부유해지고 있다. 독일 전국에 테크노를 선보이려는 친구들은 투어 매니저가 필요한데 그 적인자는 바로 마약을 멀리하는 찰리다. 그는 친구들을 클럽에서 클럽으로, 칠레어 디스코 파티에서 노동절 행사까지 데려줘야 한다. 여행은 그들을 90년대 파티의 절정으로 이끄는 데 고백 폴린 그 에너지는 파괴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완벽한 즐거움을 통해 치유를 할 수도 있다.

Hamburg 1994: Charlie is now living in drug-free-housing in Hamburg Altona after a breakdown back in 1989. While he is trying to live a stable life, his friends back in Berlin are getting rich with techno music. To bring techno to all of Germany they need someone to go on tour with them. Someone who is always sober - Charlie. He is supposed to drive them from club to club, from wheelchair-disco to the Mayday rave. The trip takes them to the party peaks of the 90s, and unleashes an energy that can destroy but also heal through sheer joy.

니코, 1988 Nico, 1988



Director 수산나 니키아렐리 Susanna Nicchiarelli
Italy, Belgium / 2017 / 93min / DCP / Color / Drama

026	08.10 Fri	24:00	M1	18
072	08.12 Sun	16:00	M1	15

1960년대 벨벳 언더그라운드 보컬이자 '워홀 슈퍼스타'로 대표되는 예술의 아이콘으로 화려한 시절을 보냈던 니코. 그러나 1988년, 그녀는 과거의 영광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 엉망진창의 삶 한가운데에서 몸부림치는 니코는 오래 전 소원해진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란다. 니코의 마지막 나날들을 그린 영화.

Approaching 50, singer-songwriter Nico leads a solitary low-key existence in Manchester, far from her 1960s glam days as a Warhol superstar and celebrated vocalist for cult band The Velvet Underground. Performing thanks to her new manager Richard to tour Europe, and struggling with her demons and the consequences of a muddled life, she longs to rebuild a relationship with her son, whose custody she lost long ago.

오 마이 블루 Oh Mammy Blue



Director 안토니오 헨스 Antonio Hens

Spain, Venezuela, Germany / 2018 / 87min / DCP / Color / Drama

034	08.11 Sat	10:30	M1	12
076	08.12 Sun	18:30	M6	12

스페인의 전설적인 락 가수 라우라는 실버타운에 살고 있다. 어느 날, 있는지도 몰랐던 손자 하이메가 찾아와 락 뮤지션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한다. 라우라는 하이메를 도와주기로 하고, 락 밴드 콘테스트에 나갈 수 있도록 곡을 써준다. 하지만 콘테스트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밴드를 결성해야 하고, 라우라는 이미 손을 뗀 지 오래 됐는데...

Laura is a legendary Spanish rock singer who now lives in an elderly people's home. Out of the blue, she receives the visit of an unknown grandson, Jaime, who asks her to teach him how to be a rock musician. She decides to help him and writes a song for him to use in a rock band contest. But in order to participate they would need to make up a band and Laura had pulled out a long time ago.

라디오그램 RADIOGRAM



Director 루지에 하사노바 Rouzie Hassanova

Bulgaria, Poland, Turkey / 2017 / 84min / DCP / Color / Drama

010	08.10 Fri	13:00	M1	12
077	08.12 Sun	19:00	M1	12

1971년 공산당이 집권한 불가리아. 서방세계에서 전파되는 음악은 물론이고 어떤 종교적인 표현도 국가적인 위협이다. 실화에 바탕을 둔 <라디오그램>은 로큰롤에 푹 빠진 아들을 위해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 거의 100킬로미터를 걸어 가서 새 라디오를 사고자 하는 한 아버지를 쫓는다. 정체성, 음악의 힘과 자유에 관한 기본 좋은 드라마이다.

In 1971, Bulgaria under the Communist regime, when any religious expression or music from the West is a national threat. Based on a true story, *RADIOGRAM* follows a father who walks almost 100km to the nearest town, so he can buy a new radio for his rock 'n' roll obsessed son. Feel good drama about identity, the power of music, and freedom.

감자마을 메탈밴드 Ready to Roll - Exterminator



Director 미칼 로갈스키 Michał Rogalski

Poland / 2017 / 117min / DCP / Color / Dra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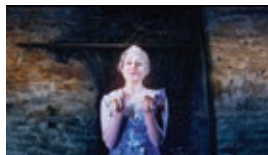
120	08.10 Fri	18:30	M6	15
055	08.11 Sat	24:00	M1	18
091	08.13 Mon	10:30	M3	15

열성적인 다섯 친구들이 어린 시절 큰 꿈을 나눈다. 그것은 바로 폴란드 메탈계의 전설이 되어 많은 관객들 앞에서 연주하는 것이다. '엑스터미네이터(파괴자)'라는 불운한 밴드 이름을 달고 말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어린 시절의 꿈은 꿈일 뿐이고, 살아가는 것은 만만치 않다. 그러던 어느 날 옛 추억이 되돌아오는데 바로 마을 시장이 그 시절 '엑스터미네이터'의 열렬한 팬이었던 것. 그녀는 다시 밴드 활동을 시작한다면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다.

A group of five devoted friends shared a great dream when they were kids - to rock the Polish metal scene and attract crowds to their concerts. All this under the flag of an ominously named band 'Exterminator'. However, as time has shown, youthful ambitions are one thing, and life is another. However, one day, old memories return - the mayor turns out to be a great fan of Exterminator from the day. She promises to support the friends with a grant, as long as they manage to reactivate the band.

SHORTS 1

사랑의 케이크 Love Cake



Director 키카 니콜레라 Kika Nicolela

Belgium, France, Canada / 2017 / 4min / DCP / Color / Experimental

025	08.10 Fri	21:30	M3	15
032	08.11 Sat	10:00	M5	15

<사랑의 케이크>는 캐나다의 안무가 마농 올리니와 극단 '바이바이 프린세스', 그리고 브라질 출신의 예술가 겸 영화 제작자 키카 니콜레라의 다원예술 협업프로젝트 '돌하우스'의 일환으로 제작된 단편이다.

This film is part of 'Dollhouse', a multi-disciplinary collaboration project between the choreographer Manon Olinig(Canada), the theater group 'Bye Bye Princesse'(Canada) and artist/filmmaker Kika Nicolela(Brazil, Belgium).

운명의 바이올린 Destiny's Str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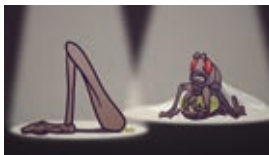
Director 라미아 벤젤룬 Lamia Bengelloun
Morocco / 2017 / 12min / DCP / Color / Drama

025	08.10 Fri	21:30	M3	15
032	08.11 Sat	10:00	M5	15

아딜은 카사블랑카 교외에 사는 7살 꼬마아이다. 웨이터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 아버지는 아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길 바란다. 어느 날, 아버지는 자신이 일을 하는 결혼식에 아딜을 데려간다. 결혼식 반주를 맡은 전통 모로코 밴드를 통해 바이올린을 처음 본 아딜은 악기에 매료된다.

Adil is seven years old and lives in the suburbs of Casablanca. His father is a waiter. He does not like his job and wants his son to aim for a better future. One day, his father takes Adil to a wedding where he is working. There, a traditional Moroccan band is playing. Adil had never seen a violin before and is mesmerized by the instrument.

날파리의 아리아 L'Aria del Moscerino



Director 루카스 폰 베르크 Lukas Von Berg
Germany / 2017 / 5min / DCP / Color / Animation

025	08.10 Fri	21:30	M3	15
032	08.11 Sat	10:00	M5	15

작은 초파리가 때려 잡혔다. 그러나 초파리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죽음에 저항한다.
A tiny fruit fly gets swatted. Against all odds, it defies death in its very own way.

외계인을 춤추게 하다 Make Aliens Dance



Director 세바스티앙 페트레티 Sebastien Petretti
Belgium / 2018 / 26min / DCP / Color / Drama

025	08.10 Fri	21:30	M3	15
032	08.11 Sat	10:00	M5	15

음악 프로듀서 마이크와 사운드 엔지니어 댄, 헤드폰을 귀에서 떼지 않는 자폐를 가진 동생 미피, 어머니 릴리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뛰어난 목소리를 가진 가수 마지가 사라진 것이다. 오랜 시간에 걸친 녹음으로 그녀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엄청나게 많은 테이프에 담겼고, 테이프는 가족의 스튜디오에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다.

Mike, a music producer Dan, a sound engineer Murphy, the autistic brother with his headphones fixed to his ears, and, Lilli, the mother, are going through a rough time in their lives. Mazzy, a singer with a superb voice, has disappeared. Hours of recordings: her magnificent voice was recorded onto countless tapes, which are carefully stored and filed in the family studio.

도박사 The Gambler



Director 글렌 휠란 Glenn Whelan
Ireland / 2017 / 12min / DCP / Color / Drama

025	08.10 Fri	21:30	M3	15
032	08.11 Sat	10:00	M5	15

<도박사>는 프랑스 영화감독 자크 드미의 뮤지컬 계보를 잇는 '송스루 뮤지컬'이다. 사랑에 빠진 포커플레이어 잭은 큰 판돈이 걸린 게임을 하고, 그의 연인이자 범죄 파트너인 젠비에브는 포커 게임이 열리는 술집의 웨이트리스이다. 2016년 아일랜드어 뮤지컬 <봉수아 루나>를 제작한 조쉬 레이첸탈과 돈차 길모어가 이 영화의 음악을 위해 다시 한번 뭉쳤다.

The Gambler is a sung-through musical in the tradition of the musicals by french filmmaker Jacques Demy. The film revolves around Jack, a lovestruck poker player who is trying to win a high stakes poker game while his partner in love and crime, Genieve, is the waitress at the bar where the game takes place. The film reunites the songwriting partnership of Josh Reichenal and Donncha Gilmore who created the Irish language musical *Bonsoir Luna* in 2016.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I Lived for 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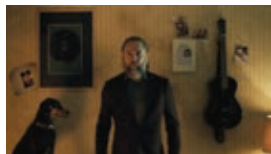
Director 마리노 바치가 Marino Baciga
Italy / 2017 / 11min / DCP / Color / Drama

025	08.10 Fri	21:30	M3	15
032	08.11 Sat	10:00	M5	15

무대를 떠난 지 몇 년 된 유명 오페라 가수가 다시 무대에 서자는 제안을 받는다. 그녀는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과 병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고민한다.

After years far from the scenes, a famous opera singer is invited to go back on stage. She will be divided between the enthusiasm of her passion and the fear of her disease.

시가박스 블루스 Cigarbox Blues



Director 크리스토퍼 카우프만 Christopher Kaufmann
Germany / 2016 / 24min / DCP / Color / Drama

025	08.10 Fri	21:30	M3	15
032	08.11 Sat	10:00	M5	15 Q&A

가수 데렉은 우울증 환자이다. 자살시도를 한 후 정신병원에서 갓 데렉은 그의 광팬이자 골칫거리인 아담을 만난다. 두 대의 기타, 세 개의 코드, 우정의 시작을 그린 영화.

Derek is having the blues and this does not only refer to his stage performance. When the singer wakes up in a psychiatry after a suicide attempt, he meets Adam, his devoted fan and at once his pain in the ass. A story about two guitars, three chords and the beginning of a friendship.

SHORTS 2

더 크게 Alou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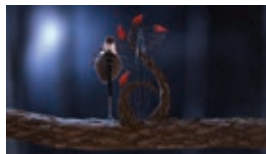
Director 후양 송 Huang Song
USA / 2016 / 20min / DCP / Color / Drama

040	08.11 Sat	13:00	M3	12
무료	08.12 Sun	20:00	JP	12
104	08.13 Mon	21:00	M2	12

엄격한 천주교 교아원에서 자란 내성적인 아이 아덴은 자신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없어서 합창 연습 때 노래를 부르는 척만 한다. 하지만 새로운 음악 선생님 스티븐스가 온 뒤 아덴의 비밀이 드러나고 두 사람은 함께 연습한다. 노래에 대한 자신감이 불을수록, 우정도 쌓인다.

Arden is an introvert kid who was brought up in a strict Catholic orphanage. Insecure about his voice, he pretends to sing during choir practice. With the arrival of Mr. Stevens, the new music teacher, his farce is discovered and the duo starts to work together. As the boy becomes more confident with his singing, a friendship is formed.

스파이더 재즈 Spider Jazz



Director 미크 말러 Mick Mahler
Germany / 2017 / 2min / DCP / Color / Animation

040	08.11 Sat	13:00	M3	12
무료	08.12 Sun	20:00	JP	12
104	08.13 Mon	21:00	M2	12

한 거미가 자신이 만든 악기로 클래식 음악을 열정적으로 연주한다. 어느 날, 파리 한 마리가 자신의 악기에 부딪힌 걸 본 거미는 음악에는 완벽함뿐만 아니라 즉흥성과 협연의 즐거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With great passion, a spider practices classical music on its homespun instrument. But when one day a fly crashes into his instrument, he learns that making music is not only about perfection, but all about improvisation and the joy of playing together.

인터내셔널 The Internationale



Director 알리 자르 가나트노위 Ali Zare Ghanatnowi
Iran / 2017 / 3min / DCP / Color / Animation

040	08.11 Sat	13:00	M3	12
무료	08.12 Sun	20:00	JP	12
104	08.13 Mon	21:00	M2	12

어느 콘서트홀, 한 테러리스트가 합창단에 총구를 겨누고는 총을 쏘기 시작한다. 관중석에서 공포의 비명이 나오는 와중에, 사람들이 한두 명씩 합창단에 참여해 합창을 이어 나간다. 테러리스트는 계속 총을 쏘지만, 비명은 찾아들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합창을 이어 나간다. 결국 테러리스트도 총을 버리고 함께 노래를 부른다.

At the concert hall, a terrorist points his gun towards the choir and starts shooting at the members. As we hear screams of terror from the audience, others join in the choir and keep the chorus alive. The terrorist fires more shots, but less screams are heard and more people join in to keep the choir alive. The terrorist leaves his gun behind and joins the choir.

끝나지 않은 노래 Endless Song



Director 우 치아징 Wu Chia-Jing
Taiwan / 2016 / 23min / DCP / Color / Drama

040	08.11 Sat	13:00	M3	12
무료	08.12 Sun	20:00	JP	12
104	08.13 Mon	21:00	M2	12

밴드에서 기타를 치는 고등학교 사오안은 보컬 이춘과 아주 가까운 관계이다. 이춘은 현실의 압박을 강하게 받고, 둘은 일상에서 불가피한 위기를 맞는다. 이런 감정을 마주하며 사오안은 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른다.

Hsiao-An who is a high school student plays guitar for a band. She also keeps an intimate relationship with the vocalist, Yi-Chun. As Yi-Chun is being under lots of pressure in reality, they also have an inevitable crisis in their ordinary daily lives. Facing those emotions, Hsiao-An could sing out loud.

경계선 Borderline



Director 이리마자리 세이시 Irimajiri Seishi
Denmark / 2017 / 9min / DCP / Color / Animation

040	08.11 Sat	13:00	M3	12
무료	08.12 Sun	20:00	JP	12
104	08.13 Mon	21:00	M2	12

<경계선>은 땅에 경계선을 그리는 소년에 관한 이야기이다. 자신의 허락 없이 경계선이 움직이면 소년은 분노로 가득 찬다. 세이시 감독의 첫 애니메이션 작품으로 그가 감독부터 극본, 애니메이션, 편집, 사운드, 작곡까지 전체 프로젝트를 도맡아 했다.

Borderline tells the story of a boy who creates borders on earth. However these borders start moving without his consent, which fills him with rage. This is Seishi's first ever animation, and all creative work on the project was done by him. Directing, writing, animating, editing, sound and composing.

큐브 Cube



Director 막심 코다로프 Maxim Kodarov
Kazakhstan / 2016 / 21min / DCP / Color / Drama

040	08.11 Sat	13:00	M3	12
무료	08.12 Sun	20:00	JP	12
104	08.13 Mon	21:00	M2	12

평범한 음악학교 청소부로 일하는, 외로운 중년 여성에 관한 이야기. 흐린 날이면 여지없이 젊은 날의 기억들,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후회가 그녀를 찾아온다. 청소부가 꿈은 아니었으니까. 매일 일이 끝나면 그녀는 서둘러 자신만의 비밀장소, 안식처를 찾는다.

The story is about a lonely and not a young woman working as a cleaner in an ordinary music school. Memories of youth, the thoughts of unfulfilled dreams soaked with regrets visit her in the daily routine of gray days; she has not always been a cleaner. Each time after work, she hurries to her own secret place, into her own shelter.

하모니의 노래 3:32



Director 안드레스 파소니 Andrés Passoni

Argentina / 2017 / 7min / DCP / Color / Dra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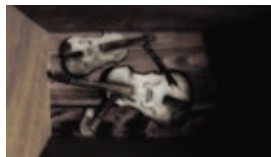
040	08.11 Sat	13:00	M3	12
무료	08.12 Sun	20:00	JP	12
104	08.13 Mon	21:00	M2	12

‘3:32’는 하모니를 유명하게 만들어준 곡으로 하모니는 전성기를 맞았지만, 자신의 재능과 성공에도 불구하고 공허함을 느낀다. 하모니는 세 번째 앨범 [블랙버드] 홍보 인터뷰를 연이어 하고 있다. 마지막 인터뷰의 인터뷰어인 음악평론가는 언론의 관심을 끌 만한 헤드라인을 뽑아 내기 위해 하모니를 불편하게 만든다.

‘3:32’ is the song that made Harmony famous, she is at the peak of her career but in spite of her talent and success she feels empty. Harmony is coming of a string of promotional interviews for her third new album titled [Blackbird] and in the last one she is interviewed by a music journalist that makes her feel uncomfortable in search of an attractive headline for the media.

SHORTS 3

아르모니카 Armonika



Director 가브리엘 베긴 Gabrielle Beghin

French / 2017 / 5min / DCP / Color / Animation

052	08.11 Sat	21:00	M5	15
116	08.14 Tue	14:00	M3	15

전쟁이 한창인 때, 네 명의 검역은 병사가 만신창이가 된 채 탈주한다. 도피 중인 그들을 한 데 모아주는 건 바로 음악. 음악은 그들에게 짧지만 감성적인 휴식을 제공한다.

While the war is in full swing, terrorized, wrecked, four soldiers desert. During their escape, music will bring them together. A brief emotional respite.

플라멩코 Flamenco



Director 라페드 자라 Raafed Jarah

Germany / 2017 / 3min / DCP / Color / Animation

052	08.11 Sat	21:00	M5	15
116	08.14 Tue	14:00	M3	15

열정적인 기타 리듬에 맞춰 한 플라멩코 무용수가 춤을 춘다. <플라멩코>는 단편 애니메이션 뮤직 비디오로 모든 장면으로 손으로 직접 그려낸 애니메이션 작품이다.

A flamenco bailaora dances to the rhythm of the guitar. *Flamenco* is a short animated music video. All the frame of the film is hand drawn animation.

절반쯤 Half Measures



Director 마자브라르 마틸드 Mazabard Mathilde

Belgium / 2016 / 13min / DCP / Color / Drama

052	08.11 Sat	21:00	M5	15
116	08.14 Tue	14:00	M3	15

젊은 첼리스트 클레망은 변호사 앨리스와 연인관계이다. 일과 관련하여 참석한 회의에서 클레망은 사랑스러운 가수를 만나게 되는데...

Clément, a young cellist, is in relationship with Alice, a lawyer. He goes to an informal meeting for his job where he meets a lovely singer...

바이올린의 비밀 The Secret of the Violin



Director 크세니아 이바노바 Ksenia Ivanova
USA / 2016 / 7min / DCP / Color / Drama

052	08.11 Sat	21:00	M5	15
116	08.14 Tue	14:00	M3	15

젊은 여자는 돈이 없어 좌절한다. 바이올리니스트의 꿈을 포기한 그녀는 바이올린을 아주 잘 연주하는 젊은 남자에게 바이올린을 판다.

A young woman despaired for money gives up her aspirations to be a concert violinist and ends up selling it to a young man who plays it very well.

리허설 Le Chat Doré



Director 나탈리아 모레노 Natalia Moreno
Spain / 2017 / 7min / DCP / B&W / Drama

052	08.11 Sat	21:00	M5	15
116	08.14 Tue	14:00	M3	15

작은 오두막에 모인 연주자들은 악랄한 지휘자의 압박 하에 예술을 만들어 내려고 노력한다. 창작의 자유와 예술적 표현을 수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편영화.

Inside an old cabin, a group of musicians try to create art under the pressure of a mean director. Short film created to defend creative freedom and artistic expression.

음악이 없다면 After We Have Left Our Ho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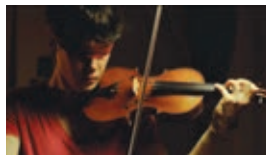
Director 마크 애덤슨 Marc Adamson
UK, Canada / 2017 / 8min / DCP / Color, B&W / Drama

052	08.11 Sat	21:00	M5	15
116	08.14 Tue	14:00	M3	15

음악을 금지한 독재정권 하에 한 남성이 음반을 숨겼다가 적발되어 감옥에 수감된다. 첫값을 치르는 동안 남자는 압수 물품 보관소를 발견하게 되고, 이는 역사의 진로를 바꾸는 일련의 사건으로 이어진다.

Under a dictatorship that has banned music, a man hides a record until he is caught and imprisoned. Whilst paying for his crimes he stumbles across a repository of confiscated items, leading to a series of events that will change the course of history.

블라인드 오디션 Blind Audition



Director 안드레아스 케슬러 Andreas Kessler
Germany / 2017 / 18min / DCP / Color / Drama

052	08.11 Sat	21:00	M5	15
116	08.14 Tue	14:00	M3	15

지난 몇 해 동안 커플로 지내 온 바이올리니스트 아리와 론은 어느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린 독주자 오디션 제안을 받고 바로 경쟁에 돌입한다. 론이 지휘자의 솔깃한 제안을 받게 되면서 커플의 서로에 대한 신뢰는 시험대에 오른다.

Since a few years the violinists Ari and Ron are a couple. As they both get the invitation of an orchestra to audition for the solo part they get into direct competition. Their mutual trust is put on a hard test when Ron gets a tempting offer from the conductor of the orchestra.

액션 뮤지컬 - 하드 웨이 Hard Way - The Action Musical



Director 다니엘 보겔만 Daniel Vogelmann
Germany / 2017 / 34min / DCP / Color / Drama

052	08.11 Sat	21:00	M5	15
116	08.14 Tue	14:00	M3	15

제이크는 디트로이트 근처에서 이루어진 S.W.A.T. 작전에서 절친한 동료 잭을 잃는다. 8개월 뒤, 제이크와 동료들은 잭을 죽인 테러리스트 '더 마더'를 잡으려는 계획을 세운다. 그들은 노래하고 춤을 추며 적들을 향해 나아간다. 그러나 복수를 향한 제이크의 맹목적인 갈증으로 인해 팀원들은 스나이퍼의 손아귀에 놓이게 된다.

Jake loses his best friend Zach in a S.W.A.T. operation near Detroit. Eight months later, Jake and his team are trying to get 'The Mother'- the terrorist responsible for Zach's death. While singing and dancing they fight their way through their enemies. But then Jake's blind thirst for revenge leads them into the deadly hands of a sniper.

DUTCHStyle™
Premium Dutch Coffee Brand



“더치스타일 커피 한잔으로
나의 품격이 달라진다”

배우 서준영

www.dutchstyle.co.kr

뮤직 인 사이트 MUSIC IN SIGHT

'뮤직 인 사이트'는 음악을 통해 한 사람의 음악가이자 인간, 더 나아가 보편적인 삶과 문화를 보여주는 다양한 음악 다큐멘터리를 만날 수 있는 섹션이다. 한국의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공연한 제12회 국제음악페스티벌 쇼팽과 그의 유럽 결선 과정을 담은 <쇼팽 콩쿠르의 모든 것>, 비극적인 비행기 사고로 여러 멤버를 잃었던 전설적인 밴드 레너드 스킨러드의 이야기를 담은 <만약 내가 떠난다면 - 레너드 스킨러드 이야기>, 모로코를 대표하는 가수였던 친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다룬 <할아버지의 노래>, 그 밖에도 이차크 펄만, 므스티슬라브 로스트로포비치, 마리아 칼라스 등 뛰어난 클래식 연주자들과 알렉산드르 데스플라, 장 클로드 프티, 마크 아이삼 등 영화음악가들의 삶과 예술을 담아낸 흥미로운 음악 다큐멘터리들이 상영될 예정이다.

This session presents music documentary films that closely portray the lives of famed musicians and situate them in their respective cultures. The session introduces interesting music documentaries: This year, we have on our lineup *Festival*, a film about the finals of the 12th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Chopin and His Europe where the Korean pianist Cho Seong-jin performed; *If I Leave Here Tomorrow: A Film about Lynyrd Skynyrd*, the story of the legendary band Lynyrd Skynyrd which lost its members in a tragic plane crash; *The Man behind the Microphone*, a film profiling a grandfather who once was a singer that represented Morocco; and other fascinating music documentaries that capture the lives and art of classical music artists such as Itzhak Perlman, Mstislav Rostropovich and Maria Callas and film music composers including Alexandre Desplat, Jean-Claude Petit and Mark Isham.

쇼팽 콩쿠르의 모든 것 Festival



Director 안나 가브리타 Anna Gawlita,
토마스 볼스키 Tomasz Wolski

Poland / 2017 / 84min / DCP / Color / Documentary

048 08.11 Sat 18:30 M6

088 08.13 Mon 10:00 M2

제12회 국제음악페스티벌 쇼팽과 그의 유럽에서 연주를 준비하는 연주자들의 모습을 들여다본다. 관객은 연주자들이 예술적 완벽을 추구하는 연습과정의 일부가 되기도 하며 그들이 연주하는 모든 음악 소절을 즐기게 된다. 그들의 연주, 논의, 무대에 오를 준비 등은 피아니스트들의 독특한 초상을 구성한다. 모두가 완벽한 연주를 추구하지만, 때로는 콘서트 이후 아르투르 루빈슈타인이 말하는 일명 '부분적 성공'을 거뒀다고 느끼기도 한다.

At the 12th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Chopin and His Europe we look at artists during their preparations for the performances. We become part of the rehearsal where musicians approach artistic perfection, enjoying each and every musical phrase they play. Their performances, the discussions, and the preparations for the stage make up a unique portrait of the pianist's personalities. Everyone strives for the perfect performance of the pieces, but sometimes, after the concert, they feel something that Artur Rubinstein called - demi-succès.

만약 내가 떠난다면 - 레너드 스킨러드 이야기

If I Leave Here Tomorrow: A Film about Lynyrd Skynyrd



Director 스테판 키작 Stephen Kijak

USA / 2018 / 95min / DCP / Color / Documentary

004 08.10 Fri 10:00 M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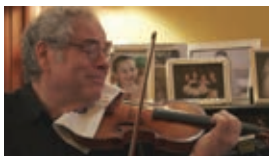
043 08.11 Sat 15:30 M6

084 08.12 Sun 10:00 JC

보기 드문 인터뷰와 처음 공개되는 자료들을 담은 영화 <만약 내가 떠난다면 - 레너드 스킨러드 이야기>를 보는 관객들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록밴드의 역사와 신화, 전설을 향한 여행을 떠나게 된다. 미국 최남부 플로리다 잭슨빌의 청년들로 구성된 레너드 스킨러드는 하드록과 부기우기 스타일의 음악, 취한 듯 위험해 보이는 몸짓, 논란이 많았던 남부 연합기 사용으로 한 시대를 상징했다. 또한 이 영화는 안타깝게 요절했지만, 자신이 남긴 유산을 통해 여전히 살아있는 밴드 리더 로니 반 젤트의 삶을 그리고 있다.

Featuring rare interviews and never-before-seen archive, *If I Leave Here Tomorrow: A Film about Lynyrd Skynyrd* takes viewers on a trip through the history, myth and legend of the greatest American rock band ever! Rising from the swamps of the Deep South these good ol' boys from Jacksonville, FL came to define an era with their hard rocking boogie-woogie sound, their drunken and dangerous antics, and their controversial use of the rebel flag. The film also serves as a portrait of band leader Ronnie Van Zant whose life was cut tragically short, but whose legacy endures to this day.

이차크의 행복한 바이올린 Itzhak



Director 앨리슨 체르닉 Alison Chernick
USA / 2017 / 83min / DCP / Color, B&W / Documentary

035	08.11 Sat	10:30	M3	G
086	08.12 Sun	17:00	JC	G

슈베르트부터 스트라우스까지, 바흐부터 빌리 조엘까지, 이차크 펄만의 탁월한 바이올린 연주는 인간 경험의 신연을 울린다. 이 황홀한 다큐멘터리는 소아마비를 극복한 유대인 이민자 출신 바이올린 거장이 분투하는 모습을 다루며, 예술이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인 이유를 떠올리게 한다. 경지에 이른 펄만의 바이올린 연주는 그가 자란 텔아비브의 작은 동네에서부터 세계 유수의 무대까지 그를 이끈다. 음악과 인생에 대한 펄만의 관점도 들어본다.

From Schubert to Strauss, from Bach to Billy Joel, Itzhak Perlman's transcendent violin playing evokes the depth of the human experience. This enchanting documentary details the virtuoso's own struggles as a polio survivor and Jewish émigré, and reminds us why art is vital to life. His mastery of the instrument takes him from his small neighborhood in Tel Aviv to the world's most prominent stages - we hear his perspective on music and life.

할아버지의 노래 The Man behind the Microphone



Director 클레르 벨하신 Claire Belhassine
UK, Tunisia, Qatar / 2017 / 98min / DCP / Color, B&W / Documentary

026	08.10 Fri	24:00	M1	1B
027	08.10 Fri	10:00	JC	12
071	08.12 Sun	15:30	M6	12

헤디 주이니는 튀니지의 가장 유명한 음악 스타로, '튀니지의 프랭크 시나트라'로 알려져 있다. 그의 곡들은 튀니지 탈 식민주의의 사회적, 정치적 격변의 중심에 서 있으며, 아랍의 봄 이후 계속되는 정체성의 탐색을 다뤄 혁명과와 보수층 모두에 여전히 영감을 주고 있다. 하지만 왜 가족에게는 유명세를 숨겼고 그를 추앙하던 국가로부터 어떤 어두운 비밀을 감췄던 것일까? 이 영화는 튀니지 음악의 대부에 대한 깊이 있는 초상화이다. 국가의 아버지였으나, 가족의 아버지는 아니었던 그의 이야기.

Hedi Jouini is the most popular musical star in Tunisian history, known as the 'Frank Sinatra of Tunisia'. His songs continue to inspire revolutionaries and conservatives alike, striking at the heart of the post-colonial social and political upheaval of Tunisia and its continuing search for identity in the wake of the Arab Spring. But why did he keep his fame hidden from his family? What dark secrets did he keep from the nation that worshipped him? The film builds a profound portrait of the godfather of Tunisian music - father to a nation yet not to his family.

마리아 칼라스: 세기의 디바 Maria by Callas



Director 톰 볼프 Tom Volf
France / 2017 / 113min / DCP / Color, B&W / Documentary

051	08.11 Sat	21:00	M2	G
060	08.12 Sun	10:00	M2	G

영화는 마리아 칼라스의 사망 3년 전인 1974년에 이루어진 인터뷰로 시작한다. 어린 마리아에서 말년의 '라 칼라스'가 되기까지, 그녀가 어떻게 변신했는지 다루는 미공개 편지와 회귀한 인터뷰, 출판되지 않은 회고록의 일부 문장으로 칼라스의 이야기를 엮어 나간다. 칼라스의 말은 칼라스 자신이 바라본 그녀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주며, 그녀의 성공 그 이전의 모습과 비극적인 운명의 비밀을 엿보게 해준다.

The film begins in 1974 with unreleased interviews made three years before her death. Her unpublished correspondence, covering her transformation from the young Maria to the 'La Callas' of her final years, serves as a common thread for the story, along with rare interviews, some of which have been forgotten, and passages from her unpublished memoirs. Callas' words thus offer an account of her life as seen from inside, providing a glimpse behind the scenes of her rise and the secrets of her tragic destiny.

첼로의 거장 로스트로포비치

MSTISLAV ROSTROPOVICH, the Indomitable Bow



Director 브뤼노 몽생종 Bruno Monsiegeon
France / 2017 / 79min / DCP / Color, B&W / Documentary

062	08.12 Sun	10:00	M6	G
114	08.14 Tue	14:00	M1	G

1950년대에 이미 세계적인 인정을 받은 로스트로포비치는 1972년 자국을 떠나야만 했다. 그가 소련에서 추방된 솔제니친을 옹호했다는 이유였다. 소련당국으로부터 시민권을 박탈당한 로스트로포비치는 파리와 워싱턴에 자리를 잡았다. 이 극적인 이야기를 담은 이 작품은 희귀한 자료뿐만 아니라 그의 딸 올가와 엘레나 로스트로포비치, 그리고 친구인 나탈리아와 이그나트 솔제니친, 게나디 로제스텐스키 등의 증언을 들려준다.

Rostropovich, who had already achieved international recognition in the 1950s, was forced to flee his country in 1972. He defended Solzhenitsyn who was expelled from the USSR. Deprived from his citizenship by the Soviet authorities, Rostropovich settled in Paris and Washington. To tell this extraordinary story, this film gathers rare archives and new testimonies from his daughters, Olga and Elena Rostropovich, and friends, Natalia and Ignat Solzhenitsyn and Gennadi Rozhdestvensky.

파차만카- 자유를 노래함 PACHAMANKA - SINGING FOR FREEDOM



Director 마르쿠스 토트 Markus Toth

Austria / 2017 / 67min / DCP / Color / Documentary

005	08.10 Fri	10:30	M1	G
046	08.11 Sat	18:30	M2	G
121	08.12 Sun	21:00	M6	G

표면적으로 봤을 때, <파차만카- 자유를 노래함>은 한 밴드가 새 앨범을 녹음하고, 밴드의 역사 및 각 구성원의 개인 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음악 다큐멘터리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유에 대한 서로 다른 개념부터 시작하여, 뮤지션으로서 생존하는 방법, 그리고 40년째 유지되어온 그룹 내의 취약한 다이내믹 등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많다.

On the surface, *PACHAMANKA - SINGING FOR FREEDOM* is a music documentary about a band recording their new CD, their history and personal stories of the different band members. But if you watch closely there are a lot more to discover here, starting with different concepts of freedom, how to survive as a musician and the fragile dynamics within a group that has existed for almost 40 years now.

스웨덴의 걸크러쉬, 실바나 Silvana



Director 미카 구스타프손 Mika Gustafson,

올리비아 카스테브링 Olivia Kastebring,
크리스티나 치오바넬리스 Christina Tsiobanelis

Sweden / 2017 / 94min / DCP / Color / Documentary

038	08.11 Sat	12:30	M6	15
055	08.11 Sat	24:00	M1	15
079	08.12 Sun	21:00	M2	15

언더그라운드 래퍼에서 하나의 아이콘으로 성장한 스웨덴의 실바나. 이 작품은 그녀가 여러 주요한 상을 수상하고, 스웨덴의 팝 아티스트 베아트리스 엘리와 전설적인 연인관계를 맺는 모습을 그린다. 그러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한지 1년 만에 모든 것이 멈춰버렸다. 그녀는 압박에 짓눌리고, '강한 여성'이라는 딱지가 암시하는 바에 지쳐버렸다. '슈퍼 히어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모두 사람일 뿐'이기에 실바나는 세상에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로 결심한다.

This film follows Swedish rapper Silvana from underground artist to icon, as she wins several major awards and forms an almost mythical relationship with Swedish pop artist, Beatrice Eli. However, after just one year in the limelight, it all came to a sudden halt. Silvana crashes under the pressure, fed-up with the implications of being labeled a 'strong female'. She decides to start showing new sides of herself 'because there are no super-heroes, just human beings.'

주자나 루지치코바와 첼발로 Zuzana: Music is Life



Director 해리엇 고든 게젤 Harriet Gordon Getzels,
페터 게젤 Peter Getzels

USA, Czech Republic / 2017 / 89min /
DCP / Color, B&W / Documentary

064	08.12 Sun	10:30	M3	G
110	08.14 Tue	11:00	M1	G

체코의 하프시코드 연주자 주자나 루지치코바의 어둡고도 성공적인 이야기는 예술가 개인의 경험을 뛰어넘어, 예술이 격변의 20세기를 보낸 체코에게 구원자적 힘을 가졌음을 깨닫게 한다. 주자나는 바흐가 하프시코드를 위해 작곡한 작품 전체를 연주, 녹음한 최초, 그리고 유일한 연주자였다. 워너 뮤직은 2016년 10월, 주자나 루지치코바의 음악이 담긴 20장의 CD 박스 세트를 출시하기도 했다.

The dark and triumphant story of eminent Czech harpsichordist Zuzana Ruzickova transcends the personal, in a deeply affecting look at the redemptive power of art throughout the Czech Republic's turbulent 20th century. Zuzana is the first and only person to record the entire keyboard works of Bach, which he composed only for harpsichord. Warner Music released a 20-CD box set of her opus in October 2016.

Double Screening 1

음악을 담은 사진가

The Accidental Photographer - Henry Diltz's 50 Years in Rock & Roll



Director 야놀로프 프릿제 Janolof Fritzte

Sweden / 2017 / 61min / DCP / Color / Documentary

024	08.10 Fri	21:00	M6	G
111	08.14 Tue	11:00	M2	G

이 작품을 통해 관객은 여러 유명 스타를 만나게 되고 그들의 친구인 헨리 딜츠와 그의 관찰자적 사진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딜츠는 흥미진진한 그의 라이프 스토리를 들려주면서 유명한 사진과 앨범 자켓 사진을 찍었던 방법 같은 순간으로 관객을 데려간다.

In this documentary, we will meet many of the famous stars and hear them talking about their friend Henry Diltz and his 'fly-on-the-wall' photography style. Diltz tells his fascinating life story and takes us back to those magical moments where these famous photos and album covers were taken.

영화음악의 거장들 -마크 아이샴 IN THE TRACKS OF MARK ISHAM



Director 레미 부데 Rémy Boudet

France / 2017 / 53min / DCP / Color / Document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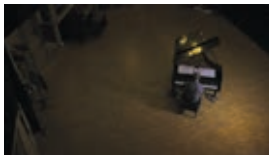
024	08.10 Fri	21:00	M6	G
111	08.14 Tue	11:00	M2	G

세계적인 작곡가 마크 아이샴은 170편 이상의 영화 음악을 작곡했고, 유명한 트럼펫 연주자로서 브루스 스프링스틴, 롤링 스톤즈, 칩 코리아, 조니 미첼, 지기 말리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앨범 작업도 함께 했다. 그는 로버트 레드포드, 조디 포스터, 폴 헤거스 등의 영화도 여러 차례 작업했다. 마크 아이샴의 개인 스튜디오 및 할리우드의 대형 스튜디오에서 촬영된 이 영화를 통해 우리는 할리우드의 영화음악이 창조되는 순간을 만끽할 수 있다.

A world-renowned music composer, Mark Isham has composed music for more than 170 films. As a renowned trumpet player, he played in many albums for various artists like Bruce Springsteen, The Rolling Stones, Chick Corea, Joni Mitchell, Ziggy Marley. He has worked many times on the films of Robert Redford, Jodie Foster, Paul Haggis... This film, shot in the privacy of its studio and the major Hollywood studios, immerses us in the genesis of the creation of film music in Hollywood.

Double Screening 2

영화음악의 거장들 -장 클로드 피티 IN THE TRACKS OF JEAN-CLAUDE PETIT



Director 파스칼 퀴노 Pascale Cuenot

France / 2017 / 52min / DCP / Color / Documentary

033	08.11 Sat	10:00	M6	G
063	08.12 Sun	10:30	M1	G

장 클로드 피티는 10살 때 파리 음악원에서 화음, 푸가, 대위법 부문 1등상을 받고 훗날 텍스터 고든, 조니 그리핀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한 재즈 피아니스트이다. 1966년에는 클로드 프랑소아, 에디 미첼 등 프랑스 대중가수들의 곡을 편곡하기 시작했다. 1982년에 이르러 그는 자신의 다양한 음악을 영화계에 접목하기로 결심한다. 열정적인 예술가로서 음악에 대한 열정, 자신의 경험과 비전을 나누며 장 클로드 피티는 그가 걸어온 굉장한 음악의 여정에 대해 이야기한다.

Jean-Claude Petit gets the First Prize for harmony, fugue and counterpoint at the National Conservatory of Music in Paris at the age of ten, before accompanying on piano jazz musicians such as Dexter Gordon and Johnny Griffin. In 1966, he became an arranger for many french pop artists such as Claude François, Eddy Mitchell. It is in 1982 that he decided to begin to serve cinema with the diversity of his music. Through his passion for music, his experience and his vision as a committed artist, Jean-Claude Petit talks about his amazing musical journey.

영화음악의 거장들 -알렉상드르 데스플라 IN THE TRACKS OF ALEXANDRE DESPLAT



Director 파스칼 퀴노 Pascale Cuenot

France / 2018 / 62min / DCP / Color / Document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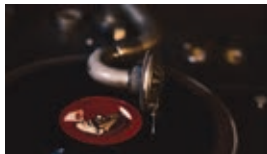
033	08.11 Sat	10:00	M6	G
063	08.12 Sun	10:30	M1	G

알렉상드르 데스플라는 음악과 영화라는 두 가지 열정을 한데 모으기 위해 영화 산업에서 작곡을 선택했다. 데스플라는 20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70편 이상의 장편영화의 음악을 작곡했다.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영화음악 창작활동 외에도 명성이 끊임없이 높아지는 관대한 작곡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Alexandre Desplat chose to write for the movie industry so he could bring together his two passions: music and cinema. Within a little more than 20 years, he composed the music of more than 70 feature films. Beyond his creations for the cinema, we will discover throughout this documentary, a generous composer, whose renown does not stop to grow.

SHORTS 1

레오카디아의 꿈 Leocadia's Dream



Director 크르지스토프 노비키 Krzysztof Nowicki

Poland / 2017 / 19min / DCP / Color / Documentary

008	08.10 Fri	12:30	M5	G
080	08.12 Sun	21:00	M5	G

주인공 레오카디아는 바르셀로나 람블라스 거리에서 작은 음반가게를 수십 년 간 운영해오고 있다. 클래식 LP를 파는 그녀의 가게는 지나간 시간의 상징이기도 하다. 감독은 문을 닫아야 했기에 힘겨웠던 음반가게의 마지막 수개월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레오카디아는 이제 과거를 돌아보아야 한다.

Leocadia, the main character, has been running a small family music shop on Las Ramblas in Barcelona for many decades. Her shop sells classical music albums on vinyl, so it is a symbol of time which has passed. The camera observes the last, very hard, months of her work because her shop is to be closed down. She needs to look back to the past.

가정 오페라 Hetna - A Modern Opera Sing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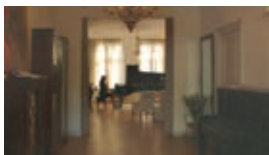
Director 니콜라이 아프 로젠보르 Nicolai af Rosenberg
Denmark / 2018 / 8min / DCP / Color / Documentary

008	08.10 Fri	12:30	M5	G
080	08.12 Sun	21:00	M5	G

덴마크 오페라 가수 헤트나 레지 브루를 따라가는 영화. 그녀가 만들고 소유한 오페라단 '가정 오페라'는 전문 오페라 앙상블을 개인의 집으로 데려온다. 영화는 헤트나가 코펜하겐에서 콘서트와 '가정 오페라' 공연을 준비하는 모습을 쫓아간다.

The film follows the Danish opera singer Hetna Regitze Bruun. She is the inventor and owner of the company 'Home Opera' where she brings a professional opera ensemble to private homes. The film follows Hetna as she prepares for a concert and 'Home Opera' performance in Copenhagen.

모차르트 음악의 비밀 Keys to Mozart: Elegance



Director 이보 반 아르트 Ivo Van Aart
The Netherlands / 2016 / 9min / DCP / Color / Documentary

008	08.10 Fri	12:30	M5	G
080	08.12 Sun	21:00	M5	G

모차르트의 음악은 모두가 익히 알고 있다. 하지만 더 자세히 들어보면 어떨까? 피아니스트 다리아 반 덴 버르켄과 이보 반 아르트 감독이 모차르트 음악의 품격을 보여준다.

Everyone is familiar with Mozarts' music. But what happens when we listen more closely? Pianist Daria van den Bercken and director Ivo van Aart show you the elegance in Mozarts' compositions.

월드 오케스트라 24/04 World Orchestra



Director 세그 키라코시안 Seg Kirakossian
Armenia / 2017 / 18min / DCP / Color / Documentary

008	08.10 Fri	12:30	M5	G
080	08.12 Sun	21:00	M5	G

'월드 오케스트라'는 이스라엘 필하모닉, 러시아 국립오케스트라 등 47개국 123명의 연주자가 모여 결성된 오케스트라이다. 아르메니아에서 개최된 이들의 연주회는 100년 전 150만 명의 아르메니아인이 목숨을 잃은 '아르메니아 학살'을 비롯한 역사적 범죄를 현대적으로 해석했다.

The 24/04 World Orchestra had 123 musicians from 47 countries, particularly from Israel Philharmonic Orchestra, Russian National Orchestra etc. The story of one concert takes place in Armenia and shows nowadays reflections of the historical crimes, particularly the Armenian Genocide, during which 1.5 Million Armenians were killed 100 years ago.

DJ 소녀 켄디스 Kendis



Director 비비 파드라라 Bibi Fadlalla
The Netherlands / 2017 / 15min / DCP / Color / Documentary

008	08.10 Fri	12:30	M5	G
080	08.12 Sun	21:00	M5	G

라바나는 9살 때부터 디제잉을 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 주요 축제에서 DJ로 공연하는 켄디스는 언제나 라인업의 막내다. 11살 때 자전거를 타다가 버스와 교통사고를 당한 그녀는 팔, 무릎, 허리, 어깨 통증에 끊임 없이 시달리지만, 포기하는 생각도 않는다.

Lavanya has been deejaying since she was nine. As DJ Kendis she plays major festivals in the Netherlands and Belgium, always the youngest in the line-up. When she was 11, she was knocked off her bike by a bus, and she now suffers from constant pain in her arm, knee, back, shoulders and neck. But she doesn't think of giving up.

나탈리아, 스페인 최초의 여성 첼리스트 Natalia



Director 아나 마리아 페리 Ana María Ferri

Spain / 2015 / 19min / DCP / Color, B&W / Documentary

008	08.10 Fri	12:30	M5	G
080	08.12 Sun	21:00	M5	G

나탈리아 프리콜라(1912-2002)는 음악에 삶을 바쳤다. 발렌시아 오케스트라 최초의 여성 연주자였던 그녀는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음악을 선택하면서 당대의 모든 규칙을 깼다. 자신의 운명을 선택할 권리를 믿는 모든 여성에게 바치는 영화.

Natalia Frígola(1912-2002) devoted her life to music. She became the first woman ever to play with the Orchestra of Valencia. Natalia broke every rule of her time. She decided against a family of her own and chose music as her lifestyle instead. This film is a tribute to all women that believe in the right to chose their own destiny.

그랜드 피아노 The Grand Piano



Director 아나벨라 로케 Anabela Roque

Brazil / 2017 / 10min / DCP / Color / Documentary

008	08.10 Fri	12:30	M5	G
080	08.12 Sun	21:00	M5	G

마우리시우는 리우데자네이루 교외에 사는 아마추어 뮤지션이다. 그는 피아노를 연주하고 싶을 때마다 도시 주변부부터 시내까지, 연주할 피아노를 찾아 여정을 떠난다. 그가 연주해 주길 기다리는, 누구나 칠 수 있게 조율된 피아노를 볼 때마다 마우리시우는 눈은 반짝반짝 빛이 난다.

Maurício is an amateur, self-taught musician. He lives in suburb of Rio de Janeiro. Each time he wants to play the piano, he embarks on a journey from the periphery to the city center, mapping pianos to play. His eyes glow every time he discovers a piano open to the public, in tune, ready for him to sit and play.

SHORTS 2

아다마 Adama



Director 발레리 포토니에 Valérie Potonniée

France / 2017 / 8min / DCP / color / Documentary

050	08.11 Sat	19:00	M3	G
105	08.13 Mon	21:00	M5	G

파리 구트 도르에 살고 있는 21살의 용접공 아다마 사코는 트럼펫이라는 하나의 큰 열정을 갖고 있다. 아다마의 초상이라 할 수 있는 작품으로 그가 어떻게 음악에 빠지게 되었는지 말해준다. 성공은 오랜 길을 걸어야 오는 것이다.

Adama Sacko, 21, welder, lives in Parisian district La Goutte d'Or and has one great passion: the trumpet. This movie is his portrait at a given moment. He tells us about how he met music... Success comes a long way.

무지개를 노래함 Sing a Rainbow



Director 루지우스 베스페 Luzius Wespe,

루카스 구트 Lukas Gut

Switzerland / 2017 / 18min / DCP / Color / Documentary

050	08.11 Sat	19:00	M3	G
105	08.13 Mon	21:00	M5	G

위엔위엔이 매일 올리는 아침식사 사진을 팔로워 3만 명이 본다. 하지만 그는 2인용 밥상을 차리고 싶어한다. 하베이는 어두운 구석에 앉아 세상에 대해 고민하지만 자기 자신을 탐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레인보우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른다. 대도시 상하이의 청년들이 모여 자신의 목소리를 찾는 합창단 이야기.

30,000 followers are watching the daily photos Yuenyuen posts of her breakfast. But actually she wants to make breakfast for two. Ha Bei sits in a dark corner and thinks about the world. But he would rather explore it himself. Both are singing once a week at Rainbow Choir, a choir where young people of the megacity Shanghai find their personal voice.

발다, 90살의 재즈 Valda



Director 사이먼 실레스 Simon Shielles

Australia / 2017 / 6min / DCP / Color / Documentary

050	08.11 Sat	19:00	M3	G
105	08.13 Mon	21:00	M5	G

90세가 된 발다 마샬은 여전히 트럼펫과 색소폰을 연주하며 재즈 가수로 활동한다. 이 영화에서 발다는 음악 안과 밖 자신의 삶에 대해, 그리고 시드니에서 연주하는 클럽과 펍 안과 밖 삶에 대해 묘사한다. 60년 넘게 연주해온 음악에 대한 그녀의 열정을 포착하는 영화.

Valda Marshall has just turned 90 years old, and is still playing trumpet, saxophone & singing jazz. In this film Valda describes her life in & out of music, and in & out of the clubs and pubs she plays in in Sydney. The film was intended to capture Valda's passion for the music she has been playing for over 60 years.

어느 피아니스트의 14시 14:00



Director 아시자와 가즈야 Ashizawa Kazuya

Japan / 2017 / 2min / DCP / Color / Documentary

050	08.11 Sat	19:00	M3	G
105	08.13 Mon	21:00	M5	G

두 번의 국제대회 우승경력이 있는 피아니스트가 공연에 오르기 직전 부담감에 떨고 있다. 긴장과 불안이 피아니스트를 무겁게 짓누른다. 그는 불현듯 무대로 향한다. 연주를 무사히 끝낼 수 있을까?

Just before the performance, one pianist with experience of winning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twice is trembling with the sleeves of the stage. Tension and anxiety are attacking him without mercy. He suddenly headed for the stage. Will his recital be successful?

코조 Kojo



Director 마이클 페퀴에르 Michael Fequiere

USA / 2016 / 15min / DCP / Color / Documentary

050	08.11 Sat	19:00	M3	G
105	08.13 Mon	21:00	M5	G

<코조>는 12살의 영재 재즈 드러머 코조 오두 로니에 대한 단편 다큐멘터리이다. 단독 인터뷰에서 코조는 재즈, 홈스쿨링, 여행 그리고 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그의 아버지 앙투안 로니에 대해 얘기한다.

Kojo is a short documentary on gifted twelve years old jazz drummer Kojo Odu Roney. In this exclusive interview Kojo offers his thoughts on Jazz, being homeschooled, traveling and his biggest influence, his father Antoine Roney.

아날로그를 위하여 Flipside



Director 로만 나베스킨 Roman Naveskin,
스테판 폴리바노프 Stepan Polivanov

Russia / 2016 / 45min / DCP / Color / Documentary

050	08.11 Sat	19:00	M3	G
105	08.13 Mon	21:00	M5	G

<아날로그를 위하여>는 러시아의 축음기용 왁스 실린더 세계를 조명한다. 구소련 시절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전설과도 같은 녹음 수단이었으나 개혁기간 동안 부당하게 잊혀졌다가 다시금 잿더미에서 부활하고 있는 왁스 실린더의 이야기가 드러난다. 음악 팬을 위한 특별한 영화, 20세기 음악을 만나는 여행.

Flipside is a film about the world of wax records in Russia. The film unveils the story of the legendary medium for records, very popular in the USSR, undeservedly forgotten in the years of the perestroika and raised from the ashes nowadays. A unique film for music fans, a trip through the world of music in the 20th century.

한국 음악영화의 오늘

KOREAN MUSIC FILM NOW

케이팝이 국제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지만 그것이 한국 음악의 전부 아니다. 올해 만들어진 많은 한국 음악영화들은 여전히 대중들과 만나기를 꿈꾸며 고군분투하는 언더그라운드 뮤지션들의 존재를 상기시킨다.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졌지만 여전히 오토바이 배달을 하는 래퍼 원썬의 이야기 <원썬>, 라이브클럽의 오디션을 통해 뮤지션들의 다양한 고충을 유쾌하게 그린 <라이브하드> 등이 그 예다. 음악에 얽힌 기억과 노스탤지어도 부쩍 눈에 띄는 주제 중 하나다. <로큰롤할배>, <Trip of Blues>와 같은 작품을 통해 윤수일, 신촌블루스의 반가운 얼굴을 만날 수 있다. 상영과 공연을 동시에 진행하는 <울림>과 <보이지 않는 도시>의 라이브 공연도 JIMFF에서만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 외에도 단편 프로그램에는 사회의 약자와 희생자를 위로하는 작품들(<Big Hug>, <엄마 나예요, 아들>, <봄날>), 음악과 소리에 대한 심도 있는 탐구를 담은 짧지만 강렬한 작품들(<달세뇨>, <탄>)이 포진되어 있다.

Although K-pop is sweeping the world, it's not the whole Korean music scene. Many Korean music films this year remind us of the struggling lives of underground musicians who still dream of meeting the bigger audience. *Onesun*, the documentary on the rapper Onesun, who still works as a delivery man after becoming popular through an audition program and *LIVE HARD* that shows various hardships musicians face through an audition scene at a live club, are among them. Memory and nostalgia related to music is another theme that's dealt with in more and more films. You might have a nice surprise to meet the old musicians from *Rock 'n' Roll Grandpa* and *Trip of Blues*. The screening & live music performance of *Résonances* and *Invisible Cities* will provide a unique experience you can meet only in JIMFF. Among the short programs are the ones that try to comfort the social victims (*Big Hug*, *The First and Last Minute of My Life, A Spring Day*) and exploration on music and sound (*Dalsegno, Mime in Mine*).

Fiction & Other Realities Fiction & Other Realities



Director 빅 포니 Bobby Choy,
스티브 리 Steve Lee

Korea, USA / 2018 / 83min / DCP / Color / Drama

무료	08.10 Fri	20:00	JP	G
057	08.11 Sat	13:30	JC	G
103	08.13 Mon	19:00	M3	G

뉴욕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비비 최(빅 포니)는 어린 시절 친구인 빌리의 밴드와 월드 투어를 함께 하게 된다. 비비는 밴드의 로드매니저를 그만두고 모두가 자신과 비슷하게 생긴 한국이라는 나라에 남기로 결정한다. 그는 한국에서 만난 버스커 이나와 친구가 되고, 서로에게 의지하게 된다. 모든 일이 잘 풀릴 것만 같았지만, 이나 역시 자신만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다. 연출과 주연을 맡은 빅 포니의 감미로운 노래가 관람 포인트.

Bobby Choy (Big Phony) is a singer-songwriter from New York City. While on a world tour with his childhood friend Billy's band, Bobby ditchs his roadie duties to explore a land where everyone looks like him, Korea. He befriends I-na, a Korean busker who is facing her own set of personal struggles. They seem to find success as they lean on each other.

대관람차 The Goose Goes South



Director 백재호 Baek Jae-ho,
이희섭 Lee Hee-seop

Korea / 2018 / 110min / DCP / Color / Drama

028	08.10 Fri	13:30	JC	12
무료	08.11 Sat	20:00	JP	12

선박사고로 실종된 상사 대정 대신 오사카에 출장 온 선박회사 대리 우주는 출장 마지막 날, 대정과 닮은 사람을 쫓아 '다이쇼(대정)'까지 온다. 한참을 쫓았지만 결국 대정을 놓친 우주는 기타소리에 이끌려 '피어34'라는 바에 들어간다. 어딘지 모르게 대정을 닮은 피어34의 주인 스노우의 노래를 들으며, 대정을 추억하던 우주는 그대로 바에서 잠이 들고, 다음날 귀국 비행기를 놓치게 된다. 총동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우주는 피어34에서 머물며 휴가 아닌 휴가를 갖게 된다.

When his boss Dae-jung goes missing in a ship accident, the company sends Woo-zoo to Osaka to finish Dae-jung's work. On the last day, Woo-zoo comes across someone looking like Dae-jung and chases him to Taisho area in Osaka. He ends up in a small bar, 'Pier 34', whose owner, Snow, somehow reminds him of Dae-jung. Listening to his music brings back memories, he falls asleep and misses his flight back to Korea. He quits his job on a whim and begins an unplanned vacation at Pier 34.

라이브하드 LIVE HARD



Director 황욱 Hwang Wook

Korea / 2018 / 100min / DCP / Color, B&W / Drama

018	08.10 Fri	18:30	M5	15
066	08.12 Sun	12:30	M5	15

한 번의 공연이 절박한 철과 섭, 그리고 덕규. 자신들의 음악을 들려줄 기회가 절실하지만, 라이브클럽 무대에 서는 것조차 어렵다. 철과 섭은 자유분방한 밴드의 리더 임재를 만나는 것조차 어렵고, 랍으로 돈을 버는 덕규는 오직 블루스만 하고 싶지만 더 이상 블루스를 찾는 사람들이 없다. 어느덧 한해는 12월에 접어들고, 다음해 1월 아직 그들을 위한 무대는 없다. 라이브 클럽 무대에 서기 위한 오디션 현장을 통해 만나게 되는 여러 뮤지션들의 다양한 현실.

Chul, Seop, and Deok-kyu are desperate for just one performance, but even being on a club stage is hard. Im-jae, the freewheeling leader of the band always disappears. Deok-kyu who makes a living with rap wants to play only the blues, but people no longer listen to it. Near the end of the year, they go for a live club audition yearning for a chance. While enjoying their different performances, we meet the diverse realities those musicians face.

로큰롤할배 Rock 'n' Roll Grandpa



Director 이장희 Lee Jang-hee

Korea / 2018 / 95min / DCP / Color / Drama

016	08.10 Fri	16:00	M3	6
083	08.12 Sun	21:30	M3	6
무료	08.13 Mon	18:30	US	6

부산 기장의 어시장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성실남 호태. 하지만 자주 가는 동네 아래에서 깨진 통기타를 들 때마다 그의 눈빛은 슬픔에 젖어든다. 동네에서 유학을 앞두고 기장에 내려온 중학교 동창 엘리와 마주친 호태. 바이올린 천재로 불렸던 엘리는 알고보니 클래식 대신 밴드 음악을 하고 싶어 아버지 몰래 이상한 할배들이 차린 밴드교습소에 다니고 있다. 엘리는 이제 할배들 중에 전설의 밴드 '더 레전드'의 보컬 '간'이 있다며,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같이 기타 레슨을 받자고 호태를 교습소로 이끈다. 사라진 전설의 록스타 '간'이 정말 살아 있는 것일까? 과연 호태의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

Ho-tae, the hard-working delivery boy at a fish market in Busan, often plays guitar and sings at his favorite spot, the lighthouse. He runs into his old classmate, Elly. Elly, the former violin prodigy turns out to have serious interests in Rock 'n' Roll now. She even takes rather unusual guitar lessons from somewhat strange old folks unknown to her dad. With her insisting that one of them is the vocal of the legendary band, 'The Legend', Ho-tae follows Elly to the music class. They, with own secrets, start a strange journey together.

수퍼 디스코 Super Disco



<JIMFF 2017 음악영화 제작지원 프로젝트 지원작>

Supported by JIMFF 2017 Music Film Project promotion

Director 이주호 Lee Ju-ho

Korea / 2018 / 110min / DCP / Color / Documentary

045	08.11 Sat	16:00	M3	12
075	08.12 Sun	18:30	M5	12
무료	08.13 Mon	20:00	JP	12

'홍대 최초의 립싱크 댄스 그룹'을 표방했던 밴드 '술탄 오브 더 디스코'. 하지만 결성 10주년을 넘긴 지금, 그들은 이제 홍대 씬에서는 모르는 이가 없는 밴드가 되어 있다. 2014년 영국의 글래스탄베리 페스티벌에 공식 초청된 것을 계기로 이들의 매니저였던 감독은 이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로 결심한다. 감독은 이제 이들이 2집 앨범을 완성하고 과정을 찍어 나가며 신나고 흥겨운 음악이 만들어지는 동안에 벌어질 여러 에피소드들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물론 기대는 언제나 어긋난다.

Sultan of the Disco was so called 'the first lip sync dance group in Hongdae'. Now, they became one of the well-known bands in Hongdae music scene. The director decided to make a documentary about the band when they were officially invited to the Glastonbury festival in U.K. in 2014. What the director anticipated was that he could record some episodes following the whole process of the band's making their second studio album. However, you never know what the future brings.

Trip of Blues Trip of Blues



<JIMFF 2017 음악영화 제작지원 프로젝트 지원작>

Supported by JIMFF 2017 Music Film Project promotion

Director 성승택 Sung Seung-taek

Korea / 2018 / 79min / DCP / Color / Documentary

023	08.10 Fri	21:00	M5	12
무료	08.11 Sat	18:30	US	12
099	08.13 Mon	16:00	M3	12

80년대 히트곡 '골목길', '아쉬움', '바람인가' 등의 작곡가, 겸 블루스 기타리스트 엄인호는 80년대 신촌 블루스 활동을 하며 대중적 인기를 누렸다. 신촌 블루스는 김현식, 한영애, 정서용, 등의 뛰어난 보컬들을 배출하였다. 시간이 흘러 신촌 블루스 30주년 기념 공연을 하고, 여러 무대에 서지만 예전만큼의 인기를 누리지는 못하고 있다. 그는 데뷔 40주년 앨범과 흥대 라이브 클럽 공연, 작곡 등 여러 가지 음악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반복되는 좌절과 성공 속에서도 그는 삶을 살아가고, 오늘날 기타를 연주한다. 이 영화는 기타리스트 엄인호의 삶에 음악은 무엇인지 묻고자 한다.


The film follows the music and life of Um In-ho of Sinchon Blues. He has lived only for music, even though he born in 1952, experienced turmoil moments after the Korean War. He had performed in nightclubs long and had his debut late, but kept his creativity. Once a famous singer, he is now recognized by just few people. But still, he is on the stage, sings and writes songs. The film shows not only music but also how a human being finds the reason to be, overcoming downhill through music.

보이지 않는 도시 Invisible Cities



Director 오재형 Oh Jae-hyeong

Korea / 2018 / 10min / DCP /
Color / Audio Visual Performance

085 08.12 Sun 13:30 JC  

304개의 얼굴이 방 안에 가득 차 있는 도시 프로코피아, 곧 무너질 장소를 지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도시 테클라, 주민들의 욕망에 의해 형태가 지워지는 도시 제노비아 등이 등장한다. 오재형의 라이브 피아노 연주와 함께 상영된다.

It's about the city of Procopia with 304 faces filled the room, the city Tecla where the people who keep the crumbling place gather, and the city Genovia whose form is erased by the desire of the inhabitants.

봄날 A Spring Day



Director 오재형 Oh Jae-hyeong

Korea / 2018 / 16min / DCP / Color / Experimental

085 08.12 Sun 13:30 JC  

광주 5.18에 대한 댄스필름이다. <봄날>은 무용수들의 몸짓, 수화통역사의 손짓, 그리고 때론 고요하게 멈춰있고 때론 빠르게 흐르는 광주의 거리가 주인공이다. 장소에 축적된 역사의 기억을 다양한 비언어적 소통 방식과 음악을 통해 표현하고 위로한다.

This film is a dance film about the May 18 Gwangju Democratic movement. *A Spring Day* is the audio-visual poem of dancers' movements, the sign language interpreters' hand gestures, and the street of Gwang-ju(which means 'the city of light') that sometimes flow fast or sometimes silently still.

울림 Résonances



Director 장줄리앙 푸스 Jean-Julien Pous

Korea, France / 2017 / 61min /
DCP / Color, B&W / Document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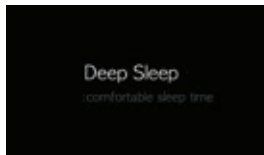
085 08.12 Sun 13:30 JC  

<울림>은 한국 제주의 해녀들과 프랑스 피레네 산맥의 수공 염소치즈 농가의 부부를 보여준다. 이 두 공간은 프랑스와 한국, 산과 바다라는 이질성을 갖지만, 극도의 신체적 노동을 요하는 일, 사라져가는 몸, 도구, 공간이라는 공통 분모를 갖는다. 우리는 그들을 둘러싼 흙과 물, 공기와 동물을 통해 같은 떨림으로 울리는 두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음악을 맡은 로익 장드리의 라이브 연주와 함께 선보인다.

Résonances is an invitation to discover Korea and France through the ritual of two atypical farmers. One is a woman diver or 'Haenyeo' from the island of Jeju. The other is a shepherdess making goat cheese in a hamlet in the Pyrenees. They reveal themselves through their relationship to the animal world, earth, air and the liquid element. The ghostly mist absorbs the animals and their owners, while the black silhouettes of divers disappear in the water. Thus the two worlds resonate.


SHORTS 1


딤슬립 Deep Sleep



Director 구혜선 Koo Hye-sun

Korea / 2018 / 23min / DCP / B&W / Experimental

013 08.10 Fri 15:30 M5  

047 08.11 Sat 18:30 M5 

편안하게 잠드는 시간. 영화관에서 깊은 잠을 자다.

Comfortable sleep time. A deep sleep in a cinema.

E.M.O. E.M.O.



Director 홍지수 Hong Ji-soo
Korea / 2017 / 19min / DCP / Color / Drama

013	08.10 Fri	15:30	M5	12
047	08.11 Sat	18:30	M5	12

저승에서, 죽은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노래를 들려주는 일을 하는 천사 뮤지엘. 이 일에 권태를 느끼던 어느 날 그의 앞에 인간이 아닌 로봇이 나타났다.

Musiél is an angel of the underworld who plays a song that the dead people want to listen to for the last time. One day he meets a special guest, who is not a human, a robot, who doesn't have any emotional memory.

엄마 나예요, 아들 The First and Last Minute of My Life



Director 윤솔지 Yoon Sol-ji
Korea / 2018 / 5min / DCP / Color / Documentary

013	08.10 Fri	15:30	M5	12
047	08.11 Sat	18:30	M5	12

세월호 참사에서 잃어버린 304개의 꿈에는 260여명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있었다. 어느 아무렇지 않은 봄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엄마들. 엄마 인생 전부인 열여덟 소년이 엄마의 텅 빈 공간으로 찾아와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April, 2014. Korea lost 304 lives from Sewol ferry disaster. Most of them were high schoolers aged 17. This short story depicts a journey of a son to his mother and her empty room.

탄 Mime in Mine



Director 장권호 Jang Gun-ho
Korea / 2018 / 28min / DCP / Color, B&W / Drama

013	08.10 Fri	15:30	M5	12
047	08.11 Sat	18:30	M5	12

태백 한태탄광에서 공연을 앞두고 있던 음악가들은 폐광산이 누르는 힘과 공연을 기획한 선생님의 기대에 눌러 음악적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한국의 1세대 마임리스트 유진규와 예술가들의 폐광 공연을 영화의 형식으로 담아낸 이 프로젝트는 장소특정적 예술이 창조되고 실현되는 과정을 통해 음악, 몸짓, 그것을 둘러싼 공간과 그에 영향받는 예술가들의 감정 등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그린다.

The musicians prepare for a performance at a mine. They fall into a dilemma due to the overwhelming power of the mine and the expectation of the planner. This work closely depicts the emotional flows of the artists through the process of planning and performance of the first generation mimmer, Yoo Jin-gyu and fellow artists.

BigHug BigHu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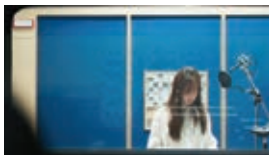
Director 백정미 Baek Jeong-mi
Korea / 2018 / 14min / DCP / Color / Experimental

013	08.10 Fri	15:30	M5	12
047	08.11 Sat	18:30	M5	12

이것은 누군가를 위한 자정가이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잘 들은 죄로 서서히 죽어간 이들이 잠긴 바다로 아프리카의 제사의식에 연주되어온 악기 칼림바의 즉흥연주가 울려 퍼진다. 남겨진 가족들은 희생자들을 당신들이 품에 안고 그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품에 안겨있는 건 희생자들이 아닌 유가족들이다. 몸짓과 음악으로 아이들의 영혼과 유족들의 서로 닿지 못하는 질질함을 위로하는 작품이다.

This is a lullaby for someone. The improvised performance of the musical instrument Kalimba, played in rituals in Africa, echoes through the sea, where victims steadily died just because they followed the instruction “Stay still”. The film tries to connect and console the earnest desire of both the deceased and the bereaved through the sound and physical expression.

녹음 Recording



Director 임민주 Lim Min-ju
Korea / 2017 / 8min / DCP / Color / Drama

042	08.11 Sat	15:30	M5	G	QA
089	08.13 Mon	10:00	M5	G	

데뷔를 앞두고 타이틀 곡을 녹음 중인 피아니스트 수연. 연주가 뜻대로 되지 않자 녹음을 반복하고 프로듀서는 수연에게 짜증을 낸다. 이때, 태식이 레코딩 스튜디오에 찾아온다. 음악이 불러내는 기억, 연주자의 내면에 대한 함축적이고 감성적인 단상.

Soo-yeon, a pianist, is recording the title music for her own upcoming debut album. She keeps making mistakes and the recording doesn't go smoothly. The producer starts to get irritated and that's when Tae-sik visits them. The film captures the moment when the melody, memory and the performer's inner status interact in an implicative way.

찾을 수 없습니다 404 not found



Director 엄하늘 Uhm Ha-neul
Korea / 2018 / 29min / DCP / Color / Drama

042	08.11 Sat	15:30	M5	G	QA
089	08.13 Mon	10:00	M5	G	

2000년대 초, 대구에서 칠곡으로 전학 온 지환은 역시나 대구에서 전학 온 은아를 짝사랑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은아가 지환에게 대구로 놀러가자는 말을 꺼낸다. 아련한 기억과 함께 자리한 음악의 모습.

Early 2000s, Ji-hwan who is transferred from Daegu to Chilgok falls for Eun-ah who moved from the same town. One day, Eun-ah suggests him to go to Daegu together. A fragment of music woven in the memory.

소화기 Fire Extinguisher



Director 신서원 Shin Seo-won
Korea / 2017 / 23min / DCP / Color / Drama

042	08.11 Sat	15:30	M5	G	QA
089	08.13 Mon	10:00	M5	G	

가수 지망생인 여명은 심한 생활고에 시달린다. 옆집 남자가 군대 가면서 주고 간 붉은 소화기를 보면서 작곡을 한다. 언젠가는 온몸으로 터지며 소화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을 비유한 곡이다. 하지만 소화기는 유효날짜가 지나버리고... 여명은 가수가 될 수 있을까?

Yeo-myong, an aspiring singer, suffers from extreme poverty. After her neighbor leaves for the military, she stares at the red fire extinguisher he'd given her as she writes a song. Yeo-myong hopes to be like the fire extinguisher—one day her talents will finally burst out of her and she too will fulfill her role. But the fire extinguisher passes its expiration date. Can Yeo-myong make it as a singer?

그 소녀는 어디에 있을까 Where is the Gir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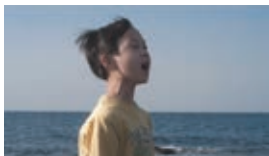
Director 우경웅 Woo Kyung-woong
Korea / 2017 / 29min / DCP / Color / Drama

042	08.11 Sat	15:30	M5	G	QA
089	08.13 Mon	10:00	M5	G	

엄마의 죽음 후에 그녀를 그리워하던 소영은 '소영 엄마'가 아닌 '경희'가 꿈꿔왔던 삶을 마주하고 싶어 과거로 떠난다. 과거 경희의 음악 동아리는 폐부를 찔르고 있고 부원들은 그녀를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 <그 소녀는 어디에 있을까>는 현실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음악을 꿈꾸던 소녀 경희와 그 꿈을 이뤄주기 위해 과거로 온 딸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After her mother's death, So-young misses her. She decides to go back to meet her mother Kyung-hee's dream. In the past, Kyung-hee faces the hardship while her music club is about to break down. This is a story of a girl whose dream is music, and her daughter who wants to make the dream come true.

고래가 된 남자 A Whale Song



Director 김효진 Kim Hyo-jin
Korea / 2017 / 17min / DCP / Color / Drama

037	08.11 Sat	12:30	M5	12 OA
101	08.13 Mon	18:30	M5	12

급속한 개발로 섬 위의 섬이 된 마을. 덕수는 실종된 할머니를 찾으러 나섰다가 잊고 있던 고래의 노래를 떠올리게 된다. 그 노래로 자신을 돌아보게 된 덕수는 어느새 고래가 된 자신을 발견한다. 현재와 과거의 기억이 점차 판타지로 중첩되고 영화는 무분별한 개발에 감성적인 경종을 울린다.

A village became an island of island due to sprawling development. While searching for his missing grandmother, Duk-soo recalls the day the whales came. And he finds him as a whale he longed for. Through fantasy woven with memory, unique songs and animation, the film warns the consequence of careless development in an emotional way.

달세뇨 Dalsegno



Director 고성욱 Go Sung-wook
Korea / 2018 / 13min / DCP / Color / Drama

037	08.11 Sat	12:30	M5	12 OA
101	08.13 Mon	18:30	M5	12

가까운 미래의 도시에 사는 피아니스트 태엽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을 수 있는 '뮤터'를 사용한다. 어느 날 지울 수 없는 소리가 잡히고, 조용한 바다 오두막으로 향하는 태엽과 딸. 하지만 그곳에서도 들리는 소음과 딸의 말썽으로 딸에게 화를 내고 딸 보람은 사라져 버린다. 보람을 찾기 위해 태엽은 '뮤터'의 주파수를 보람에게 맞추는데...

The city of the near future, the pianist Tae-yup uses a 'muter' that enables him to hear the sound selectively. One day, he and his daughter, Bo-ram head for the quiet beach escaping from the noise. He still hears the noise and his temper makes Bo-ram disappear. In search for Bo-ram, Tae-yup adjusts the frequency of the 'muter' to Bo-ram.

잠 Sleep



Director 성종훈 Sung Jong-hoon
Korea / 2017 / 20min / DCP / Color / Drama

037	08.11 Sat	12:30	M5	12 OA
101	08.13 Mon	18:30	M5	12

뉴스에서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분노지수와 이에 따른 사건 사고가 보도된다. 버스커인 주인공은 어느 날 알 수 없는 존재와 조우한 뒤로 노래를 부르며 사람들이 잠들어버리는 특별한 능력이 생기게 된다. 그렇게 주인공은 거리공원에서 노래로 청중들에게 달콤한 잠을 선사한다. 그런데 그 공연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SNS를 통해 퍼지기 시작하는데...

The anger index breaks the record everyday and the anger-caused accidents keep happening. A street singer happens to get the special ability of making people fall asleep with her singing. She gives a sweet sleep to the people by singing on the street. Her songs are spread through SNS and it seems to lead her to something bigger.

밤밤밤 Bam, Bam, Bam



Director 이안 Yann K
Korea / 2018 / 26min / DCP / Color / Drama

037	08.11 Sat	12:30	M5	12 OA
101	08.13 Mon	18:30	M5	12

듀오 록 그룹의 드러머인 진은 싱어이자 베이시스트인 수혜와 함께 흥대의 '스트랜지 프룻' 바에서 공연한다. 우연히 그곳에 들른 K-pop 프로듀서가 수혜를 미래의 스타로 키울 생각으로 돈을 무기로 접근하고, 그렇지 않아도 돈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진은 성질을 부린다. 성난 드러머가 할 수 있는 일은 드럼을 '세계' 치는 것 뿐이다. 음악산업의 상업화에 대한 유쾌한 항변.

Jin, the drummer of duo rock group, plays with her friend Su-hye at a bar in Hongdae, the artist neighborhood of Seoul. A K-pop producer sees them but focuses on Su-hye, like a future star that he could shape with his financial power. This drives Jin angry, and when a drummer is angry, she may hit hard.

조또마떼 사요나라 오지짱 Jottomate Sayonara Oji-jjang



Director 김종철 Jaycee Kim
Korea / 2017 / 26min / DCP / Color / Drama

037	08.11 Sat	12:30	M5	12 GA
101	08.13 Mon	18:30	M5	12

평범한 회사원인 줄 알았던 재만에게도 화려한 과거가 있었다. 바로 코스프레계의 전설 닥네임 '살라딘'으로 불리던 시절이 그것! 결혼을 앞두고 재만은 과거를 청산하고 평범한 삶을 꿈꾼다. 그러나 재만의 앞에 옛 동료 니콜라스와 미쿠짱이 등장하면서 재만은 마지막 코스프레를 하게 되는데...

Jae-man already thoroughly matured and had given up 'The Legend of Cosplay'. One day, however, his old cosplay fellows, Nicholas and Miku visit him. His plan to live a normal life and to get married is now in danger.

SHORTS 4

원썬 Ones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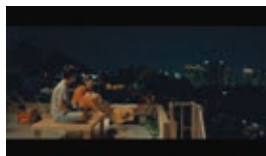
Director 장동주 Jang Dong-ju
Korea / 2018 / 47min / DCP / Color, B&W / Documentary

061	08.12 Sun	10:00	M5	12 GA
117	08.14 Tue	14:00	M5	12

1998년 한번도 주목 받아 본적 없던 대한민국 힙합 1세대 '원썬'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예선 탈락했지만 큰 주목을 받아 데뷔 20년만에 전성기를 맞게 된다. 하지만 낮에는 오토바이 퀵 배달, 저녁에는 흥대 언더그라운드 힙합 클럽 '인투딤'을 운영하며 빛에 시달린다. 원썬의 삶과 클럽 '인투딤'의 운명은 많은 언더그라운드 뮤지션이 처한 현실이다.

Onesun, one of Korea's first generation hip-hop musicians, appeared on an audition program. Although he did not make it to the finals, he received great attention for the first time in 20 years since his debut. However, he still delivers packages, and at nights he runs the underground hip-hop club 'In2Deep' in Hongdae. Onesun's life and his club 'In2Deep' illustrate the reality underground musicians are faced with.

그녀의 음악 Dream of Music



Director 김수현 Kim Soo-hyun
Korea / 2017 / 29min / DCP / Color / Drama

061	08.12 Sun	10:00	M5	12 GA
117	08.14 Tue	14:00	M5	12

학생시절 수진은 옥탑방에서 음악을 만들어 유튜브 활동을 하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수진은 졸업 후 경제적 상황 때문에, 음악을 멈추게 되고,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게 된다. 얽힌 데 얽힌 격으로 살고 있는 집의 계약기간이 끝나게 되자 옥탑방을 찾게 되고, 옥탑방에서 음악을 했던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게 된다.

As a student, Su-jin was making music in her rooftop room and put it on YouTube. However, after graduating from college, Su-jin stops music because of economic conditions. And she works as a accounting manager at an entertainment company. When Su-jin ends the contract period of the house, she visits the rooftop room. And she remembers herself who made music in the rooftop room.

그 여름의 끝 The End of That Summ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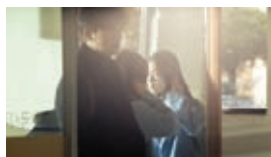
Director 이솔희 Lee Sol-hui
Korea / 2017 / 16min / DCP / Color / Drama

061	08.12 Sun	10:00	M5	12 GA
117	08.14 Tue	14:00	M5	12

4학년 자영은 곧 있을 학예회에서 리코더를 불고 싶다. 하지만 아무도 자영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자영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에 대응한다. 따뜻하고 귀여운 음악 성장영화.


Ja-young, who is in fourth grade, wants to play recorder at the upcoming school talent show, but nobody listens to her. Ja-young finds her way to move on.

두개의 빛: 릴루미노 Two Lights: Relumino



Director 허진호 Hur Jin-ho

Korea / 2017 / 31min / DCP / Color / Drama

무료 08.10 Fri 18:30 US 

시력을 차츰 잃어가고 있는 인수는 사진 동호회에서 같은 시각장애를 가진 수영을 만난다. 잔뜩 움츠러든 자신과 달리 당당한 모습의 수영에게 호감을 느끼는 인수. 세 번의 출사, 다섯 번의 만남 속 그들은 서로의 빛이 될 수 있을까?

In a photography club, In-soo who is losing his sight meets Soo-young who also has a sight disability. He is attracted to her who is confident unlike him who is becoming timid. Can they be lights for each other after shooting three times and meeting five times?

MASTER CLASS

The Martin Taylor Maestro & Virtuoso

Signature
Designed by Martin Taylor...built by Peerless!





www.peerlessguitars.com

Peerless Guitars

피어리스 기타

051.263.8281

More Than Just A Br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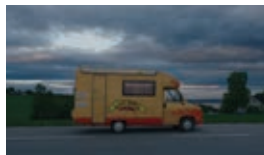
14th JIMFF FILM PROGRAM

패밀리 페스트 FAMILY FEST

'패밀리 페스트'는 가족 중심의 휴양영화제를 지향하는 JIMFF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는 섹션으로, 세대를 초월하여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영화들로 구성된다. 두 소년이 어린 시절부터의 꿈인 노르웨이 락 챔피언십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노르웨이의 <로스 반도>를 비롯하여 로시니의 오페라에 바치는 헌정작 <로시니를 위한 교향곡>, 발레리나의 꿈을 이루려는 소녀 아리아의 이야기인 <아리아> 등 발랄한 상상력을 보여주는 단편영화들이 상영된다.

Featuring popular films that possess broad appeals across the generations, 'Family Fest' introduces the feature film *Los Bando*, a Norwegian movie about two young men who set out a journey to attend the annual Norwegian Championship of Rock, and short films made with creative imagination including *A Symphony for Rossini: Il Turco in Italia*, a film dedicated to Rossini's operas; and *Aria*, a story of Aria, a girl who aspires to be a ballet dancer.

로스 반도 Los Bando



Director 크리스티안 로 Christian Lo

Norway / 2018 / 94min / DCP / Color / Drama

003	08.10 Fri	10:00	M5	G
113	08.14 Tue	11:00	M3	G

절친한 친구인 그림과 악셀은 8년 동안 매년 열리는 노르웨이 락 챔피언십 대회에 나가길 꿈꿨다. 둘은 밴드 '로스 반도 이모탈'을 꾸렸지만 베이스 연주자가 없고 보컬 겸 리드 기타리스트인 악셀은 노래를 못한다. 그림은 그 사실을 악셀에게 말할 용기가 없지만 노르웨이 락 챔피언십 대회에 나가게 된 이상 빠른 시일 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The two best friends, Grim and Axel, have ever since they were eight been dreaming about attending the annual Norwegian Championship of Rock. Together they have a band - Los Bando Immortale, but they lack a bass player, and Axel the vocalist and lead guitarist can't sing. Grim hasn't had the heart to tell him yet, but when they get accepted to the National Championship of Rock, he needs to find a solution - quickly.

SHORTS

아리아 Aria



Director 사이먼 폭스 Simon Fox

UK / 2017 / 9min / DCP / Color / Drama

006	08.10 Fri	10:30	M3	G
112	08.14 Tue	11:00	M5	G

아리아는 무용학교 선배 비너스처럼 우아하고 아름다워지기를 바라는 어린 발레리나이다. 하지만 가족사의 에리스와 친구들이 아리아를 괴롭혀 자신감에 해방을 놓는다. 스스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극복하기 위해, 아리아가 자신의 마음 속에서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은 바로 춤이다.

Aria is a young ballerina with dreams of one day being as elegant and beautiful as Venus, an older girl at her dance school to whom she adores. Aria's confidence is challenged though by the resident bully Eris and her troop. In order to understand and overcome her struggles, Aria envisions the conflicts the best way she can; as a dance.

악기들 Instrument



Director 아베딘 모하마디 Abedin Mohammadi
Iran / 2016 / 2min / DCP / Color / Animation

006	08.10 Fri	10:30	M3	G
112	08.14 Tue	11:00	M5	G

이란 사람들은 음악을 사랑하지만 음악가를 좋아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스스로 예술가이지만 예술가가 되기는 두려워한다. 이 작품은 이것을 다룬 단편이다.

People in Iran love music, but they do not like to be a musician. People in Iran are artists, but they are afraid of being artists. The director paid attention to this in the short video.

로시니를 위한 교향곡 A Symphony for Rossini: II Turco in Ital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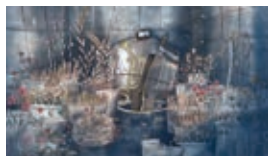
Director 모니카 망가넬리 Monica Manganelli
Italy, Germany / 2017 / 10min / DCP / Color / Animation

006	08.10 Fri	10:30	M3	G
112	08.14 Tue	11:00	M5	G

이탈리아 오페라의 멋진 전통과 애니메이션이 만난 실험 애니메이션이다. 종이로 만든 극장에서 장면을 구분 짓는 벽은 새로운 영감을 찾아 나폴리를 떠도는 시인 프로스도치모의 공책 페이지가 된다.

This film is an experimental short film in which animation meets the great tradition of Italian music opera. In a paper theater, the walls of scenography become notebook pages of the protagonist, Prosdócimo, a poet that wanders in Naples in search of inspiration for his new story.

나비 Butterfly



Director 마리암 칼릴자데 Maryam Khalilzadeh
Iran / 2017 / 13min / DCP / Color / Animation

006	08.10 Fri	10:30	M3	G
112	08.14 Tue	11:00	M5	G

마법 음악을 통해 한 남자가 천 한 명의 소녀를 나비로 변신시킨다는 전설이 있다. 그리고 나면 그는 스스로 날 수 있다. 그는 소녀들을 나비로 변신시키기 시작한다. 하지만 천 한 번째 소녀가 나타나자 그녀와 사랑에 빠진다.

Legend has it that if through enchanted music a man is able to transform a thousand and one girls into butterflies; he himself will be able to fly. A man thus starts turning girls into butterflies. But, arriving at the one thousand and first, he falls in love with her.

이것이 행복 This is Happiness



Director 예프게니야 투르크코바 Evgeniya Turkova
Russia / 2017 / 20min / DCP / Color / Drama

006	08.10 Fri	10:30	M3	G
112	08.14 Tue	11:00	M5	G

해가 지나도 모스크바의 이 공원에서 변한 것이 없다. 요즘 젊은이들이 모두 핸드폰에 파묻혀 서로를 지나친 채 진짜 만남의 기회를 놓치는 것 말고는 말이다. 젊은이들의 손에는 거의 마법의 물건이라 할 수 있는 핸드폰이 들려 있다. 핸드폰 속에서 인생을 살 수 있다. 사람을 만나고 사랑에 빠지고 사랑을 끝내고 헤어진다. 이게 기적 아닐까?

Years pass, and nothing changes in this park in Moscow. Unless modern young people are all like one buried in their cell phones and pass by each other, miss the opportunity for real meetings. In the hands of young people - almost a magical object: a cell phone. In it you can live a lifetime: to meet, fall in love, fall out of love and part. Is not it a miracle?

와키와 노래하는 강아지 Wacky and Her Singing Dog



Director 티미 누블라 Timi Nubla

Philippines / 2018 / 10min / DCP / Color / Drama

006 08.10 Fri 10:30 M3

112 08.14 Tue 11:00 M5

싱글맘의 딸인 와키는 엄마가 그녀에게 쏟아 붓는 것과 같은 믿음과 자신감, 사랑을 가지고 강아지에게 노래 부르기를 가르친다. 그녀의 강아지도 할 수 있다고 믿는 와키는 결국 학교 행사에서 강아지가 가진 '재능'을 선보이기로 결심한다.

Wacky, daughter of a single mother, shows the same faith, confidence, and love her mom showers her, by determinedly teaching her fur baby how to sing. Believing that her dog can do it, she eventually decides to publicly showcase her dog's 'talent' in a school event.

짐 The Burden



Director 니키 린드로트 폰 바르 Niki Lindroth Von Bahr

Sweden / 2017 / 15min / DCP / Color / Animation

006 08.10 Fri 10:30 M3

112 08.14 Tue 11:00 M5

고속도로 옆에 위치한 현대적인 시장에서 벌어지는 어두운 분위기의 뮤지컬. 다양한 가게에서 일하며 지루함과 실존적 불안을 발랄한 뮤지컬로 달래는 직원들이 동물로 묘사된다. 종말은 오히려 매력적인 해방구이다.

A dark musical enacted in a modern market place, situated next to a large freeway. The employees of the various commercial venues, portrayed as animals, deal with boredom and existential anxiety by performing cheerful musical turns. The apocalypse is a tempting liberator.

진하고

깔끔하다!



세상 처음 까만 보리차

블랙보리

주제와 변주 - 인도 음악영화, 그 천 개의 얼굴

THEME & VARIATIONS - THOUSAND FACES OF INDIAN MUSIC AND FILM

하나의 대륙이라 불릴 만큼 다양한 지역색을 가진 인도에는 익히 알려진 볼리우드 외에도 다양한 음악영화 전통이 존재한다. 올해 마련한 '주제와 변주 - 인도 음악영화, 그 천 개의 얼굴'은 이러한 인도 음악영화의 다양성을 엿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A.R. 라흐만이 음악 작업을 한 <창공에서>와 감독이자 음악가인 산제이 릴라 반살리 감독의 <바지라오 마스타니>와 같은 주류 영화와 더불어 카슈미르 지역의 저항 음악을 다룬 <저항의 발라드>, 힌두스타니 전통 음악의 아름다움을 시적으로 그린 <싯데슈와리>, 비하르 평민들의 예술을 담은 <비하르 민중의 드라마> 등, 다양한 지역의 인도 음악을 보여주는 작품들을 포함했다. 국제경쟁부문에도 포함된 <산을 휘감는 목소리>는 나갈랜드 주의 아름다운 노동요를 접하는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흑백 볼리우드 영화 <반값 여행>을 통해서도 독특한 음악을 선보였던 천재 음악가이자 코미디 배우 키쇼르 쿠마르의 연기와 노래를 접할 수 있다.

In India, as some describe as a continent, there are various music & film traditions apart from widely-loved Bollywood films. In this special section, we tried to offer a glimpse of the vast diversity of Indian music film. On top of mainstream films such as *Amidst the Atmosphere*, whose music was composed by the Oscar-winning musician A.R. Rahman, and *Bajirao Mastani* by Sanjay Leela Bhansali, also included are the films introducing different styles of music like *Soz: Ballad of Malladies* on resistance music of Kashmir, *Siddheshwari*, a poetic portrait of the legendary singer from Varanasi and *Naach Bhikhari Naach*, introducing lay people's folk theatre art. *Up Down & Sideways*, included also in 'International Competition' section, offers a unique audio-visual experience of Nagaland folk song. You can meet the performance of Kishor Kumar, the genius comedy actor and musician through *Half Ticket*.

창공에서 Amidst the Atmosphere



Director 마니 라트남 Mani Ratnam

India / 2017 / 138min / DCP / Color / Drama

020	08.10 Fri	19:00	M1	G
108	08.13 Mon	10:00	JC	G

인도공군의 비행중대장 바룬 차크라파니는 스리나가르에 배치되어 있다. 대담하고 아름다운 수련의 릴라 아브라함은 정부 운영 병원에서 일하기 위해 스리나가르에 온다. 부상을 입은 바룬은 병원에서 릴라를 만나게 되고, 둘의 순탄치 않은 사랑이 시작된다. 카슈미르 국경 인근의 작은 충돌이 확대되어 카르길 전쟁이 발발할 무렵, 릴라는 바룬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둘의 이야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하고 아름답지만, 깊은 상처를 숨기고 있는 영화의 배경 스리나가르의 모습을 대변한다. 오스카상을 수상한 A.R 라흐만이 음악감독으로 참여했다.

Varun Chakrapani (VC), a Squadron Leader with the Indian Air Force, is posted in Srinagar. The bold and beautiful Leela Abraham, a junior doctor, comes to Srinagar to work in the Government Hospital. They meet due to VC's injury and their stormy affair begins. Kashmir's border skirmish grows into the Kargil war and Leela decides to leave VC's vulnerability. Their story mirrors the picturesque and turbulent Srinagar that it is set in. Seemingly perfect and beautiful on the outside, but hiding deep scars. The Oscar-winning A.R Rahman composed its music.

바지라오 마스타니 Bajirao Mastani



Director 산제이 릴라 반살리 Sanjay Leela Bhansali

India / 2015 / 158min / DCP / Color / Drama

049	08.11 Sat	19:00	M1	12
-----	-----------	-------	----	----

<바지라오 마스타니>는 인도 역사 안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로맨스 영화다. 영화는 카시바이와 결혼한 마라타 왕국의 재상 바지라오가 분델칸트 왕국의 여전사 마스타니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둘은 종교의 벽과 보수적인 왕실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을 쟁취하고자 고군분투한다. 민감한 소재를 즐겨 다루어 온 산제이 릴라 반살리 감독이 힌두와 무슬림의 로맨스를 스토리뿐 아니라 음악과 춤을 통해 화려하게 융합한 작품이다.

Bajirao Mastani is an Indian historical romance film. The film narrates the story of heroic Maratha Peshwa Bajirao played by Ranveer Singh, who is married to Kashibai (Priyanka Chopra), falls in love with Mastani (Deepika Padukone), a warrior princess in distress. They struggle to make their love triumph amid opposition from his conservative family.

반값 여행 Half Ticket



Director 칼리다스 Kalidas

India / 1962 / 120min / DCP / B&W / Drama

074 08.12 Sun 18:30 M2 G

부유한 사업가의 골치거리 아들 비제이는 결혼과 안정된 생활을 강요하는 아버지를 피해 가출한다. 봄베어로 가는 기차표를 살 돈이 없는 그는 반값 기차표를 사기 위해 어린이 행세를 한다. 기차에서 다이아몬드 밀수업자를 만나고 라즈나데비와 사랑에 빠지면서 비제이의 모험이 시작된다. 전설적인 플레이백 싱어이자 코미디 배우 키쇼르 쿠마르의 현란한 슬랩스틱 연기와 노래가 볼거린다.

Vijay is the good-for-nothing son of a rich industrialist, who becomes bored of his father's constant railing and the efforts to marry him off. So he leaves home to go to Bombay and starts life afresh. But he does not have enough money for a ticket. He disguises himself as a child in order to get the eponymous half-ticket. On the train, his adventure begins as he meets a diamond smuggler and falls in love with Rajnidevi. The legendary Kishore Kumar's songs and slapstick comedy performance are the charm of the film.

비하르 민중의 드라마 Naach Bhikhari Naach



Director 실피 굴라티 Shilpi Gulati,
자이넨드라 도스트 Jainendra Dost

India / 2018 / 72min / DCP / Color / Documentary

021 08.10 Fri 19:00 M3 G

095 08.13 Mon 13:00 M3 G

인도 비하르의 민속공연인 '나아치' 무대에서는 남자 배우가 여장을 하고 공연하곤 한다. 나아치 전통에서 가장 전설적인 인물은 배우이자, 극작가, 사회개혁가였던 비카리 타쿠르(1887~1971)다. 영화는 그와 함께 작업했던 마지막 네 명의 노배우들의 삶을 따라간다. 공연과 함께한 평생의 추억과 더불어 비하르 평민들의 삶이 반영된 민속 예술의 세계를 엿볼 수 있다.

Naach is a form of traditional folk theatre from Bihar, India. In this tradition, male artists often cross dress as women on the stage. The most legendary name in this tradition is Bhikhari Thakur's (1887-1971) — an actor, playwright, and social reformer. The film follows the last four Naach performers to have worked with him. As they share their plays, songs and a lifetime of memories of performance, they immerse us into the world of folk theatre where we begin to see a glimpse of budhau — the old man, himself.

싯데슈와리 Siddheshwari



Director 마니 카울 Mani Kaul

India / 1989 / 89min / DCP / Color / Documentary

002 08.10 Fri 10:00 M2 12

073 08.12 Sun 16:00 M3 12

바라나시의 위대한 가수 싯데슈와리 데비(1908-1977)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기존의 다큐멘터리의 틀을 거부하는 <싯데슈와리>는 관습에 도전하는 영화이다. 영화는 마치 유랑하는 듯한 어법으로 이 자유로운 영혼을 찬양한다. 다큐멘터리의 표현의 한계를 시험하는 이 영화 안에서 허구적 요소는 인물 다큐멘터리의 자연스러운 재현방식이 되고 사물과 공간은 음악이 만들어지는 창의적인 과정이 된다.

A film about the great thumri singer Siddheshwari Devi (1908-1977). Breaking all conventional modes of biographical or documentary film making, this film becomes a work of transgression. It transgresses both home and dream. Like a Sufi wanderer, it celebrates the life of exile. Here is a film that takes the 'documentary' non-representational to its limits, turning the fictional material natural to a biography into a presentation, and the objects and locations into an imaginative becoming of music.

저항의 발라드 Soz: A Ballad of Maladies



Director 투샤르 마드하브 Tushar Madhav,
사르브닉 카우르 Sarvnik Kaur

India / 2016 / 85min / DCP / Color / Documentary

031 08.11 Sat 10:00 M2 12

097 08.13 Mon 15:30 M5 12

<저항의 발라드>는 지구상에서 가장 삼엄한 무장지역인 카슈미르에서 포크, 록, 힙합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정치적 격동과 그에 따른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는 예술인들의 모습을 그린다. 영화는 카슈미르 전통 예술이 저항의 통시대 예술로 변화하는 모습을 따라가는 여정으로, '낙원'이라 불리는 카슈미르의 이미지에서 출발해 이 지역의 변화된 문화적 편린들을 하나하나 펼쳐놓는다.

Of folk, rock and hip-hop, the film is a portrait of different cultural practitioners whose work engages with the political upheavals and its social costs in contemporary Kashmir, the world's most heavily militarised zone. In a journey through the metamorphoses of Kashmir's traditional art practices into its contemporary arts of resistance, the film unfolds a transformed cultural fabric of the valley, which departs from the notion of Kashmir as a 'paradise'.

라비 샹카르 Ravi Shankar



Director 프라모드 파티 Pramod Pati

India / 1970 / 27min / DCP / B&W / Documentary

093 08.13 Mon 12:30 M5 G

거장 시타르 연주자 라비 샹카르의 열정적인 연주 모습과 음악 세계를 엿볼 수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로, 일련의 인터뷰와 공연 모습을 통해 인도 음악계의 유명한 연주자이자 창의적인 작곡가로서의 그의 다재다능한 면모를 보여준다.

Ravi Shankar is a film portrait of the Sitar Maestro, Ravi Shankar, depicting through a series of interviews and recitals his versatile personality as a well-known classical performer and a creative composer of Indian music.

샹카르 마하데반 Decoding Shankar



Director 딥티 시반 Deepti Sivan

India / 2018 / 59min / DCP / Color / Documentary

093 08.13 Mon 12:30 M5 G+DA

음악가 샹카르 마하데반의 창작 과정을 탐구하는 인물 다큐멘터리. 다양한 에피소드와 인터뷰를 통해 샹카르 마하데반이 가수, 작곡가로 활동하는 동시에 후견을 양성하며 다양한 열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모습을 그린다. 영화는 그의 인생과 음악적 감수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결정적 순간들을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마하데반 특유의 스타일로 이야기한다. 마하데반의 멜로디와 노래에 담긴 정서를 풀어내는 이 영화를 통해 그가 음악과 즐기는 밀회를 엿보자.

A personality sketch of Shankar Mahadevan, which explores how the creative mind of this artist works. Through anecdotes and personal statements, it focuses on how he balances his career as a singer, music composer, teacher and family man. The film features decisive moments that shaped his life and musical sensibilities, narrated in his own inimitable style. Decoding his melodies and songs, this is an account of his tryst with music.

14th JIMFF
FILM
PROGRAM

시네마 콘서트

CINEMA CONCERT

2006년부터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은 '시네마 콘서트'는 영화상영과 함께 생음악을 현장에서 연주하는 영화음악의 원초적인 형태를 재현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제14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는 고전 코미디를 대표했던 버스터 키튼이 연출과 주연을 맡은 코미디 <카메라맨>과 찰리 채플린 주연의 단편영화 세 편이 한국의 생태주의 어쿠스틱 밴드인 '신나는섬'의 연주로 이틀에 걸쳐 상영될 예정이다.

연주자 - 신나는섬

2009년 6명의 멤버로 결성된 생태주의 어쿠스틱 밴드 '신나는섬'은 전기 악기를 배제한 어쿠스틱 악기만으로 연주하고 노래하는 팀이다. 세계 여러 나라의 타악기와 어쿠스틱 기타, 어쿠스틱 베이스, 바이올린, 아코디언 등의 악기로 자연과 닮은 소리와 편안한 휴식 같은 느낌을 주는 음악을 만들어 연주하고 있다. 특히 2011년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거리의 악사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차지했고, 2012년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시네마 콘서트 프로그램 사상 한국 뮤지션으로는 처음으로 연주를 맡은 이래 다양한 축제의 무성영화 현장 연주 프로그램에서 연주하고 있다. 정규앨범으로 [망원동 로마니](2012)와 [집으로](2017)를 내놓았다.

Cinema Concert, which has become a representative program of JIMFF since 2006, resurrects the most primitive form of film music in simultaneous screening and live music performance. At the 14th JIMFF, *The Cameraman*, a silent comedy film by the famous classic comedy actor Buster Keaton and 3 short films starring Charles Chaplin will be screened for two days accompanied by the live performance of band SINSUM, a Korean Ecology Acoustic Band.

Musicians - band SINSUM

Band SINSUM, an eco-friendly band of six members formed in 2009, performs without using any electric instruments. The band presents relaxing music that resembles the sounds of the nature by performing with percussion instruments from across the world, an acoustic guitar, an acoustic bass guitar, a violin and an accordion. The band won the First Prize at JIMFF Busker Festival 2011. In 2012, they performed at the JIMFF Cinema Concert for the first time as a Korean musician, and since have played for multiple silent film screenings. Their feature-length albums include [Mangwon-dong Romani](2012) and [The Road Home](2017).

카메라맨 The Cameraman



Director 에드워드 세드윅 Edward Sedgwick,
버스터 키튼 Buster Keaton
USA / 1928 / 76min / DCP / B&W / Drama

087 08.12 Sun 20:00 CL

거리에서 사람들의 스냅샷 찍는 일을 하던 버스터는 어느 날 직접 사진을 찍어줬던 아가씨에게 한 눈에 반한다. 대책 없는 짝사랑에 빠진 버스터는 그녀가 MGM 뉴스릴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그녀와 MGM사의 눈에 띄기 위해 다들 몰도 모르는 카메라를 들고서 고군분투한다.

Buster spends days taking snap shots of people on street. One day, he gets attracted by a pretty lady in one of the pictures he took. In unstoppable crush on her, he manages to figure out that she works at the office of MGM Newsreel. In order to get noticed by MGM, he struggles to operate a camera he is not even familiar with.

SHORTS

안전한 거리 Easy Street



Director 찰리 채플린 Charles Chaplin
USA / 1917 / 27min / DCP / B&W / Drama

059 08.11 Sat 20:00 CL

패싸움이 끊이지 않는 거리, 우연치 않게 경찰이 된 채플린이 순찰을 돌다가 그 거리에서 가장 흉폭한 사내와 맞붙어 싸움에서 이기자 출지에 영웅이 되어버린다.

A reformed Tramp becomes a police constable who must fight a huge thug who dominates an inner-city street.

무대 뒤에서 Behind the Screen



Director 찰리 채플린 Charles Chaplin
USA / 1916 / 24min / DCP / B&W / Drama

059 08.11 Sat 20:00 CL

극장의 무대장치 보조를 맡게 된 채플린은 뚱뚱하고 심술 맞은 무대 담당자 골리앗을 번번히 골려준다. 극장에서 리허설이 있던 날 극장 담당자들은 파업을 선언하고, 그때 남자분장을 하고 무대 뒤에 나타난 연극의 여주인공을 보고 한 눈에 반한 채플린은...

Charlie is an overworked labourer at a film studio who helps a young woman find work even while his coworkers strike against his tyrannical boss.

모험가 The Adventurer



Director 찰리 채플린 Charles Chaplin
USA / 1917 / 27min / DCP / B&W / Drama

059 08.11 Sat 20:00 CL

탈옥수 채플린은 경찰에게 쫓기던 중 우연히 물에 빠진 부유한 여성을 구한 뒤 기절한다. 구출된 여성은 채플린이 탈옥수인 사실을 모른 채 집으로 데려와 부유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지만, 여성의 약혼자는 채플린의 정체를 의심하고, 경찰의 포위망 또한 좁혀져 온다.

The Little Tramp escapes from prison, saves a girl and her mother from drowning, and creates havoc at a swank party.

영화인들이 만든 문화기업, 키노에서
정기적으로 멋진 무대를 펼칠
장르 불문, 슬로 그룹 여부 불문

뮤지션을 찾습니다!

kinobeans_s@naver.com 으로
간단한 뮤지션 소개, 연락처와
공연 또는 퍼포먼스 모습이 담긴 영상들을 보내시고
2018 하반기의 주인공이 되세요!
(상시모집)

키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페이스북 : KINOBEANS



14th JIMFF MUSIC PROGRAM

JIMFF 음악 프로그램

원 썸머 나잇

One Summer Night

의림 썸머 나잇

Uirim Summer Night

2018 거리의 약사 페스티벌

JIMFF Busker Festival 2018

쿨나이트

Cool Night

제천 라이브 초이스

Jecheon Live Choice

원 썸머 나잇 One Summer Night

‘원 썸머 나잇’은 청풍호반의 여름 밤에 열리는 가장 특별한 콘서트로 수 많은 마니아들에게 JIMFF의 매력 포인트로 꼽히는 메인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영화인이 스페셜 큐레이터가 되어 음악 아티스트를 소개하는 프로그램 ‘픽 업 더 뮤직’, 달빛을 조명 삼아 하늘 아래 모두가 춤을 추는 밤 ‘미드나잇 바이브’, ‘원 썸머 나잇’의 마지막 밤, 관객들의 아쉬운 마음을 달래줄 ‘이터널 썸머 나잇’이 진행된다. 한 여름 밤의 영화 상영과 물과 바람을 배경 삼아 펼쳐지는 음악 공연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

‘One Summer Night’ is a special concert that takes place at a summer night by the Cheongpung Lake, and is one of the most loved feature of JIMFF. This year, we have prepared a wide range of programs including ‘PICK UP THE MUSIC’, where actors become special curators and talk about musicians; ‘Midnight Vibe’, where everyone can dance in the moonlight; and the last night’s ‘Eternal Summer Night’, which will soothe those who are not ready to say goodbye. Film screenings and music concerts by the beautiful lake in a summer night will present an unforgettable experience only JIMFF can offer.

원 썸머 나잇 One Summer Night

첫 번째 밤 1st Night

스페셜 큐레이터 프로젝트 – 픽 업 더 뮤직 Special Curator Project – PICK UP THE MUSIC

2018.8.10(금) 20:00 청풍호반무대 20:00 10. Aug(Fri), 2018 Cheongpung Lakeside Stage

공연 Performance	박해일 Curated 백현진 윤제문 Curated 씨 없는 수박 김대중, CR 태규 수애 Curated N E L L Park Hae Il Curated Bek Hyunjin Yoon je moon Curated Seedless Watermelon Kim, CR Taegyu SU AE Curated N E L L
상영작 Screening	시네마 콘서트 <탄둔: 무협영화 3부작>, 연주: 토너스 트리오 Cinema Concert <i>Tan Dun: Martial Arts Trilogy</i> , Musical performance : TONUS TRIO

영화와 음악의 접점, 영화인의 음악 이야기, ‘픽 업 더 뮤직’

스페셜 큐레이터 프로젝트 ‘픽 업 더 뮤직’은 영화인이 스페셜 큐레이터가 되어 음악 아티스트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영화인과 음악인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자리이다. 올해는 ‘박해일 Curated 백현진’, ‘윤제문 Curated 씨 없는 수박 김대중, CR 태규’, ‘수애 Curated N E L L’ 이렇게 세 가지 코너로 구성되어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PICK UP THE MUSIC’, where film and music meet, where cineastes discuss music

In our special curator project ‘PICK UP THE MUSIC’, movie actors introduce musicians and talk about the musicians’ stories as well as their own ones. This is year’s program which consists of three sections: ‘Park Hae Il Curated Bek Hyunjin’, ‘Yoon je moon Curated Seedless Watermelon Kim and CR Taegyu’, and ‘SU AE Curated N E L L’.



박해일 (스페셜 큐레이터) Park Hae Il (Special Curator)

어떤 틀에 담기에는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는 배우, 그래서 보면 볼수록 호기심이 생기는 배우 박해일이 제14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원 썸머 나잇'의 스페셜 큐레이터로 청풍호 반무대를 찾는다. 영화가 아닌 공연장, 무대에서 배우 박해일이 소개하는 아티스트의 이야기에 함께 빠져들어 보자.

Park Hae Il is a multifaceted actor who cannot be placed in a single category and leaves you wanting to know more about him. He joins the 14th JIMFF as the special curator of 'One Summer Night'. Let's meet him at the Cheongpung Lakeside Stage and see what he has to talk about artists.



윤제문 (스페셜 큐레이터) Yoon Je Moon (Special Curator)

카리스마 넘치는 캐릭터에서 젠더를 넘나드는 여고생 역할까지 천의 얼굴을 지닌 배우 윤제문이 제14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스페셜 큐레이터로 '원 썸머 나잇'을 찾아온다. 연극무대에서 영화로, 다시 스페셜 큐레이터로 활동영역을 넓힌 그가 소개하는 아티스트와 그가 풀어내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자.

Yoon Je Moon is one of the most versatile actors with a wide acting range from charismatic characters to a high school girl. As an actor who has been expanding his territory from the theater to film and now 'One Summer Night', he will take us on a journey to the stories of the musicians.



출처: 마구라라

수애 (스페셜 큐레이터) SU AE (Special Curator)

단아한 외모와 차분한 발성, 안정적이고 신뢰를 주는 연기력으로 꾸준한 필모그래피를 쌓아오던 민고 보는 배우 수애가 스페셜 큐레이터로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찾는다. 연기와 예술 그리고 음악에 꾸준한 애정을 보이며 활동을 이어왔던 그녀는 이번 공연에서 음악을 배우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 음악을 하는 뮤지션들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SU AE, who has been expanding her filmography with her elegant look, soothing voice and her signature calm acting style, joins us this year as a special curator. As an actor who has shown constant passion towards acting, art and music, she will share with us about what music means to actors and about the people who create music.



NELL

특유의 몽환적인 음악, 매 회 최고의 연출과 독보적인 사운드로 관객들을 매료시키는 대한민국 모던록의 대표 NELL NELL의 뚜렷한 음악 색과, 무대를 통해 선보이는 라이브만으로도 왜 그들이 독보적인 아티스트인가에 대한 물음에 답하기 충분하다. 서정성 가득한 NELL의 화려한 무대와 그들이 부르는 음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시간을 제14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 만나볼 수 있다.

As one of Korea's best modern rock bands NELL has mesmerized the audience with its signature 'dreamy' music, exquisite shows, and outstanding sound. Their distinctive music style and live performances are enough to prove that they are unrivaled. At the 14th JIMFF, we will get to experience their sentimental music and colorful stage and be a part of the show.



백현진 Bek Hyunjin

백현진은 미술가, 음악가, 배우로 활동한다. 특히 화가와 가수로서의 활동에서 두드러진 평가를 받고 있다. 전설적인 안무가 피나 바우쉬가 극찬한 예술가로도 알려져 있다.

Bek Hyunjin is an artist, a musician, and an actor. In particular, he is praised for his artworks and music. He is also known to have been acclaimed by the legendary choreographer Pina Bausch.



씨 없는 수박 김대중 Seedless Watermelon Kim

'씨 없는 수박 김대중'은 블루스 싱어송라이터 김대중의 '블루스 이름'이다. 30대 중반이 된 어느 날, 술을 마시고 카페에서 자기 노래를 한 자락 뽑아 올린 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가수 생활을 시작했다. 1930~40년대의 미국 고전 블루스에 한국의 오래된 포크와 뽕짝의 느낌을 가미하는 노래를 만들고 부르면서 이름을 알렸다. 이번 '픽 업 더 뮤직'에서는 CR 태규와 합동 무대로 관객을 찾아갈 예정이다.

'Seedless Watermelon Kim' is blues singer-songwriter Kim Dae-jung's 'blues nickname'. Singing at a café after some drinks motivated him to start singing professionally in his mid-30's. He became known for spicing up American blues from the 30s and 40s with Korean folk and trot music. At 'PICK UP THE MUSIC', he will come to the audience through his joint performance with CR Taegyu.



CR 태규 CR Taegyu

CR 태규는 블루스 기타리스트이자 싱어송라이터이다. 2004년에 블루스 밴드를 결성해서 활동하다 2011년에 첫 솔로 앨범 [CR BLUES]를 발표하며 국내에서는 좀처럼 시도하지 않는 20세기 초기 컨트리 스타일의 슬라이드 기타 블루스를 선보이면서 본격적인 솔로 활동을 개시했다. 2012년 블루스 컴필레이션 앨범 [블루스, 더 Blues]에서 '그야말로 블루스'라는 곡을 수록, 호쾌한 슬라이드 기타 연주와 묵직한 보컬로 실력과 존재감을 드러낸 그는 2014년 발표한 [상실]에서 델타 블루스의 정통성과 자신의 내면에서 끌어올린 서정미를 결합한 'CR 태규의 블루스'를 정립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번 '픽 업 더 뮤직'에서 씨 없는 수박 김대중과의 합동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CR Taegyu is a blues guitarist and a singer-songwriter. In 2004, he formed a blues band. In 2011, he released his first solo album [CR BLUES], and started soloing in earnest while introducing the early 20th century country style slides guitar blues. His 2012 album [Blues, the Blues] included a song titled 'Literally Blues', where he demonstrated his talent and presence with exciting slide guitar playing and firm voice. His album [Loss], released in 2014, was acclaimed for having established the 'Blues of CR Taegyu' by combining the legacy of Delta blues and his own lyricism. In 'PICK UP THE MUSIC', he is preparing for a joint stage with Seedless Watermelon Kim.

두 번째 밤 2nd Night

미드나잇 바이브

Midnight Vibe

2018.8.11(토) 20:00 청풍호반무대 20:00 11. Aug(Sat), 2018 Cheongpung Lakeside Stage

공연 Performance	자이언티, 혁오, 카더가든 Zion. T, HYUKOH, Car, the garden
상영작 Screening	시네마 콘서트 <찰리 채플린 단편모음> with 신나는섬 Cinema Concert Charles Chaplin's short films with band SINSUM

달빛을 조명 삼아 하늘 아래 모두가 춤을 추는 밤, '미드나잇 바이브'

달빛을 조명 삼아 하늘 아래 모두가 춤을 추는 밤, 미드나잇 바이브는 감성적인 멜로디와 유니크한 보이스로 일상의 작은 조각까지 자신만의 독특한 시선으로 담아낸 이야기를 전하는 아티스트 '자이언티', 청춘의 자유분방함이나 공허함을 특유의 스타일리쉬함으로 풀어내는 '혁오', 사랑과 젊음, 청춘을 노래하는 '카더가든'이 선사하는 그루브 파티이다.

A night where everyone dances under the moonlight, 'Midnight Vibe'

A night where everyone dances under the moonlight, 'Midnight Vibe' is a groove party presented by 'Zion. T', a musician who offers unique interpretations of things that surround us with sentimental melodies and unique voice; 'HYUKOH', a band that sings about the freewheeling yet void youth in their own style; and 'Car, the garden', who sings about love and youth.



자이언티 Zion.T

프로듀서로서 자신만의 독특한 감성이 담긴 곡을 직접 만들고,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흔치 않은 유니크한 보이스를 담아 노래하며 그만의 독특한 제스처로 무대 위에서 자신과 자신의 음악을 표현하는 자이언티. 매 앨범 완성도 높은 음악으로 대중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그는 2013년 이후 5년만에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원 썸머 나잇' 무대에 올라 관객과 소통 할 예정이다.

Zion.T is a musician who produces his own songs with unique sentiments, sings with his one-of-a-kind voice, and expresses himself and his music on stage with his unique gestures and style. He is also known for producing albums full of exceptional quality songs. Zion.T comes back to 'One Summer Night' for the first time in five years since 2013.



혁오 HYUKOH

오혁(보컬/기타)을 중심으로 이만우(드럼), 임현제(기타), 임동건(베이스)의 1993년생 동갑내기들로 구성되어 있는 밴드 '혁오'는 특유의 스타일리시함을 음악, 영상, 패션에까지 접목시키며 청춘의 자유분방함이나 공허함을 잘 표현하고 있다는 평을 받는다. 올해 5월 EP [24: How to find true love and happiness]를 발표, 하반기에는 50여개 도시에서의 월드 투어를 앞두고 있다.

HYUKOH is formed of OHYUK(Vocal/Guitar), putting as the center, INWOO(Drum), HYUNJAE(Guitar) and DONGGEON(Bass), all were born in 1993. Stylish 'HYUKOH' has established its position that depicts freedom and emptiness of young consistently well through not only music but also image, video, performance, and fashion. In May 2018, HYUKOH has released new EP album [24: How to find true love and happiness], and the band has prepared its world tour in nearly 50 cities during the latter half of this year.



카더가든 Car, the garden

2013년 싱글 'Bus Stop'으로 데뷔, 이듬해 EP [Jackasoul]로 이름을 알렸다. 2016년에는 본명 '차정원'을 '카더가든(Car=차, the garden=정원)'으로 바꾸고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다. 2015년 1집 [Photographer]를 발매, 카더가든만의 스타일로 주목 받았으며 지난 해 12월에는 정규 1집 [APARTMENT]를 발표하고 전국 투어를 성공리에 마무리했다.

'Car, the garden' made his debut with the single 'Bus Stop' in 2013, and he released the EP album [Jackasoul] in 2014. Broadening his musical spectrum, he changed his name in 2016 from 'CHA JUNG WON' to 'Car, the garden', which is a witty word-for-word translation of his name. Car, the garden released his first album [Photographer] in 2015, and it caught the eye with his own musical style. Last year, he released a studio album [APARTMENT] and finished the tour in South Korea successfully.

세 번째 밤 3rd Night

이터널 썸머 나잇

Eternal Summer Night

2018.8.12(일) 20:00 청풍호반무대 20:00 12. Aug(Sun), 2018 Cheongpung Lakeside Stage

공연 Performance	김연우, 소란, 마틴 스미스 KIM YEON WOO, SORAN, MARTIN SMITH
상영작 Screening	시네마 콘서트 <카메라맨> with 신나는섬 Cinema Concert The Cameraman with band SINS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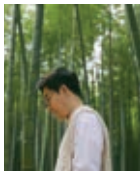
원 썸머 나잇의 마지막 밤, 관객들의 아쉬운 마음을 달래줄 '이터널 썸머 나잇'

노래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감동을 선사하는 이 시대 최고의 보컬리스트 '김연우', 세밀하며 사랑스러운 '소란식 가사'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사운드로 '소란식 팝'을 선보이는 '소란', 사랑의 설렘과 이별을 가득 담은 음악들로 한 편의 영화를 부르는 팝 듀오 '마틴 스미스'. 여름의 '끝'에서도 떠나지 않을 긴 여운을 만들어 줄 '이터널 썸머 나잇'.

One Summer Night's last night,

'Eternal Summer Night' will soothe those who are not ready to say goodbye

'KIM YEON WOO', our time's best vocalist who heals and moves people's heart with his singing; 'SORAN'; 'SORAN'-style detailed and lovely lyric and 'SORAN'-style pop without any barrier of genre; and 'MARTIN SMITH', a pop duo that sings a whole movie with music containing the thrill of love and break-ups. 'Eternal Summer Night' will remain in our hearts long after the end of summer.



김연우 KIM YEON WOO

신이라 불리는 남자, 연우신! 김연우. 노래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며, 감동을 선사하는 이 시대 최고의 보컬리스트인 김연우가 '원 썸머 나잇'의 피날레를 장식한다. 그는 '여전히 아름다운지', '사랑한다는 흔한 말', '이별택시' 등 최고의 곡들을 발표하며 대한민국 최정상 가수의 자리에 섰고, [복면가왕], [나는 가수다]를 통해 대중들에게 더 또렷이 각인되었다. 아름다운 정동의 여름 밤, 그와 함께 하는 특별한 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A man called god. GOD YEON WOO! The best vocalist of our time, KIM YEON WOO, whose music heals broken souls and moves people's heart, will sing at the grand finale of 'One Summer Night'. He has become one of best singers in Korea with great songs including 'Is it still beautiful', 'Love, that common word', and 'Parting Taxi'; and his appearance in music shows like [King of Mask Singer] and [I Am a Singer]. Don't miss out this special experience at the beautiful scenery of Cheounpung lakeside.



소란 SORAN

세밀하며 사랑스러운 '소란식 가사'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사운드로 '소란식 팝'을 선보이는 소란은 위로와 위트가 공존하는 일상을 노래하여 많은 공감을 얻으며 사랑 받고 있다. 더불어 페스티벌 섭외 1순위, 세계질 매진 밴드라는 수식어를 자랑하는 밴드답게 공연에 있어서도 믿고 보는 웰 메이저로 평가 받으며 공연계 흥행 블루칩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지고 있다.

SORAN is a band that presents 'SORAN-style detailed and lovely lyrics' and 'SORAN-style pop' that encompasses a wide range of genres. Their music is loved by many because of its power to soothe the listeners and also make them laugh. As the all music festivals' most wanted band, they are known to stage well-made performances and are establishing a solid foothold as a blue chip in the concert.



마틴 스미스 MARTIN SMITH

강성 보이스 싱어송 라이터 듀오 마틴 스미스는 보컬/기타의 전태원과 메인 보컬 정혁으로 구성된 트렌디한 팝 음악을 추구하는 싱어송라이터 듀오이다. 2015년 Mnet [슈퍼스타 K7]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그들은 심사위원들로부터 '음악 할 줄 안다', '완성도가 높은 팀이다'는 호평을 받았다. 2016년 5월 디지털 싱글 '알고 싶어'로 정식 데뷔를 했고, 2018년에 첫 EP 작품 [SLATE]를 발매하며 완성도 높은 음악을 선보여 음악성 또한 인정받고 있다.

MARTIN SMITH is a singer-songwriter duo made up of vocalist/guitarist Jeon Tae-won and main vocalist Jeong Hyuk that makes trendy pop music. When they appeared on Mnet [Superstar K7] in 2015, juries commented that 'they know how to do music' and 'their music was refined'. The duo made their official debut with the digital single 'I Wanna Know' in May 2016. The quality of their music was once again recognized with their first EP album [SLATE] released in 2018.

14th JIMFF MUSIC PROGRAM

의림 썸머 나잇

Uirim Summer Night

'의림 썸머 나잇'이라는 이름으로 네 번째를 맞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대표 음악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한층 더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수준 높은 음악영화를 무료로 즐길 수 있으며, 2018 거리의 악사 페스티벌 참가팀들의 무대도 매일 만나볼 수 있다. 호수의 빼어난 경치와 아름다운 야경을 자랑하는 의림지에서 펼쳐지는 '의림 썸머 나잇' 영화제를 찾은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한다.

'Uirim Summer Night', which marks its fourth year, is a representative music program of JIMFF. This year, you will not only enjoy performances of various genres and high quality music films for free, but also experience the stage of participants of JIMFF Busker Festival 2018. 'Uirim Summer Night' that takes place at Uirimji boasting its beautiful lake view and excellent night scene will present an unforgettable memory to the audience.

첫 번째 밤 1st Night

블루 나잇

Blue Night

2018.8.10(금) 18:30 의림지무대 18:30 10. Aug(Fri), 2018 Uirimji Stage

공연 Performance	아도이, 새소년 ADOY, SE SO NEON
상영작 Screening	<두개의 빛: 릴루미노> <i>Two Lights: Relumino</i>

신스팝을 기반으로 음악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갖춘 아도이와 다채로운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새소년. 그들이 추구하는 음악이 유행하였던 시대의 트렌드 컬러인 로얄 블루. 의림지무대에서 그들이 추구했던 음악의 시대로 돌아가 볼 수 있을 것이다.

ADORY's music is based on Synthpop, securing both musicality and popularity at the same time, and SE SO NEON's music has a wide spectrum. Royal blue was the trendy color of the time when the style of music of their pursuit was popular. At Uirimji, you will be able to go back in time to the period of that music.



아도이 ADOY

음악성과 대중성을 모두 갖춘, 아도이

다양한 팀의 개성 있는 멤버들이 모여 결성된 아도이는 신스팝을 기반으로 그들만의 색깔이 확실한 음악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무척 단순하고 직관적인 것들을 연상시키는 멜로디로 듣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을 선사하는 그들의 음악은 자꾸만 다음을 기대하게 만든다.

ADORY secures both musicality and popularity

ADORY consists of members with clear characteristics from various teams and is establishing music of their own color based on Synthpop. Their simple and intuitive melody presents a comforting feeling, making the listener look forward to their next music.



새소년 SE SO NEON

대체불가 매력 밴드, 새소년

'새로움' 그리고 '날아다니는 새'의 자유로움을 닮은 밴드. 데뷔 전부터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으며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도 활동 반경을 넓혀나가고 있는 새소년은 빈티지한 느낌 그리고 여러 장르를 관통하는 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에 자신들만의 색을 입힌 '새소년스러운' 음악을 만들어가고 있다.

Band of irreplaceable charm, SE SO NEON

SE SO NEON is a band that resembles 'new' and the freedom of a 'flying bird'. They have been gaining much attention even before their debut and are expanding their stage past the domestic to overseas. SE SO NEON's vintage feeling and wide musical spectrum that encompasses various genres keep making 'SE SO NEON-like' music of their own color.

두 번째 밤 2nd Night

레드 나잇

Red Night

2018.8.11(토) 18:30 의림지무대 18:30 11. Aug(Sat), 2018 Uirimji Stage

공연 Performance	밴드 소울트레인, 신촌블루스 Band Soultrain, Sinchon Blues
상영작 Screening	<Trip of Blues> <i>Trip of Blues</i>

진한 블루스의 리듬과 짙은 감성으로 물들 '레드 나잇'. 한국 블루스 음악의 대부 '신촌블루스'와 소울 음악의 진한 매력을 자신들만의 것으로 소화해내는 Soul & Blues '밴드 소울트레인'이 토요일 밤을 짙게 물들인다.

Red night will be painted with the deep blues rhythm and sensitivity. Sinchon Blues, the godfather of Korean blues music, and Band Soultrain, a Soul & Blues band that makes soul music's deep charm in to their own, will paint the night in deep colors.



밴드 소울트레인 Band Soultrain

진한 감성의 Soul & Blues 밴드, 소울트레인

밴드 이름에서부터 느껴지는 짙은 소울의 음악을 들려주는 8인조 밴드, 소울트레인. 풍성한 사운드와 자신들만의 감성을 녹여내며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음악으로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 그들의 소울풀한 감성에 많은 이들이 매료될 것이다.

Band Soultrain, a Soul & Blues band with deep sensitivity

Band Soultrain is a band of eight making deep soul music, as it can be felt in the band's name. They meet the audience with their music of rich sound and their unique sensitivity that no one can copy. Many will be mesmerized by their soulful sensitivity.



신촌블루스 Sinchon Blues

한국 블루스 음악의 대부, 신촌블루스

80년대 중반 이후 대중음악사와 청년문화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30년이 넘도록 간재한 신촌블루스. 그들은 한국블루스를 토착시키며, 밴드음악의 수준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여전히 불루지한 감성을 연주하는 그들의 음악은 많은 이들의 메마른 마음을 적시준다.

Sinchon Blues, the godfather of Korean blues music

Sinchon Blues decorated the page of popular music history and youth culture since the mid 80s and has been active for over 30 years. They had blues settle in Korea and provided the change to heighten the quality of band music. They continue to play bluesy sensitivity, which will soak the dry hearts of many.

세 번째 밤 3rd Night

골드 나잇

Gold Night

2018.8.12(일) 18:30 익림지무대 18:30 12. Aug(Sun), 2018 Uirimji Stage

공연 Performance	스텔라장, 폴킴 Stella Jang, Paul Kim
상영작 Screening	<뷰티풀마인드, 마음에 그 소리 있지> <i>Listen to Your Heart. The Beautiful Mind</i>

청아한 음색과 공감 가는 가사로 주목받고 있는 신예 여성 싱어송라이터 스텔라장과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음악으로 가요계에 승부하는 싱어송라이터 폴킴의 따뜻한 음악을 익림지무대에서 함께한다.

Enjoy in Uirimji the music of Stella Jang, rookie female singer-songwriter gaining much attention with her clear voice and relatable lyrics, and the ward music of Paul Kim, a singer-songwriter who does not falter by the world and stands up to pop with his own music.



스텔라장 Stella Jang

청아한 음색의 신예 여성 싱어송라이터, 스텔라장

자신만의 음색과 일상의 스토리로 독특한 감성의 음악을 만들어 많은 공감과 사랑을 받고 있다. 편안한 멜로디와 중독성 있는 보이스로 다양한 공연에서 인정받으며 자신만의 색깔 있는 아티스트로 성장해 가고 있다.

Stella Jang is a rookie singer-songwriter with a clear voice color
Her own voice color and everyday life story creates music of unique sensitivity, which many are relating to and loving. Her comforting melody and addictive voice are recognized in various places, and she is growing as an artist of her own color.



폴킴 Paul Kim

노래하기 위해 태어난 남자, 고약남친 폴킴

점점 자극적인 것들을 강요하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음악을 들려주는 싱어송라이터 폴킴. 보여지는 것보다는 본인의 가치관을 담은 곡들로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사랑을 받으며, 지친 마음에 휴식 같은 감성을 전해준다.

Born-to-sing, eardrum boyfriend, Paul Kim
Paul Kim is a singer-songwriter that makes his own music, unaffected by the world that keeps forcing the sensational. His songs are understood and loved by many as they contain his values rather than what is shown, and they present a relaxing sensitivity to the weary hearts.

네 번째 밤 4th Night

퍼플 나잇

Purple Night

2018.8.13(월) 18:30 익림지무대 18:30 13. Aug(Mon), 2018 Uirimji Stage

공연 Performance	타틀즈, 윤수일 Tatles, Yoon Su Il
상영작 Screening	<로큰롤할배> <i>Rock 'n' Roll Grandpa</i>

‘익림 썸머 나잇’의 마지막 밤. 비틀즈를 기억하기 위해 만든 비틀즈 트리뷰트 밴드 타틀즈, 대한민국 원조 국민 가수 윤수일. 그들과 익림지의 마지막 밤을 함께한다.

Uirim Summer Night's last night. Tatles as a Beatles tribute band formed to remember the Beatles. Yoon Su Il in the original national singer. Enjoy the last night at Uirimji with these musicians.



타틀즈 Tatles

비틀즈 트리뷰트 밴드, 타틀즈

비틀즈에 폭 빠진 이들이 모여 만든 밴드 ‘타틀즈’는 비틀즈의 노래를 연주하며 관객들과 만나오고 있다. 수많은 명곡으로 대중들을 열광케 했던 비틀즈를 ‘타틀즈’로 재현해내며 60년대 비틀즈가 바로 앞에서 연주하고 있는 듯한 환상을 심어준다. 연령을 불문하고 사랑받는 비틀즈처럼 타틀즈가 선사할 낭만 가득할 무대를 기대해본다.

Tatles, a Beatles tribute band

Tatles is a band consisting of musicians hooked on the Beatles, and they meet the audience playing Beatles music. Through Tatles, they reenact the Beatles who had the public go wild with their masterpiece music, and they make it seem as if the Beatles from the 60s are playing in front of their eyes. Let's look forward to the stage filled with romance that Tatles will present, just like the Beatles, loved by fans of all ages, did.



윤수일 Yoon Su Il

대한민국의 원조 국민가수, 윤수일

오랜 시간 국민가수로 대중들과 함께해오며 사랑을 노래하고 인생을 노래해온 윤수일은 끊임없이 무대를 통해 관객들과 음악으로 소통해오고 있다. 지금 들어도 세련된 멜로디와 가사는 세월의 깊이가 더해지며 마음 한 켠에 간직해놓은 추억 속 딸림을 가져다 준다.

Yoon Su Il is Korea's original national singer

He has been the national singer to the general public for a long time, singing about love and life, and continues to communicate with the audience on the stage. His sophisticated melody and lyrics are still relevant today, and with time, it adds more depth, presenting a vibration in the well-kept memory in the hearts.

2018 거리의 악사 페스티벌 JIMFF Busker Festival 2018

장소 Venue	메가박스 제천 스테이지, 제천시 문화회관 스테이지, 의림지무대, 제천 시내 일원 Megabox Jecheon Stage, Jecheon City Cultural Center Stage, Uirimji Stage, Jecheon City Area
일시 Date	2018.8.10(금) ~ 8.13(월) 10. Aug(Fri) ~ 13. Aug(Mon), 2018

‘거리의 악사 페스티벌’은 실력 있는 뮤지션을 소개하고, 관객들과 가장 가까운 공간에서 음악을 통해 호흡하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만의 특별한 음악 프로그램이다. 영화와 음악을 한 곳에서 즐기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기간 동안 뮤지션들은 의림지무대, 메가박스 제천 스테이지, 제천시 문화회관 스테이지 등 제천 시내 곳곳을 다양한 음악으로 물들이며 공연을 펼친다. 특히 올해의 거리 악사 페스티벌은 새롭게 선발된 뮤지션 8팀과 함께 2017년도 거리 악사들이 참여하여 더욱 다채로운 무대를 꾸민다.

‘JIMFF Busker Festival’, the so-called Street Musician Festival is a special music program of JIMFF that introduces competent musicians and meet the audience from the closest distance. During the Jecheon International Music Film Festival, where you can enjoy film and music at once, musicians fill various places including Uirimji Stage, Megabox Jecheon Stage and Jecheon City Cultural Center Stage with music through their performances. In particular, this year’s JIMFF Busker Festival has the newly selected eight musicians as well as JIMFF Busker Festival musicians from 2017 participate to make a more colorful stage.

프로그램 Program

의림 스테이지 Uirim Stage

제천의 거리를 축제 분위기로 흥행 직실 2018 거리의 악사들은 물과 바람, 영화와 음악이 있는 ‘의림 썸머 나잇’의 공식 라인업으로 선정되어 무대를 펼친다. 아름다운 의림지의 풍광과 그들의 음악이 만나 관객들에게 한여름 밤의 꿈같은 추억을 선사한다.

JIMFF Busker Festival 2018 musicians who will fill the streets of Jecheon with a festive atmosphere are selected in the official line-up of ‘Uirim Summer Night’ where there is water, wind, film and music. The beautiful landscape of Uirimji and their music will present the audience with a midsummer night’s dream-like memory.

메인 스테이지 Main Stage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메인 상영관인 메가박스 제천 스테이지와 영화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는 제천시 문화회관 스테이지에서 펼쳐지는 공연. 2018 거리의 악사로 선발된 8팀은 두 곳의 메인 스테이지에서 영화제를 찾은 다양한 관객과 시민을 만난다.

Performances that take place in Megabox Jecheon Stage, the main screening theater of JIMFF, and Jecheon City Cultural Center Stage, where you can experience various festival programs. The eight teams selected as JIMFF Busker Festival will meet the festival audiences and citizens at these two main stages.

스트릿 스테이지 Street Stage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프로그램 중 하나인 ‘JIMFF 동네 극장’과 제천의 원도심에 위치한 ‘제천 시민회관’ 등 제천 시내 곳곳을 무대로 삼아 공연을 펼치는 스트릿 스테이지. 올해는 2017 거리의 악사들이 다시 한번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찾아 관객과 함께 무대를 만든다.

Street Stage performances takes place in various places within the city of Jecheon including ‘JIMFF Neighborhood Cinema’, one of JIMFF programs, and Jecheon’s original downtown ‘Jecheon Civic Center’. This year, JIMFF Busker Festival 2017 musicians will find Jecheon again to meet the audience.

참가팀

Participants

김재훈 Kim Jae Hoon

기타 한 대로 자작곡, 팝, 가요 등 다양한 음악을 본인만의 색깔을 담아 어쿠스틱하게 표현한다. 장난스러운 말투와 스윗한 목소리로 관객들을 사로잡는 싱어송라이터.



Just with one guitar, he expresses his own songs, pop, k-pop among other music in an acoustic way with his own color. He is a singer-songwriter that captures the audience with his playful way of speaking and sweet voice.

슈가박스 Sugar Box

달콤한 멜로디와 가사 그리고 반짝 반짝한 감성으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하루를 선사한다. 어쿠스틱과 브라질 음악인 삼바를 슈가박스만의 달콤한 매력으로 표현한다.



Sugar box presents the listener with a happy day through their sweet melodies, lyrics and sparkling sensitivity. They express acoustic music and Brazilian samba in their own sweet manner.

위아영 WeAreYoung

따뜻한 청춘의 이야기를 담은 가사와 어쿠스틱 사운드에 기반으로 한 감미로운 선율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2인조 밴드.



WeAreYoung is a duo singer-songwriter band loved by many for its sweet melody based on acoustic sound with lyrics containing the warm story of youths.

히미츠 HeMeets

팝, 펑크, 왈츠, 재즈, 어쿠스틱까지 다양한 장르를 녹여낸 독특한 음악과 특유의 미스터리한 매력으로 중독을 불러일으키는 팝밴드.



HeMeets is an addictive pop-band that melted various genres including pop, punk, waltz, jazz and acoustic into their own music and unique mysterious charm.

모멘탈레 Momentale

재즈와 R&B를 기반으로 한 음악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가사로 대중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보컬, 베이스, 건반 구성의 3인조 밴드.



The three musicians band with a singer, a bassist and a keyboardist appeals to many people with its music that is based on Jazz and R&B and lyrics that reflects people who are living in modern society.

아인스타운 EINSTOWN

재즈, 팝, 락 요소를 기반으로 한 재기발랄한 사운드와 풍부한 멜로디로 들는 이라면 누구든 무장해제시키는 유쾌함을 가진 트리오 밴드.



EINSTOWN is a trio band that opens every audience mind through their various rhythms and witty sounds based on elements of jazz, pop, and rock.

유애포 You Ae Po

피아노 치며 노래하는 1인 싱어송라이터로 폭발적인 성량과 감각적이고 리드미컬한 피아노 선율로 대중의 귀를 사로잡는다.



One-person singer-songwriter who sings while playing the piano, capturing the ears of the public with its explosive volume and sensible and rhythmical piano melody.

W24 W24

모던락을 기반으로 한 신나는 멜로디와 설렘이 가득한 가사로 관객들과 즐겁게 소통한다. 실력과 비주얼을 모두 겸비한 5인조 밴드.



W24 communicates with the audience with exciting melodies and thrilling lyrics based on modern rock. It's a 5-person band equipped with talent and good-looking appearances.

14th JIMFF MUSIC PROGRAM

쿨나이트

Cool Night

장소 Venue	의림지 파크랜드 Uirimji Parkland
일시 Date	2018.8.10(금)~8.11(토) 23:00 23:00 10. Aug(Fri) - 11. Aug(Sat), 2018

‘쿨나이트’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파티 형식의 심야 공연프로그램으로, 전년도 관객들의 높은 호응으로 확대 운영된다. 시원한 여름 밤 야외 놀이동산인 의림지 파크랜드에서 공간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킬 퍼포먼스 팀의 공연과 디제잉을 통해 관객과 함께 춤추고 노래하며 서로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파티가 펼쳐진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공간 전체가 무대가 되는 이곳에서 당신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다.

‘Cool Night’ is a late night performance program in a form of a party. Since the audience responded very positively last year, it is going to be expanded. Performance teams and DJs that will heighten the unique atmosphere of the outdoors theme park, Uirimji Parkland in the cool summer night will have the audience dance and sing together, breaking the barrier. Only experienced in JIMFF, this event where the whole space becomes a stage will present an unforgettable memory.

첫 번째 밤

1st Night

2018.8.10(금) 23:00 의림지 파크랜드 23:00 10. Aug(Fri), 2018 Uirimji Parkland

공연 Performance 타이거디스코, 이박사 Tiger Disco, Lee Park Sa



타이거디스코 Tiger Disco

다재다능한 매력의 DJ, 타이거디스코

디스코 음악을 기반으로 하는 크루인 East Disco Wav. 소속의 디제이. 오리지널 디스코, 펑크, 이탈로 디스코, 누디스코, 80's Japanese pop을 플레이하며, 디스코 크루 자체 파티, 믹셋작업, SCR과의 협업 등 다양한 곳에서 관객과 소통하고 있다. 최근엔 [대한음반 연구소] 크루의 멤버로 활동하며 옛 한국가요의 아름다움을 전파하며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DJ of versatile charm, Tiger Disco

Tiger Disco is a DJ affiliated with East Disco Wav., a crew based in disco music. Tiger Disco plays original disco with punk, Italo disco, Nu-disco and 80s Japanese pop, and attempts interaction with the audience in various places such as disco crew's party and mix set work as well as collaboration with SCR (Seoul Community Radio). Recently, it became a member of crew [Daehan Records Lab], spreading the beauty of old Korean popular music.



이박사 Lee Park Sa

신바람 메들리의 주인공, 이박사

이보다 더 신바람 날 순 없을 정도로 이박사의 음악은 듣는 이로 하여금 몸을 뒤흔치며 흥을 분출하게 만든다. 중독성 강한 멜로디와 가사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으며, 섬 없는 앨범작업과 음악활동으로 관객들과 만나오고 있다.

Lee Park Sa, known for Sinbaram Medley

There can't be music more exciting than his. Lee Park Sa's music makes the listeners move their bodies and explode with excitement. His addictive melody and lyrics are still loved by many even with time, and he constantly meets his audiences through continuous album releases and music activities.

두 번째 밤

2nd Night

2018.8.11(토) 23:00 의림지 파크랜드 23:00 11. Aug(Sat), 2018 Uirimji Parkland

공연 Performance 타이거디스코, 불나방스타쏘세지클럽 Tiger Disco, Bulnabang Star Sausage Club



타이거디스코 Tiger Disco

다재다능한 매력의 DJ, 타이거디스코

디스코 음악을 기반으로 하는 크루인 East Disco Wav. 소속의 디제이. 오리지널 디스코, 펑크, 이탈로 디스코, 누디스코, 80's Japanese pop을 플레이하며, 디스코 크루 자체 파티, 믹셋작업, SCR과의 협업 등 다양한 곳에서 관객과 소통하고 있다. 최근엔 [대한음반 연구소] 크루의 멤버로 활동하며 옛 한국가요의 아름다움을 전파하며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DJ of versatile charm, Tiger Disco

Tiger Disco is a DJ affiliated with East Disco Wav., a crew based in disco music. Tiger Disco plays original disco with punk, Italo disco, Nu-disco and 80s Japanese pop, and attempts interaction with the audience in various places such as disco crew's party and mix set work as well as collaboration with SCR (Seoul Community Radio). Recently, it became a member of crew [Daehan Records Lab], spreading the beauty of old Korean popular music.



불나방스타쏘세지클럽 Bulnabang Star Sausage Club

신파와 정열의 느와르 마초 밴드, 불나방스타쏘세지클럽

라틴 음악에 뿌리를 둔 그들의 음악은 펑크, 뽕짝, 판소리 등 다양한 장르를 결합하며 그들만의 독창적인 음악스타일로 많은 이들에게 각인되어왔다. 시크한 듯 처연한 듯한 우리네 인생 이야기로 가득 담긴 그들의 음악은 우리에게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Bulnabang Star Sausage Club, a noir macho band of melodrama and passion

With roots on Latin music, they encompass various genres including punk, Korean-trot and pansori. They have been recognized for their unique music style by many. Their music sing about the story of our lives in a chic and simple way, creating much sympathy.

제천 라이브 초이스

Jecheon Live Choice

장소 Venue	제천시 문화회관 Jecheon City Cultural Center
일시 Date	2018.8.10(금) ~ 8.13(월) 17:00 17:00 10. Aug(Fri) - 13. Aug(Mon), 2018

‘제천 라이브 초이스’는 영화와 음악을 한 장소에서 동시에 즐길 수 있는 JIMFF만의 특성이 강화된 프로그램으로 관객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보일 예정이며 올해는 4회차로 확장하여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영화제를 찾는 관객에게 다가간다. ‘제천 라이브 초이스’는 영화 뮤지션의 공연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를 통해 게스트와 관객이 질문을 주고 받으며 소통하는 토크 프로그램인 ‘말하다’와 다양한 음악적 장르가 결합된 실력파 보컬리스트와 팬덤이 함께 소통하는 공연 프로그램인 ‘만나다’로 진행된다. 한층 더 풍성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통해 영화제를 찾는 관객과 출연진 사이에 더욱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Jecheon Live Choice’ is a program with strengthened JIMFF characteristics in which you can enjoy both film and music in the same place at the same time. This year marks its fourth year and presents the audience with something different. ‘Jecheon Live Choice’ not only has performances from film musicians, but also has a talk program ‘Talk’, a QNA session with guests and audiences covering various subjects, and a performance program ‘Meet’, an interaction between various music genres competent vocalists and fandom. ‘Jecheon Live Choice’, equipped with a more various and full program, will be a time where the festival audience and guests/performers can communicate closer.

제천 라이브 초이스 Jecheon Live Choice

말하다

Talk

2018.8.10(금) ~ 8.11(토) 17:00 제천시 문화회관

17:00 10. Aug(Fri) - 11. Aug(Sat), 2018 Jecheon City Cultural Center

공연 Performance	2018.8.10(금) 김소이, 송다은, 닉앤쌔미
	2018.8.11(토) 김태훈, 최고은
	10. Aug(Fri), 2018 KIM SOY, SONG DA EUN, Nick & Sammy 11. Aug(Sat), 2018 KIM TAE HOON, CHOI GONNE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출연진과 관객이 함께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소통의 시간이 마련되며, 뮤지션의 라이브 공연도 함께 즐길 수 있다.

Guests and audiences think and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covering various subjects. Enjoy live performances from musicians as well.

**김소이 KIM SOY**

<프랑스 영화차림>에서 스티븐 연과 함께 하며 배우로서의 능력을 재조명 받기 시작했으며, 최근 <폭력의 씨앗>이 2017년 전주국제영화제 한국 경쟁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뛰어난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뮤지션과 작가로서의 활동들을 잠시 내려두고, 배우 김소이로 관객에게 다가갈 예정이다.

Kim Soy's appearance in the film *Like a French Film* with Steven Yeon shed new light on her talent as an actor, and her acting was acclaimed for the film *The Seeds of Violence*, the winner of Grand Prize in the Korean Film Competition Sector at the 2017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For 'Jecheon Live Choice', she approaches the audiences as an actress, holding her other identity as a musician or an author behind.

**송다은 SONG DA EUN**

청춘남녀들의 짜릿한 동거를 그린 [하트시그널 시즌 2]에 출연해 털털한 성격과 밝은 매력으로 송다은만의 치명적인 매력을 드러내며 보기만 해도 미소 짓게 만드는 달달함을 선사했다. 웹드라마 광고 등 러브콜을 받으며 '라이징 스타'로 주목 받고 있는 송다은의 다양한 매력을 엿볼 수 있다.

Song Da Eun showed her sweet and attractive character that makes everybody smile well through the reality dating show [The Heart Signal Season 2]. She was easy-going and cheerful. The audiences can meet charming Song Da Eun who is a rising star, receives attention from web dramas and commercials.

**닉앤쌔미 Nick & Sammy**

국내 최고 작곡가 김형석이 발굴한 팝 싱어송라이터 듀오 닉앤쌔미(Nick & Sammy)는 미국과 호주 출신의 멤버로 구성되어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물론 셀프 프로듀싱으로 앨범을 완성하는 실력파 뮤지션이다. 닉앤쌔미만의 스타일리쉬한 모던팝의 중독성 강한 멜로디로 '제천 라이브 초이스'를 찾는 관객의 귀를 사로잡는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다.

Nick & Sammy is a pop singer-songwriting duo unearthed by one of Korea's best songwriter Kim Hyeon-seok. The duo doesn't only play instruments themselves, but produce their own music. Nick & Sammy will capture the audiences of 'Jecheon Live Choice' through their appealing melody of stylish modern pop.

**김태훈 KIM TAE HOON**

팝 칼럼니스트 김태훈, 그는 본업보다 재치 넘치는 입담을 자랑하는 방송인으로 더 유명하다. 방대하면서도 날카로운 지식을 바탕으로 다진 자신의 '눈'으로 사회와 문화를 바라보는 김태훈은 팝 칼럼니스트, 방송인으로 활동하며 특유의 화려한 입담과 해박한 지식으로 대중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왔다. 섬세하면서도 깔끔한 진행으로 관객과 소통할 김태훈을 '제천 라이브 초이스'에서 만날 수 있다.

Pop columnist Kim Tae Hoon is better known as a TV personality with witty words. He has his own perspective toward the society and culture based on sharp knowledge on vast subjects, and he has been presenting the people with pleasure through his unique wit and comprehensive knowledge. Meet Kim Tae Hoon in 'Jecheon Live Choice', where he will interact with the audience with his delicate and smart way of emceeing.

**최고은 CHOI GONNE**

가야금 병창으로 판소리를 시작해 통기타를 치는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최고은은 2010년 EP앨범 [36°C]로 데뷔하여 매력적인 목소리로 사랑 받고 있다. 2014년, 2015년 2회 연속 영국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 무대의 공식 초청을 받아 한국 뮤지션 최초로 공연하여 큰 주목을 받았다. 재즈와 포크의 경계를 넘나들며 최고은만의 몽환적이고 확실한 음색으로 관객과 소통하며 섬세한 울림을 전달할 예정이다.

Choi Gon-ne is singer-songwriter that plays the acoustic guitar, but started with pansori, singing along a gayageum. She made her debut in 2010 with her EP album [36°C] and is loved for her charming voice. She was officially invited in 2014 and 2015 to UK Glastonbury Festival to perform as the first Korea musician at the festival. Choi Gon-ne breaks the barrier of jazz and folk to create her own dreamy and certain voice color. She will interact with the audience and deliver a subtle vibration.

만나다 MEET

2018.8.12(일) ~ 8.13(월) 17:00 제천시 문화회관

17:00 12. Aug(Sun) - 13. Aug(Mon), 2018 Jecheon City Cultural Center

공연 Performance	2018.8.12(일) 우정훈, 박요셉 2018.8.13(월) EXP EDITION 12. Aug(Sun), 2018 WOO JUNG HOON, PARK JOSEPH 13. Aug(Mon), 2018 EXP EDITION
상영작 Screening	2018.8.12(일) <이차크의 행복한 바이올린> 2018.8.13(월) <아메리칸 포크> 12. Aug(Sun), 2018 Itzhak 13. Aug(Mon), 2018 American Folk

다양한 장르의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뮤지션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고,
뮤지션의 라이브 공연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Meet' is a program where you watch films with musicians
from various genres and enjoy their live performances.



우정훈 WOO JUNG HOON

미국 맨하탄 음대를 졸업한 우정훈은 KBS [영작스캔들], [열린음악회], [유희열의 스케치북], SBS [김정은의 초콜릿] 등 다수의 방송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JTBC [팬텀싱어]에 출연하여 부드러운 음색을 통해 한국의 조쉬 그로반이란 애칭을 얻기도 했다. 그의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싸주는 따스한 음색을 가지고 있어 노래에 빠져 들어 위로 받는 팬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이바리톤의 감미로운 목소리를 통해 관객에게 감명 깊은 무대를 선사 할 예정이다.

Woo Jung Hoon graduated from US Manhattan School of Music and made appearances in KBS program [Masterpiece Scandal], [Open Concert], [You Hee-yeol's Sketchbook] and SBS program [Kim Jung-eun's Chocolate]. Recently, he got the nickname 'Korea's Josh Groban' with his soft voice after appearing in JTBC program [Phantom Singer]. There are more and more fans hooked to his songs with his warm voice color embracing the listeners, consoling their hearts. His high baritone sweet voice will present the audience with an impressive stage.



박요셉 PARK JOSEPH

경희대 성악과 졸업 후 JTBC [팬텀싱어]에 출연한 박요셉은 꾸밈없는 순수 베이스 바리톤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진심을 담아 부르는 박요셉의 진지한 목소리에서 전달되는 잔잔한 감동을 '제천 라이브 초이스'에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순수한 마음만큼 깨끗한 음색을 지닌 박요셉의 보이스와 다채로운 선곡을 마음껏 감상해 보자.

After graduating from Department of Voice, Kyunghee University, Park Joseph made an appearance in JTBC program [Phantom Singer] and captured the viewers' hearts with his natural and pure base baritone. You will be moved by the subtle emotion delivered through his serious voice at 'Jecheon Live Choice'. Enjoy Park Joseph's voice color as clear as his pure hearth as well as the colorful choice of songs.



EXP EDITION EXP EDITION

케이팝을 사랑하는 끼 넘치는 청년들이 한국에 왔다! 국제 K-STAR어워즈 해외 아티스트상을 수상한 4인조 그룹 EXP EDITION은 미국에서의 첫 데뷔와 동시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며 뉴욕 미술계와 전 세계 케이팝 언론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멤버 SIME(시메)는 JTBC [팬텀싱어2] 최종 결선 16인에 진출했을 뿐만 아니라 KBS [불후의 명곡] 준우승까지 거머쥔 엄청난 실력파이다.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로 강렬함과 신선한 충격을 선사하며 관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화려한 무대를 기대해 보자.

Talented youths with a love of K-pop came to Korea! EXP EDITION, a group of four that won the Overseas Artist Award at the International K-Star Awards, created a huge sensation with their debut among the New York art industry and K-pop media all around the world. Member SIME did not only make it to the top 16 in JTBC program [Phantom Singer 2], but also came in second in KBS program [Immortal Masterpiece]. Let us look forward to the splendid stage that will capture the audience's eyes and ears with their charismatic stage, power and fresh shock.

14th JIMFF

SPECIAL

PROGRAM

JIMFF 특별 프로그램

2018 제천아시아영화음악상

Jecheon Asia Film Music Honorary Award 2018

교육·학술 프로그램 Education & Academic Program

- 제13기 제천영화음악아카데미
The 13th Jecheon International Music & Film Academy
- JIMFF 포럼 JIMFF Forum

JIMFF 특별 상영 JIMFF Special Screening

- JIMFF 동네 극장 JIMFF Neighborhood Cinema
- 쿨시네마 Cool Cinema
- 팝업 시네마 Pop-up Cinema
- 푸른 밤 시네마 Blue Night Cinema
- 음악 들려주는 영화관 Music Theater

전시·체험 프로그램 Exhibition & Experience Program

- 영화관 옆 미술관 Cinema Art Gallery
- 미술관 옆 작업실 Cinema Atelier

이벤트 Event

- 만나서비스 Manna Service

2018 제천아시아영화음악상

Jecheon Asia Film Music Honorary Award 2018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의 영화음악 분야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영화 음악가들에게 제천국제음악영화상을 수여해왔다. 이미 고인이 되신 산병하, 최창권, 정성조 음악감독을 비롯해 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성우, 이동준, 한재권 등 모두 11명의 영화 음악가가 이 상을 수상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 수상자의 범위를 아시아로 넓힌 제천아시아영화음악상은 첫 번째 수상자로 일본의 영화음악가 카와이 켄지를 선정했으며, 올해 두 번째 수상자로 중국의 음악가 탄둔을 선정했다.

세계적인 작곡가 겸 지휘자이자 유네스코 홍보대사인 탄둔은 클래식 음악뿐만 아니라 멀티미디어 퍼포먼스는 물론, 동서양 전통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독창적인 작업으로 음악계에 큰 획을 그었다. 탄둔은 영화 <와호장룡>, <영웅: 천하의 시작>, <야연>으로 이어지는 무협 3부작의 음악을 맡았으며 <와호장룡>으로 2000년 아카데미시상식에서 음악상을, 2001년 그래미어워드 최우수 앨범 영화음악부분을 수상했다. 그 외에도 그로마이어 클래식 작곡상(1998), 독일 함부르크에서 4년마다 뛰어난 음악가에게 수여하는 바흐상(2011), 중국 음악가로는 최초로 쇼스타코비치상(2012)을 수상했다. 또한 지난해 베니스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 평생공로상을 수상한 그의 음악은 유명 오케스트라, 오페라 하우스, 국제 페스티벌 등에서 연주되었고 라디오 및 TV를 통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The film music composers who left significant marks in the Korean film music industry had been awarded Jecheon Film Music Honorary Award by Jecheon International Music and Film Festival since 2006 to 2016. All 11 film music composers were awarded, such as Shin Byung-ha, Choi Chang-kwon, Jeong Seong-jo who are active in the realm of film music industry. Last year, Jecheon Film Music Honorary Award broadened its horizons to Asia and became the Jecheon Asia Film Music Award. Following last year's winner, Kawai Kenji, the master of Japanese film music, this year's award celebrates of Chinese composer and conductor, Tan Dun.

The world-renowned artist and UNESCO Global Goodwill Ambassador Tan Dun has made an indelible mark on the world's music scene with a creative repertoire that spans the boundaries of classical music, multimedia performance, and Eastern and Western traditions. Tan Dun composed film music soundtrack of 'Martial Arts Trilogy' including *Crouching Tiger, Hidden Dragon*, *Hero*, *The Banquet*. *Crouching Tiger, Hidden Dragon* won him the Academy Award for Best Original Score in 2000 and the Grammy Award for Best Soundtrack in 2001. Other honors include the Grawemeyer Award, Bach Prize of the City of Hamburg, Shostakovich Award, and most recently Italy's Golden Lion Award for Lifetime Achievement. Tan Dun's music has been played throughout the world by leading orchestras, opera houses, international festivals, and on radio and television.

제13기 제천영화음악아카데미

The 13th Jecheon International Music & Film Academy

장소 Venue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 세명대학교 등 Jecheon Media Center BOM, Semyung University, etc.
기간 Period	2018.8.9(목) ~ 8.15(수) [총 6박 7일] 9. Aug(Thu) - 15. Aug(Wed), 2018 [7 days and 6 nights]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 2006년부터 진행해 온 제천영화음악아카데미(JIMFA)는 국내외 최고의 영화음악감독들의 강의를 듣고 영화음악을 제작해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해 왔다. 수준 높은 강의와 조별 실습 및 멘토링은 영화음악전문가를 꿈꾸는 수강생들에게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2012년부터 아카데미 우수 수강생을 선발하여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중에 열리는 아시아영화아카데미(AFA)의 참가 기회를 제공한다. 제13기 JIMFA는 2018년 8월 9일(목)부터 2018년 8월 15일(수)까지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수강생들에게는 숙소와 함께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개폐막식, 음악공연 등 모든 행사 참여와 영화 관람이 가능한 ID카드가 제공된다.

JIMFF conducts Jecheon International Music & Film Academy(JIMFA), which has been providing special opportunity to make film music after attending lectures of best domestic and overseas music directors since 2006. High quality of lecture, group practice and mentoring programs will signpost and help to make practical direction to students who want to be professions of film music. Since 2012, JIMFA has provided an opportunity for selected excellent students to participate in Asia Film Academy(AFA), held in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The 13th JIMFA will be proceed on 7 days and 6 nights excursions, 9. Aug(Thu) - 15. Aug(Wed), 2018 All of the students will be provided with accommodations and ID card which allows admission of every festivity and movie of JIMFF, including the opening and closing ceremony and performance shows for the festival.

JIMFF 포럼

JIMFF Forum

인도 영화 속 음악의 뿌리와 가지

인도 영화에 음악과 춤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홍콩 영화의 무술처럼, 음악과 춤은 인도 영화만의 트레이드 마크다. 노래를 시각화하는 인도 영화의 기술은, 음악, 안무, 촬영, 편집 기술을 총망라하는 종합예술이다. 이번 포럼은 인도 영화에서 음악과 춤이 가진 의미를 그 전통과 다양성을 통해 알아봄으로써 인도 영화를 더 폭넓게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The Flowering Tree of Indian Cinema's Song and Dance

Why does Indian cinema have all those songs and dances? Song and dance are the USP (unique selling proposition) of Indian cinema, just as martial arts is for Hong Kong cinema. The art of Indian song picturisation simultaneously combines the arts of poetry, music, choreography, cinematography and editing. This forum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explore the tradition and variety of Indian cinema's song and dance and understand why it is so beautiful.

장소 Venue	메가박스 제천 5단 Megabox Jecheon 5
일시 Date	2018.8.12(일) 15:30 15:30 12. Aug(Sun), 2018
강연자 Lecturer	미낙시 셰데 / 영화 평론가, JIMFF 2018 '주제와 변주 - 인도 음악영화, 그 천 개의 얼굴' 객원자문 Meenakshi Shedde / Film Critic, Guest Consultant to 'Theme & Variations - Thousand Faces of Indian Music and Film'
토론자 Panelist	이옥순 / 인도문화연구원 원장 Lee Ock-soon / Director of the Institute of Indian Cultural Studies
주최·주관 Host Organizer	제천국제음악영화제 Jecheon International Music & Film Festival

JIMFF 동네 극장

JIMFF Neighborhood Cinema

‘JIMFF 동네 극장’은 틀에 박힌 상영관이 아닌 색다른 장소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프로그램이다. 영화제를 찾는 관객들에게 낯선 공간에서 영화를 보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제천 시민들의 영화 관람 기회를 확대하는 JIMFF만의 특색 있는 프로젝트다. 올해 JIMFF 동네 극장에서는 2017년 제천 전역을 뜨겁게 달구었던 2017 거리의 악사 페스티벌 참가팀들의 공연이 함께 진행되어 제천국제음악영화제만의 고유한 분위기를 한층 더 강화시킬 것이다.

‘JIMFF Neighborhood Cinema’ brings film screenings to unconventional venues. It is a unique JIMFF program that presents the festival audiences with a special experience of watching movies at unfamiliar places and expands accessibility to films for Jecheon citizens. This year's JIMFF Neighborhood Cinema will include performances of JIMFF Busker Festival 2017 participants who heated up the whole Jecheon area in 2017 to spice up the unique atmosphere of JIMFF.

프로그램 일정 Program Schedule

일시 Date	장소 Venue
2018.8.10(금) 19:30 10. Aug(Fri), 2018	왕바위공원 Wangbawee Park
2018.8.11(토) 19:30 11. Aug(Sat), 2018	신백아동복지관 Shinbaek Children's Community Center
2018.8.13(월) 19:30 13. Aug(Mon), 2018	살레시오의 집 House of Salesio

※ 상기 일정은 사무국 일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The schedule may be changed depending on the situation.

쿨시네마

Cool Cinema

장소 Venue	제천시 문화회관 Jecheon City Cultural Center
일시 Date	2018.8.10(금) ~ 8.13(월) 10. Aug(Fri) - 13. Aug(Mon), 2018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는 입장료도 필요 없고 예매도 필요 없는 작고 시원한 컨테이너 상영관이 있다. ‘쿨시네마’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찾아주신 관객들이 더위를 피해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마련한 특별 상영관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상영할 예정이다.

Jecheon International Music & Film Festival has a small but cool container theater. No needs to pay or make a reservation. Jecheon International Music & Film Festival provides a small but special theater with an air conditioner so that audiences can take a break, avoiding the hot summer heat. ‘Cool Cinema’ shows various contents.

팝업 시네마
Pop-up Cinema

장소 Venue	제천시내 전역 Jecheon City Area
일시 Date	2018.8.10(금) ~ 8.13(월) 10. Aug(Fri) - 13. Aug(Mon), 2018

‘팝업 시네마’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특별 프로그램 중 하나로 관객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는 게릴라 형태의 상영 프로그램이다.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행운처럼 만날 수 있는 ‘팝업 시네마’는 영화제 단편작과 뮤직비디오 상영을 통해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킬 것이며, 영화제를 찾은 관객들에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것이다.

‘Pop-up Cinema’ is a special program of JIMFF, a guerrilla-form screening that goes to where the audiences are gathered. You can run into the ‘Pop-up Cinema’ unexpectedly like good luck, which will heighten the JIMFF atmosphere with its short film and music video screening. It will provide a short break to the audiences.

푸른 밤 시네마 - 제천시민공원
Blue Night Cinema - Jecheon Citizen Park

장소 Venue	제천시민공원 Jecheon Citizen Park
일시 Date	2018.8.10(금) ~ 8.13(월) 20:00 20:00 10. Aug(Fri) - 13. Aug(Mon), 2018

도심 속 푸른 나무로 둘러싸인 제천시민공원에서 진행되는 야외상영 프로그램인 ‘푸른 밤 시네마’가 올해 처음으로 관객들을 찾아간다. 제천시민공원은 2017년도 JIMFF 동네 극장을 통해 제천시민의 큰 호응을 받았던 공간으로 올해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상영작을 상영하여 음악영화제의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킨다. 여름 밤의 시원한 바람과 낭만이 함께하는 JIMFF만의 매력적인 프로그램 ‘푸른 밤 시네마’는 영화제를 찾은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

‘Blue Night Cinema’ greets the audience for the first time this year. It is an outdoor screening program that takes place at Jecheon Citizen Park surrounded by green trees in city center. Jecheon Citizen Park was highly popular among Jecheon citizens as the venue for JIMFF Neighborhood Cinema in 2017. This year, it will be the venue to screen films from JIMFF to further elevate the music & film festival atmosphere. ‘Blue Night Cinema’ will be a charming JIMFF program encompassing the cool summer breeze and romance, presenting an unforgettable memory to the festival audiences.

푸른 밤 시네마 상영 일정 Blue Night Cinema Screening Schedule

일시 Date	상영작 Screening
2018.8.10(금) 20:00 20:00 10. Aug(Fri), 2018	<Fiction & Other Realities> <i>Fiction & Other Realities</i>
2018.8.11(토) 20:00 20:00 11. Aug(Sat), 2018	<대관람차> <i>The Goose Goes South</i>
2018.8.12(일) 20:00 20:00 12. Aug(Sun), 2018	<시네 심포니 단편 2> <i>Cine Symphony Shorts 2</i>
2018.8.13(월) 20:00 20:00 13. Aug(Mon), 2018	<수퍼 디스코> <i>Super Disco</i>

음악 들려주는 영화관
Music Theater

장소 Venue	제천시 문화회관 Jecheon City Cultural Center
일시 Date	2018.8.10(금) ~ 8.12(일) 10. Aug(Fri) - 12. Aug(Sun), 2018

‘음악 들려주는 영화관’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상영작 속 음악을 라이브 연주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신설된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감독 겸 주연배우로 첫 장편영화를 완성한 뮤지션 빅 포니와 ‘노브레인’ 황현성의 <Fiction & Other Realities>, 영화 상영과 동시에 공연이 진행되는 <울림>, <보이지 않는 도시>, <봄날> 그리고 음악감독 겸 주연 스노우와 그룹 ‘더 자두’ 출신 배우 강두가 함께하는 <대관람차> 등을 공연과 만나볼 수 있다. 음악영화제만의 장점을 살려 라이브 공연과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하는 이 행사는 영화제를 찾는 관객들로 하여금 영화 속 음악을 더 가까이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Music Theater’ is our new program where the audience can listen to live music featured in JIMFF selected films. This year’s program includes *Fiction & Other Realities*, performed by musician Bobby Choy who completed his debut feature film as director and Hwang Hyun-sung, lead actor and band ‘Nobrain’ member. Moreover, screening of the film *Résonances*, *Invisible Cities*, and *A Spring Day* will have the performance and screening at one time. *The Goose Goes South* will be screened with live music presented by Snow, music director of the film and co-star, and Kang Doo, singer-turned-actor from K-pop duo named The Jadu. This program, making the most of a music film festival by combining live music and interaction with the audience, will bring the music in the films closer to the audience and give the audience a chance to engage in conversations with the artists.

음악 들려주는 영화관 상영 일정 Music Theater Screening Schedule

일시 Date	상영작 Screening	공연자 Musician
2018.8.10(금) 13:30 13:30 10. Aug(Fri), 2018	<대관람차> 백재호, 이희섭 <i>The Goose Goes South</i> Baek Jae-ho, Lee Hee-seop	스노우, 강두 Snow, Kang Doo
2018.8.11(토) 13:30 13:30 11. Aug(Sat), 2018	<Fiction & Other Realities> 빅 포니 <i>Fiction & Other Realities</i> Bobby Choy	빅 포니, 황현성 (노브레인) Bobby Choy, Hwang Hyun-sung (NoBrain)
2018.8.12(일) 13:30 13:30 12. Aug(Sun), 2018	<보이지 않는 도시> + <봄날> 오재형 <울림> 장쥘리앙 푸스 <i>Invisible Cities + A Spring Day</i> Oh Jae-hyeong <i>Résonances</i> Jean-Julien Pous	로익 장드리, 오재형 Loic Gendry, Oh Jae-hyeong

영화관 옆 미술관
Cinema Art Gallery

<광합성: 그림과 영화의 융합 작용>

<Photosynthesis: Chemistry between Film and Artwork>

장소 Venue	제천시 문화회관 Jecheon City Cultural Center
일시 Date	2018.8.10(금) ~ 8.13(월) 10. Aug (Fri) - 13. Aug (Mon), 2018
참여 작가 Participating Artists	안소현 AHN SO HYUN 인스타그램 Instagram @ssohart 머레이 mareykrap 인스타그램 Instagram @mareykrap

일상에서 벗어나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 경험하는 광합성 시간!

식물이 빛을 이용하여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것처럼, 음악영화의 인상적인 장면들을 일러스트로 표현한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올해 상영작 중 작가가 선정한 영화를 일러스트와 회화 작품으로 새롭게 재해석하고, 전시를 통해 관객들에게 자연 속 휴식처를 제공한다. 올해 ‘영화관 옆 미술관’은 일상 속 안전한 시간을 그리는 안소현 작가와 감각적인 일러스트레이션을 선보이는 머레이 작가와 함께 특별한 광합성을 구현한다.

Have ‘Photosynthesis’ experience in Jecheon International Music & Film Festival, a break from routine!

As plants convert light into nutrient for themselves, artists transform memorable moments of music films into illustrations. Two artists reinterpret the films, had been chosen by themselves among 14th JIMFF’s films, into illustrations and artworks. At the same time the exhibition provides a place to take a break in nature. This year ‘Cinema Art Gallery’ creates the special ‘Photosynthesis’ with AHN SO HYUN, who depicts peaceful moments of the everyday life, and marey, who produces sensuous illustrations.

미술관 옆 작업실
Cinema Atelier

소확행: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Small but Sure Pleasure!

장소 Venue	제천시 문화회관 Jecheon City Cultural Center
일시 Date	2018.8.10(금) ~ 8.13(월) 10. Aug(Fri) - 13. Aug(Mon), 2018

2018년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는 나만의 물건을 직접 만드는 DIY(Do It Yourself) 콘셉트를 가지고 ‘미술관 옆 작업실’을 운영한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관객들에게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제공하고, ‘힐링 영화제’, ‘휴양 영화제’라는 키워드에 맞게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나만의 특별한 디자인으로 직접 제작하는 ‘북바인딩’과 ‘실팔찌 만들기’, 그리고 일회용 컵을 재활용한 ‘미니 테라리움’을 선보인다.

In 2018 Jecheon International Music & Film Festival runs ‘Cinema Atelier’, with DIY (Do It Yourself) spirit, ‘you can make your own belongings’. The various programs provide eco-friendly ‘small but sure pleasure’, so the audiences can have relaxing time, which well matched with the JIMFF’s keywords, ‘The Healing Film Festival’, ‘The Film Festival for Vacation.’ The classes are ‘Book Binding’, and ‘Making Thread Bracelets’, designing audiences own, and ‘Mini Terrarium’, recycling disposable cups.

만나서비스
Manna Service

‘물 만난 영화, 바람난 음악’에 재미난 놀이를 더하다!

한여름,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찾아온 관객들에게 색다른 재미와 특별한 추억거리를 제공합니다. 화려한 온라인 게임은 잠시 접어두고 어릴 적 그 시절로 돌아가 동네 골목에서, 친구 집 방에서 삼삼오오 모여 하던 소소한 놀이를 즐겨보세요.

‘Cinema on the Lake, Music in the Wind’ and some more fun!

A different kind of fun and special experiences await the festival-goers of mid-summer JIMFF. Put the online games down for a moment and go back to playing simple games with friends in the village alleys or indoors as when you were a kid.

※ ‘만나서비스’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자원활동가의 명칭이며, 영화제 전역에서 활동합니다.

※ ‘Manna Service’ is the name of the volunteers helping out the process of the events and you can find them all over the festival venues.

짐프랜드 JIMFF-LAND

짐프랜드(JIMFF-LAND)의 4개의 섬을 점령한 후크선장과 그 일당들! 피터팬과 팅커벨이 되어 후크선장이 만들어 놓은 4개의 함정을 통과한 뒤, 빼앗긴 보물과 짐프랜드(JIMFF-LAND)를 되찾고 특별한 선물을 만나보세요.

Captain Hook and his troop capture four islands in JIMFF-LAND! Please be Tinkerbell and Peter Pan, escape from Captain Hook’s four traps, and retrieve stolen treasure and JIMFF-LAND, then you can have some special gifts.

장소 Venue	제천시 문화회관 Jecheon City Cultural Center
일시 Date	2018.8.10(금) ~ 8.13(월) 10. Aug(Fri) - 13. Aug(Mon), 2018
내용 Details	흑~던져봐 - 에어볼을 던져 후크선장 무찌르기 Hoy- Throw - Defeat Captain Hook with Air Balls 흑~걸어봐 - 큰 링을 던져 후크선장이 점령한 섬 되찾기 Hoy- Hang - Take the Islands back with Big Hoops 흑~굴라봐 - 상자 속 후크선장이 숨겨둔 보물 찾기 Hoy- Pick - Hunt for Hidden Treasure by Captain Hook 흑~맞춰봐 - 현상수배된 후크선장의 얼굴 맞추기 Hoy- Fit - Match with a WANTED Captain Hook * 함정을 통과하며 스탬프 쿠폰에 도장을 채우면 보물을 드립니다. * You can have a treasure with stamped coupons after escaping from the traps.

무대에서 만나 See You Manna on Stage

메가박스 제천과 제천시 문화회관에서는 거리의 악사가 펼치는 공연뿐 아니라 관객과 만나서비스가 모여 OX 퀴즈와 이구동성 게임을 진행합니다. 1명의 승자에게 특별한 선물을, 그리고 참여한 모두에게 소정의 선물을 증정합니다!

Enjoy not only JIMFF Busker's performances but also play OX quiz and the other games with Manna Service at Megabox Jecheon and Jecheon City Cultural Center Stage. The winner gets a special prize. All participants get a small gift.

장소 Venue	메가박스 제천 스테이지 Megabox Jecheon Stage	제천시 문화회관 스테이지 Jecheon City Cultural Center Stage
일시 Date	2018.8.10(금) ~ 8.13(월) 17:00 17:00 10. Aug(Fri) - 13. Aug(Mon), 2018	2018.8.10(금) ~ 8.13(월) 11:30 11:30 10. Aug(Fri) - 13. Aug(Mon), 2018

* 현장 상황에 따라 이벤트 시간이 변경/취소 될 수 있습니다.

* The events may be changed or cancelled depending on the situation.

만나면 이벤트 Meet the Manna Ev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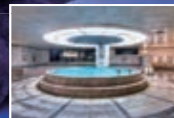
장소 Venue	만나서비스를 만나는 그 곳 Wherever you meet a Manna Service
일시 Date	2018.8.10(금) ~ 8.13(월) 10. Aug(Fri) - 13. Aug(Mon), 2018

만나서비스를 만나라! 영화제 전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만날 수 있는 만나서비스! 만나서비스를 만나면 반갑다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반가운 인사에 보답하는 만나서비스와의 즐거운 이벤트 한번! 기대하세요~!

Meet the Manna Service! You will run into Manna Service all over the festival venues! When you meet Manna Service, say "Glad to meet you!" As a thank you, Manna Service will treat you with funny events.

맑은 바람과 밝은 달 청풍명월의 자연을 고스란히 담은 호반의 휴양지 청풍리조트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공식 지정 호텔



기업 행사에서 가족 행사까지 규모와 예산에 맞는 만족스러운 행사진행을 약속 드리며, 최대 1,000명까지 이용 하실 수 있는 다양한 규모의 행사장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레이크 호텔 180실과 2016년 8월 그랜드 오픈한 콘도형 힐 하우스 50실로 편안한 여행의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청풍리조트 숙박 이용시 국민연금 가입자(20~40%) 및
수급권자(30~70%)의 객실 할인 혜택을 제공 합니다.”



청풍리조트
CHEONG PUNG RESORT

호텔 문의 : 043)640-7000 / 단체 문의 : 043)640-7006
www.cheongpungresort.co.kr

숙박 패키지 프로그램

바람불어 좋은 밤

‘바람불어 좋은 밤’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편안하고 여유롭게 만끽할 수 있는 원스톱 숙박 패키지 프로그램입니다. 본 프로그램에는 숙소와 티켓(영화 또는 원 썸머 나잇 프로그램 중 택 1)을 포함하여 ‘바밤’ 관객만을 위한 조식 서비스와 생일파티 등 재미있는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늦은 밤 간식과 함께하는 미니 영화 상영회 ‘바밤Bar’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바람불어 좋은 밤’에서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색다른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운영기간	2018.8.10(금) ~ 8.14(화) [총 4박 5일]	
신청기간	2018.7.19(목) 14:00 ~ 7.20(금) 18:00	
신청방법	홈페이지(www.jimff.org) 가입 후 ‘바람불어 좋은 밤’ 페이지에서 신청	
프로그램 (1인 기준)	영화코스	숙소 + 영화 티켓(1박 2매) + 바밤 패키지
	공연코스	숙소 + 원 썸머 나잇 티켓(1박 1매) + 바밤 패키지
	이벤트(코스 공통)	조식 이벤트 ‘바람불어 좋은 밤’ 관객 한정 선착순 조식 제공 생일 이벤트 숙박 기간 중 생일을 맞은 관객 대상 축하 이벤트 바밤Bar 간식과 함께하는 심야 미니 영화 상영회(별도 신청) * 이 외에도 현장에서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숙소 및 신청 인원	세명대학교 기숙사	1인부터 6인까지 신청 가능
	청풍리조트레이크호텔	2인만 신청 가능
문의	전화번호 02-925-2242(내선 3번 미디어사업실 ‘바람불어 좋은 밤’ 담당자) 이메일 tour@jimff.org	

- ※ 상세한 안내사항은 홈페이지(www.jimff.org)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바람불어 좋은 밤’은 선착순 신청으로 운영되며 신청 이후에는 코스 변동이 불가합니다.
- ※ 영화코스 신청 시 온라인과 현장 예매가 모두 가능한 예매인증번호를 발급해 드립니다.
(예매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홈페이지 내 바람불어 좋은 밤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 및 결제 확인, 예매인증번호는 홈페이지 내 [마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영화제 측에서는 부정한 거래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지거나 보상하지 않습니다.

JIMFF ACCOMMODATION PACKAGE PROGRAM

Summer Night Breeze

‘Summer Night Breeze’ is a one-stop accommodations package designed for enjoying JIMFF comfortably. The package includes accommodation, tickets(Movie tickets or One Summer Night ticket), breakfast service, birthday party, and other fun events. It also offers ‘Babam Bar’, a late-night mini screening with snacks. Welcome to Summer Night Breeze and make special memories together.

Operation Period	10. Aug(Fri) - 14. Aug(Tue), 2018 [4 nights and 5 days]	
Application Period	14:00 19. July(Thu) - 18:00 20. July(Fri), 2018	
Application	Download and fill out the booking form on the official website (www.jimff.org) then E-mail to tour@jimff.org Confirmation E-mail will be sent as booking confirmed.	
Package (As a person)	Film Package	Accommodation + Film tickets (Two tickets for one night) + Summer Night Breeze package
	Performance Package	Accommodation + One Summer Night ticket (One ticket for one night) + Summer Night Breeze package
	Event (Apply for all packages)	Breakfast: First-come-first-served for Summer Night Breeze guests Birthday Event: For the guest who has his or her birthday during the stay Babam Bar: A late night mini screening is held with snacks. (Request needed) * Besides, many other events may be held on-the-spot.
Accommodation place / Number of possible guests	Semyung Univ. Dormitory	From one person to six people
	Cheongpung Resort Lake Hotel	Only for two people
Inquires	Telephone 02-925-2242 (Extension no.3: Media & Service Dept. the person in charge of Summer Night Breeze) E-mail tour@jimff.org	

- ※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heck the official website. (www.jimff.org)
- ※ ‘Summer Night Breeze’ is on a first-come-first-served basis and applicants cannot change the package type after applying.
- ※ Film Package owners will be provided reservation approval numbers that makes online and on-site reservations possible. Please refer to the Summer Night Breeze section of the official website for more details and questions regarding reservations.
- ※ Applicants can confirm current status of application, deposits and reservation approval numbers from confirmation E-mail.
- ※ The Film Festival is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damages resulting from the fraudulent transaction.

단양 도담삼봉 캔들 유캔들잇



· 충북 단양군 단양읍 도전1로 23 1층 유캔들잇
· 네이버, 인스타 (유캔들잇) | 카톡 yoodon | <https://blog.naver.com/yoodon>

JIMFF GUIDE

JIMFF 가이드

제천 한바퀴

Han Ba-kwi (Sightseeing)

제천 한나절

Han Na-jeol (Leisure Activities)

제천 한그릇

Han Geu-reut (Must Try Dishes)

제천 프리마켓

Jecheon Free Market

* JIMFF 가이드의 모든 정보는 제천문화관광 홈페이지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All information of JIMFF GUIDE is extracted from Jecheon Culture & Tourism website.

제천 한 바퀴

Han Ba-kwi (Sightseeing)



청풍문화재단지

Cheongpung Cultural Heritage Complex

‘청풍호반의 작은 민속촌’이라고 불리는 이 곳은 보물 2점, 지방유형문화재 9점, 생활유물 2천여점이 복원되어 있다. 문화재단지에서 보이는 청풍호는 볼거리가 많고 풍경이 뛰어나는 곳으로 내륙의 바다로 불린다. 또한 봉황이 호수 위를 나는 형상의 비봉산, 어머니 품속과 같이 편안하고 포근함을 느끼게 하는 금수산을 배경으로 한 청풍호반은 가히 절경이라고 할 수 있다.

Cheongpung Cultural Heritage Complex, also known as the ‘small folk village in the Cheongpung Lakeside’, is home to two treasures, nine local cultural properties and over 2000 restored relics. Cheongpung Lake, which can be seen from the Complex, is a tourist location with beautiful scenery and various attractions. Surrounded by Mount Bibong shaped like a phoenix flying across the lake and Mount Geumsu that makes you feel cozy, Cheongpung Lakeside offers exquisite scenery.

주소 Address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청풍호로 2048
2048, Cheongpungho-ro, Cheongpung-myeon, Jecheon-si

이용시간 Opening hours

연중무휴 / 3-10월 (09:00~18:00) / 11월~2월 (09:00~17:00)
Open year round / March through October (09:00 to 18:00) / November through February (09:00 to 17:00)

입장료 Price

성인 3,000원 / 청소년(고,중,생) 및 군인 2,000원 / 어린이 1,000원
Adult ₩ 3,000 / Youth&Soldiers ₩ 2,000 / Child ₩ 1,000

문의 Inquiry 043-647-7003



박달재

Bakdaljae

‘울고 넘는 박달재’라는 대중가요로도 잘 알려진 고갯길로 박달 도령과 금봉 남자의 애달픈 사랑으로 인해 박달재로 불리게 되었다. 옛날 우리 민족의 시원과 함께 하늘에 제사를 올린 성스러운 곳으로 아흔아홉 굽이굽이 고갯길을 넘어가며 펼쳐지는 이 곳은 드넓은 산세와 파란 하늘이 맞닿아 그려낸 한 폭의 그림과도 같다.

Bakdaljae, known for the song ‘Crying Over the Hill Bakdaljae’, got its name from the heartbreaking love story between Bakdal and Geumbong. Once a sacred place where worship ceremonies for the sky were held since the beginning of our nation, the mountain zigzagging up and down ninety-nine times and blue sky make up a picturesque landscape.

주소 Address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 705
231, Bakdal-ro, Baegun-myeon, Jecheon-si

이용시간 Opening hours

연중 무휴
Open year round

입장료 Price

무료
Free

문의 Inquiry

043-642-9398 박달재 관광안내소
Bakdaljae Tourism Information Center



배론성지

Baeron Holy Ground

배론성지는 한국 천주교 전파의 진원지이며 천주교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곳으로 우리나라의 유일한 천주교 성지이다. 휴일이면 성지 순례를 오는 참배객들과 관광객들로 인해 조용한 산골 마을이 작은 들썩임을 보이기도 한다.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곳으로 입구에서부터 울긋불긋한 단풍과 푸릇푸릇한 잔디가 어우러지며 보는 이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Baeron Holy Ground is the one and only Catholic sacred place in Korea which holds great meaning in Catholic history and is regarded as the ‘cradle’ of Korean Catholicism. Quite many tourists and worshipers visit the small mountain town on weekends and holidays. In fall, colorful maple leaves and green grass together create lovely scenery.

주소 Address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배론성지길 296
296, Baeronsongji-gil, Bongyang-eup, Jecheon-si

이용시간 Opening hours

연중 무휴
Open year round

입장료 Price

무료
Free

문의 Inquiry

043-651-4527



청풍호 자드락길

Cheongpungho Jadeurakgil

‘자드락길’은 나지막한 산기슭의 비탈진 땅에 난 좁은 길을 일컫는 말로, 청풍호반과 어우러지는 정겨운 산촌을 둘러보는 길임과 동시에 호수 바람과 아름답고 약초향기 그윽한 명산의 기운으로 새로운 ‘나’를 만나는 길이다. 총 77지의 코스로 이루어져 있고 각 코스에서는 한 폭의 풍경화와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Jadeurakgil’ refers to a narrow track on slope of a mountain. Jadeurakgil offers a nice walk around the forest by the Cheongpung Lake. The lake breeze, scent of wild herbs and the energy of the mountain allow visitors to discover their new selves. Visitors will surely immerse themselves in the surroundings of the seven tracking courses.

주소 Address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Susan-myeon, Jecheon-si

문의 Inquiry

043-641-6731-3

홈페이지 Official Site

tour.jecheon.go.kr

제천 한 나절

Han Na-jeol (Leisure Activities)



제천한방엑스포공원

Jecheon Oriental Medicine-EXPO Park

약초로 유명한 제천시를 직접 체험하고 싶다면 한방엑스포공원을 추천한다. 한방문화의 이해와 전통 한의약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한방생명과학관, 국제발효박물관, 약초허브전시판매장 등이 운영되고 있다.

If you are willing to experience medicinal herbs of Jecheon, the Jecheon Oriental Medicine-Expo Park is a must-go. Here, you can learn about Korean traditional medicine and the true value it holds. The facilities include the Oriental Medicine Life Science Center, International Fermentation Museum and the Medicinal Herb Exhibition Center.

주소 Address
충청북도 제천시 한방엑스포로 19
179, Hanbang expo-ro, Jecheon-si

이용시간 Opening hours
하절기 (09:00~18:00) / 동절기 (10:00~17:00) / 매주 월요일 휴무
Summer Season (09:00 to 18:00) / Winter Season (10:00 to 17:00)
Closed on every Monday

문의 Inquiry
043-653-9550

홈페이지 Official Site
www.expopark.kr

프로그램 안내 Programs

다도체험 Tea ceremony

내용 Content	전통 다도체험 및 시음 Learn about traditional tea drinking customs and drink tea
------------	--

가격 Price	무료 Free
----------	---------

비고 Note	주말 한정 Only on weekends
---------	------------------------

약초해설프로그램 Herbal medicine guide

내용 Content	약초해설 및 사상체질 진단 Learn about medicinal herbs and have your constitutional type (body type) diagnosed
------------	---

가격 Price	무료 Free
----------	---------

한방제품만들기 Medicinal herb DIY

내용 Content	한방 비누, 약초향기주머니, 한방화장품 제작 체험 Make your own medicinal herb soap, pouch and skincare products
------------	--

가격 Price	₩ 2,000 ~ ₩ 10,000
----------	--------------------



청풍랜드

Cheongpung Land

청풍랜드는 62m 높이의 번지점프, 파일럿의 비상탈출 느낌을 그대로 살린 이젝션시트, 40m 상공에서 거대한 그네를 얻드려 타는 듯한 빅스윙, 와이어에 의지한 채 공중에서 푸른 호수 위를 가로지를 수 있는 하강체험(케이블 코스터)등의 스틸만점의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다.

Cheongpung Land features exciting amusement rides including a 62-meter high Bungee Jump, Ejection Seat that emulates the pilot escape system, the 40-meter high Big Swing and Cable Coaster which offers a flight across the lake on wire ropes.

주소 Address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청풍호로 50길 6
6, Cheongpungho-ro 50-gil, Cheongpung-myeon, Jecheon-si

이용시간 Opening hours
10:00~17:00, 월요일 휴무 (3월, 11월)
10:00~18:00, 월요일 휴무 (4~7월, 9~10월)
10:00~19:00 (7월 25일~8월)
10:00 to 17:00 Closed on every Monday (March, November)
10:00 to 18:00 Closed on every Monday (April through July, September through December)
10:00 to 19:00 (July 25th through August)

문의 Inquiry
043-648-4151

홈페이지 Official Site
www.joy2002.com



청풍호 관광 모노레일

Cheongpung Lake Monorail

비룡산은 '새가 알을 품고 있다가 먹이를 구하려고 비상하는 모습'과 닮았다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청풍호 중앙에 위치한 해발 531m의 명산이다. 정다운 담소를 나누며 비룡산을 누비면서 펼쳐지는 초록 숲의 맑음과 비룡산 정상에서 보이는 청풍호의 파란 시원함을 즐겨보자.

Mount Bibong by Cheongpung Lake is a beautiful mountain with an altitude of 531 meters above sea level. The name came from its figure that resembles a bird leaving its nest to feed. On the monorail, you can enjoy the clear energy from the forest and the freshness of the Cheongpung Lake from the Mount Bibong summit.

주소 Address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청풍명월로 879-17
879-17, Cheongpungmyeongwol-ro, Cheongpung-myeon, Jecheon-si

이용시간 Opening hours
09:00~17:00 (11월 16:30까지) / 동절기 (12월~2월) 및 매월 셋째주 월요일 휴무
09:00 to 17:00 (up to 16:30 in November) / Closed on Winter Season (December through February) and every third Monday

입장료 Price
어른/청소년 4,000원, 경로우대자/어린이 3,000원, 제천시민 2,000원
Adult & Youth ₩4,000 / Senior & Child ₩3,000 / Resident of Jecheon ₩2,000

문의 Inquiry 043-653-5121

홈페이지 Official Site tour.jecheon.go.kr

* 홈페이지 예약 필수
* 2018년은 케이블카 공사로 인해 공사기간에 한하여 비룡산 정상 전망대 정차없이 순행운영함.

*Reservation must be made in advance online.
*Due to the construction, in 2018 the monorail will operate without stopping at the top of Bibongsan Mountain.

제천 한 나절

Han Na-jeol (Leisure Activities)



꼭빛호수 유람선 여행

Jokbit Lake Cruise

청풍호의 명경은 유람선을 타야 제대로 감상할 수 있다. 청풍나루와 장회나루 130리 물길엔 옥빛의 대나무숲 같은 옥순봉과 구담봉, 석벽, 금수산 등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다. 1시간 가량 완가이 즐린 듯 경치를 감상하다보면 어느새 여행은 끝나고 만다.

Cheongpung Lake's landscape is best appreciated on the cruise ship. Along the 50km long course from Cheongpung Naru to Janghoe Naru, you can enjoy the beautiful scenery that Oksunbong Peak, Gudambong Peak, Geumsusan Mountain and stone walls boast. One might be stunned by the enchanting view on the cruise.

주소 Address
제천시 청풍면 문화재길 54
54, Munhwajae-gil, Cheongpung-myeon, Jecheon-si

이용시간 Opening hours
하절기 (4월~10월) 09:00~17:00, 동절기 (11월~3월) 10:00~16:00
* 운항시간은 현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사전 전화문의 요망
Summer Season (April through October 09:00 to 17:00)
Winter Season (November through March 10:00 to 16:00)
* Operation time may be changed depending on circumstances, so please make a call before visiting

입장료 Price
청풍나루 ⇄ 장회나루 대인 15,000원, 소인 1,000원
Cheongpung Naru ⇄ Janghoe Naru
Adult ₩ 15,000 / Child ₩ 1,000

문의 Inquiry
043-647-4566 청풍나루 Cheongpung Naru



제천시시투어

Jecheon City Tour

해설사의 재미있는 스토리로 생동감 있는 여행을! 제천시에서 보물처럼 숨겨진 관광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제천시투어. 총 4종류의 투어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제천시투어 홈페이지(www.jcct.kr)를 통해 예약 가능하다.

With Jecheon City Tour, you can discover hidden marvels of Jecheon and participate in various activities, not to mention listen to lively stories about the city from your guide. Book your tour on the Jecheon City Tour website(www.jcct.kr), where you can choose from four different tours.

제천시시투어 Jecheon City Tour

투어요금 Price	₩ 24,000
소요시간 Time	8시간 20분 8h 20min

에코힐링투어 Eco Healing Tour

투어요금 Price	₩ 21,000
소요시간 Time	7시간 50분 7h 50min

자연치유투어 Nature Healing Tour

투어요금 Price	₩ 16,000
소요시간 Time	7시간 50분 7h 50min

제천1박2일투어 1 night 2 days Tour

투어요금 Price	₩ 69,000
소요시간 Time	2일 2 days

*매주 월요일 휴무 Closed on every Monday



문화생태체험

Culture Ecology Experience

아름다운 문화와 드넓은 자연의 조화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 제천 문화생태체험에서 경험해보자! 제천문화관광 홈페이지에는 총 25개의 문화생태체험관이 안내되어 있다. 자세한 정보는 제천문화관광 홈페이지(<http://tour.jecheon.go.kr>)에서 볼 수 있다.

Jecheon Cultural Ecology Experience offers an opportunity to understand the harmony between Jecheon's beautiful culture and nature. The official website of Jecheon Culture & Tourism(<http://tour.jecheon.go.kr>) includes information on a total of 25 Culture & Ecology Experience Centers.

농산촌체험마을

Farming Experience Village

농촌, 산촌 정겨운 그 곳! 미세먼한 거둬 도시를 벗어나 맑은 공기, 시원한 바람, 그리고 정이 넘치는 그 곳에서 자연이 주는 특별한 경험을 해볼 수 있다. 제천문화관광 홈페이지에 총 16개의 농산촌체험마을이 안내되어 있으며 각 체험 마을별로 더덕캐기, 송이따기 등의 농촌 체험과 두부 만들기, 점 만들기 등의 다양한 체험거리가 준비되어 있다.

Visit our cozy villages! Escape dusty cities, and come to our villages that boast clean air, cool breeze and beautiful nature. Jecheon Culture & Tourism website introduces 16 villages that offer diverse activities you can participate in such as: digging 'dedeok(mountain herb)', picking pine mushrooms, making tofu and jam, etc.

문의 Inquiry 제천문화관광 홈페이지 tour.jecheon.go.kr



안락한 캠핑장

Cozy Camping Sites

이젠 휴식도 '어떻게 쉬느냐', '얼마나 자유롭게 쉬느냐'가 경쟁력이 되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캠핑이 각광받고 있다. 이에 따라 늘어나는 캠핑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하여 제천시에는 여러 캠핑장들이 운영되고 있다. 싱그러운 자연 속에서 지친 심신을 치유하며 제천의 절경을 맛볼 수 있는 오감만족 캠핑을 적극 추천한다.

Leisure is now evaluated by 'how do you relax' and 'how freely you relax'. With the upcoming vacation season, camping sites that the entire family can enjoy are getting a lot of attention. Accordingly, several camping sites are in Jecheon City to attract the increasing number of campers. We strongly recommend camping which will satisfy all the senses where you can stay in the fresh natural environment to heal your tired mind and body while enjoying the beauty of Jecheon.

- **월악산 인수오토캠핑장** 제천시 덕산면 월악산로 721-12 010-4362-7418
- **덕동골 오토캠핑장** 제천시 백운면 덕동로 23-226 010-4315-6978
- **Woraksan Uksoo Auto Camping Site** 721-12, Woraksan-ro, Deoksan-myeon, Jecheon-si Tel. 010-4362-7418
- **Deokdonggol Auto Camping Sites** 23-226, Deokdong-ro 2-gil, Baegun-myeon, Jecheon-si Tel. 010-4315-6978



제천 한 그릇

Han Geu-reut (Must Try Dishes)



약채락(약이 되는 채소의 즐거움)

Yakcherak

제천시에서 재료와 조리법, 그릇 등의 표준화를 이뤄 ‘약채락’이란 공동 브랜드를 개발, 제천의 맛을 재창조하였다. 제천에 가야 맛볼 수 있고, 제천에서 재배되는 약초로만 만든 ‘약채락’은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는 제천의 대표 음식이다.

“Yakcherak” is a brand developed by the city of Jecheon to reinvent the taste of Jecheon by standardizing ingredients, recipes and plates. “Yakcherak” is a dish that represents Jecheon and can only be tasted in Jecheon. It is made of herbs that are grown locally in Jecheon that will make you healthy just by eating regular meals.

- 약채락성현한정식 제천시 의원대로 600 043-645-3319
- 노다지 제천시 내토로47길 21 043-648-8865
- 환불 제천시 금성면 국사봉로 26길 18 043-648-6788
- Yakcherak Sunghyun Hanjeongsik 600, Uirim-daero, Jecheon-si Tel. 043-645-3319
- Nodaji 21, Naeto-ro 47-gil, Jecheon-si Tel. 043-648-8865
- Wontteul 18, Guksabong-ro 26-gil, Geumseong-myeon, Jecheon-si Tel. 043-648-6788



곤드레밥

Geondeure Bab

갓 지은 따듯한 밥 위에 올려진 씹살한 나물의 향과 맛에 감칠맛 가득한 양념장을 한 숟가락 비벼 먹으면 이제 바로 제천의 대표 음식 곤드레밥! 소화도 잘 되어 남녀노소 누구에게라도 추천해 줄 수 있는 음식이다.

Top a steaming dish of rice with geondeure—a type of slightly bitter herb—, add some sesame oil and soy sauce. Ta-da! You have one of Jecheon's most typical dish, Geondeure Bab! This specialty is easily digestible. Highly recommended to everyone.

- 산마루 제천시 금성면 청풍호로 909 043-645-9119
- 호반식당 제천시 의원대로 558 043-644-7632
- Sanmaru 909, Cheongpungho-ro, Geumseong-myeon, Jecheon-si Tel. 043-645-9119
- Hoban Sikdang 558, Uirim-daero, Jecheon-si Tel. 043-644-7632



매운등갈비

Spicy Pork Back Ribs

두툽한 등갈비에 8가지 한약재 양념으로 만든 매콤달콤 양념장을 올려 각종 채소들과 자글자글 끓여주면 제천만의 특별 매운 등갈비 완성! 알싸하게 퍼지는 매운 맛이 입안에 돌면 술안주로,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맞춤인 음식이다.

On thick back ribs, add seasoning sauce made with 8 kinds of herb and vegetables, boil them together and you have Jecheon's special dish, spicy pork back ribs. Its spicy hot flavor captivates your taste buds. It also goes well with alcoholic drinks and is yummy stress reliever.

- 두깨비식당 제천시 의원대로 20길 21 043-647-8847
- Dukkeobi Sikdang 21, Uirim-daero 20-gil, Jecheon-si Tel. 043-647-8847



송어회

Trout Raw Fish

맑고 깨끗한 청풍호에서 잡아올린 싱싱한 송어의 맛. 기름이 자르르 흐르는 송어에 갖은 야채를 넣고 비빔 초고추장 양념을 부어 골고루 버무려 먹는 송어 비빔회! 새콤달콤 여름철 없던 입맛도 되살려주는 제천표 여름나기 먹거리이다.

Try a dish of raw trout caught in clean and blue Cheong-pung Lake. A bowl of raw trout mixed with fresh vegetables and chogochujang (vinegar red pepper paste) will bring back your appetite.

- 금수산송어장가든 제천시 금성면 청풍호로 39길 33 043-652-8833
- 송어나라 제천시 내토로 681 043-646-2006
- 청풍향금송어 제천시 금성면 청풍호로 39길 25 043-652-4769
- Geumsusan Song-eojang Garden 33, Cheongpungho-ro 39-gil, Geumseong-myeon, Jecheon-si Tel. 043-652-8833
- Song-eo Nara Naeto-ro, Jecheon-si Tel. 043-646-2006
- Cheongpung Hwangkeum song-eo 25, Cheongpungho-ro 39-gil, Geumseong-myeon, Jecheon-si Tel. 043-652-4769

제천의 간식

Snacks



곤드레컵밥

Gondeure Cup Bab

곤드레밥을 보다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역전한마을시장에 가면 영양은 그대로, 간편함은 두 배로 줄일 수 있는 곤드레 컵밥을 맛볼 수 있다.

An easier way to enjoy gondeure bab is grabbing a cup of gondeure bab. At Hanmaeum Market, you can have a gondeure bab in a cup with all the nutrients, but way more simply! (₩ 3,000 each)

주소 Address
제천시 내토로 28길 3-1 (역전한마을시장)
3-1, Naeto-ro 28-gil, Jecheon-si (Yeogjeonhanmaeum market)

문의 Inquiry
043-645-2724

장날 Market day
매월 3일, 8일, 18일, 23일, 28일
3rd, 8th, 18th, 28th of each month



참쌀떡

Chapssal Donut

대한민국 10대 맛의 달인으로 선정된 제천의 바로 그 참쌀떡! 50년 전통의 수제 방식 그대로 만들어 대대로 내려오는 맛을 만날 수 있는 '당실분식'의 참쌀떡. (10개 7,000원)

Jecheon's Chapssal Donut was designated as one of Korea's Top 10 Must-Eats. Dungsil Bunsik's donuts are handmade to a 50-year-old recipe. (₩ 7,000 for 10 donuts)

주소 Address
제천시 독순로6길 5 (당실분식)
5, Doksun-ro 6-gil, Jecheon-si (Dungsil Bunsik)

문의 Inquiry
043-643-2133

용빵

Yongppang

교동 민화마을에 가면 용의 기운을 만날 수 있다!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용빵 먹고 기운을 내보는 건 어떨까. (1개 2,000원)

You can experience the energy of a dragon for yourself in Gyodong MinHwa Village. Have a bite of Yongppang (literally dragon bread) with your loved ones and boost your stamina. (₩ 2,000 each)

주소 Address
제천시 용두천로20길 18, Yongducheon-ro 20-gil, Jecheon-si

문의 Inquiry
010-8007-7736 교동민화마을 Gyodong MinHwa Village

제천 프리마켓

Jecheon Free Market

의림지프리마켓

Uirimji Free Market

전국 각지에서 찾아 온 핸드메이드 작가들이 자유로운 창작 작품과 영화제 관련 수공예품을 전시, 판매하는 핸드메이드 프리마켓

A venue for handicraft artists to communicate through their creative artwork, exhibitions and their sales.

일시 Date
2018.8.10(금)~8.14(화) 12:00~22:00
12:00 to 22:00. 10. Aug(Fri) - 14. Aug(Tue), 2018

장소 Venue
제천시 의림지로 24 의림지 파크랜드
Uirimji Parkland, 24 Uirimji-ro, Jecheon-si
※ 영화제 티켓 제시 후 각 점포별 할인 및 증정 행사 (일부 품목 제외)
※ Present the film festival ticket and get 10% off (Except for some items)

올데이

청FULL제천몰

All-day CheongFULL Jecheon Mall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및 할인 이벤트, 영화 상영(제천 중앙시장 1층), 오후 6시 이후에는 야시장, 프리마켓, 청춘포자, 공연(제천 중앙시장 2층) 등이 열린다.

The Mall hosts various activities, promotions, events, movie screenings (Jecheon Central Market 1st floor), night markets after 6PM, flea market, youth pojangmacha, and performances (2nd floor).

일시 Date
2018.8.11(토) 11:00~21:00
※ 1층은 11:00~18:00, 2층은 18:00~21:00 운영
11:00 to 21:00, 11. Aug(Sat), 2018
※ 1st Floor 11:00 to 18:00, 2nd Floor 18:00 to 21:00

장소 Venue
청FULL제천몰 (제천 중앙시장 1층, 2층)
※ 영화제 티켓 제시 후 각 점포별 할인 및 증정 행사 (일부 품목 제외)
※ Present the film festival ticket and get 10% off (Except for some items)

교동민화마을

프리마켓

Gyodong MinHwa Village Free Market

나만의 도자기컵 만들기, 민화 그리기, 쿠키 만들기, 공예체험, 민화문패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Experience various events including making mug, drawing folk painting, cookie-making and making folk painting doorplate.

일시 Date
2018.8.9(목) ~ 8.14(화) 10:00~21:30
10:00 to 21:30, 9. Aug(Thu) - 14. Aug(Tue), 2018

장소 Venue
제천시 용두천로 20길 18
18, Yongducheon-ro 20-gil, Jecheon-si

음식점 & 숙박 리스트 RESTAURANT & ACCOMMODATION LIST

음식점

연번	업체명	전화번호	대표음식	도로명
1	강박사냥면	043-647-5596	냉면	청전대로 91 (청전동)
2	고원갈비	043-647-4242	돼지갈비	의병대로15길 5 (영동)
3	광성추어탕	043-644-6434	추어탕	독순로8길 4
4	금항	043-645-9100	올뱅이 해장국	내토로7길 2
5	길성이	043-653-5959	누룽지 백숙	제천북로 531
6	골짜나무	043-644-3827	도토리묵	의림대로 49길 13
7	노목산장가든	043-651-5221	약선오리	봉양읍 옥전길 164
8	노송식당	043-647-4752	생선구이	내토로43길 5
9	다래향	043-643-1532	자연산버섯전골	금성면 청풍호로 1034
10	대림갈비	043-643-0866	돼지갈비	용두대로7안길 16-9
11	대보명가	043-643-3050	약초밥상	용두대로 287
12	대추나무집	043-644-3489	소고기정식	의병대로 12길 15
13	동궁한정식	043-652-9955	한식	용두대로 273
14	동원가든	043-651-8100	닭숯갈비	봉양읍 제원로10길 55
15	동화숯불생고기	043-642-0361	돼지갈비	명륜로 7
16	돼지세상	043-645-3692	돼지구이	의병대로 246
17	명가박달재	070-8825-1501	약선오리	신죽하로 50
18	명동왕족	043-644-4516	족발	명륜로6길 9
19	바다사랑	043-648-4955	활어회	청전대로12길 4
20	밥상위의보약한첩	043-642-3230	더덕불고기	덕산면 활악로17길 16-9
21	산너물장수촌	043-652-7727	오리백숙	용두대로29안길 6
22	삼진	043-651-0646	소고기	의림대로33길 23
23	석향정	043-651-1660	두부정식	의림대로 564
24	산아래	043-646-3233	유기농쌈밥	봉양읍 앞산로 174
25	솔비알	043-646-4000	함박스테이크	학사촌길 35 (신월동)
26	송강어가	043-651-8115	쏘가리 매운탕	한수면 미륵송계로 1716
27	스테이크팩토리	043-648-9004	스테이크	의림대로 564
28	소양강달갈비	043-646-3990	달갈비	청전대로15길 6
29	약채락 성현한정식	043-645-3319	한정식	의림대로 600
30	이대가오리집	043-643-0833	오리요리	내토로 157

연번	업체명	전화번호	대표음식	도로명
31	이화관	043-643-7001	흑돼지 친환경 쌈밥	용두대로 5
32	임각정 대박집	043-643-9717	돼지갈비	하소로 23
33	장수촌	043-642-7373	닭백숙	용두대로 359
34	조서방 숯불닭갈비	043-645-0298	닭 숯불구이	청전대로10길 18 (청전동)
35	지오생갈비	043-644-8060	한우고기	의림대로 318 마렌지오쇼핑센터
36	자연촌두부	043-642-1329	두부요리	의림대로33길 4
37	질고개쌈밥	043-645-6755	쌈밥	용두대로31길 55 (신월동)
38	참 좋은 오리	043-645-8292	오리 로스	청전대로15길 17 (청전동)
39	청풍호청정한우	043-647-9485	한우	금성면 청풍호로 1016
40	청풍황금떡갈비	043-647-6303	떡갈비	청풍면 청풍호로 1682
41	팔송황기덕덕막국수	043-647-0815	막국수	봉양읍 주포로 71
42	팔영루가든	043-652-8066	송어회	청풍호로52길 5
43	한우숯불갈비	043-648-9955	갈비	의림대로11길 14
44	태양숯불갈비	043-652-3077	삼겹살	독순로23길 18
45	해밀	043-649-6000	한정식	백운면 평동리 산67-10 리송포레스트 내

출처: (사)제천시관광협의회가 추천하는 밥집 2018.6월기준

음식점 & 숙박 리스트 RESTAURANT & ACCOMMODATION LIST

찜질방

연번	업체명	전화번호	도로명
1	유로스파	043-646-8833	익림대로 233
2	동경불가마사우나	043-645-9988	풍양로9길 5

모텔

연번	업체명	전화번호	도로명
1	아모르파크	043-642-5370	송문로16길 16
2	모텔 발렌타인	043-645-5559	송문로18길 14
3	엔모텔	043-644-1253	명륜로16길 3
4	럭셔리모텔	043-645-3918	용두천로8안길 7
5	셀모텔	043-644-1449	용두천로10길 24
6	임페리얼모텔	043-648-4680	익림대로16길 7-13
7	필모텔	043-653-1700	송문로16길 17
8	올인모텔	043-648-0551	익림대로22길 5-1
9	모텔카라	043-643-3333	익림대로17길 14
10	더샬모텔	043-645-5200	익림대로22길 8
11	밀라노모텔	043-652-9520	익림대로15길 16
12	퀵모텔	043-652-8567	독소로13길 19
13	픽모텔	043-653-3115	내토로27길 6
14	참모텔	043-648-9193	익림대로 33
15	다이아몬드모텔	043-648-6901	내토로49길 6
16	모텔캐슬	043-643-7743	내토로41안길 40
17	안단테모텔	043-648-7650	내토로 557
18	이에프모텔	043-645-6462	내토로33길 9
19	캣츠모텔	043-645-4471	내토로 547
20	크라운모텔	043-648-8800	내토로17길 11
21	M모텔	043-652-8855	내토로 537
22	테마파크텔	043-651-1259	내토로32길 8
23	첼로모텔	043-648-8887	청풍호로 13
24	VIP모텔	043-652-5800	익림대로7길 10
25	도이치모텔	043-645-5777	내토로 535
26	홍인장모텔	043-644-1634	익림대로2길 10
27	힐링모텔	043-646-0477	송의로1길 23

호텔

연번	업체명	전화번호	도로명
1	청풍리조트 레이크 호텔	043-640-7000	청풍호로 1798(교리)
2	청풍리조트 힐하우스	043-640-7000	청풍면 청풍호로 1763
3	제천관광호텔	043-643-4111	익림대로11길 31
4	제천 서울관광호텔	043-651-8000	의병대로 13길 10(명동)

펜션

연번	업체명	전화번호	도로명
1	제천관광농원 한옥펜션	010-3422-5777	봉양읍 월림로 370
2	박달재향토펜션	010-7752-3165	백운면 모정5길 117
3	월광소나타펜션	043-651-1086	한수면 미륵송계로 3길 6-17
4	학현힐링펜션	043-642-1999	청풍면 학현사야로 326
5	덕동달구지펜션	043-646-5892	백운면 덕동로 458
6	작은천국펜션	043-652-9966	청풍면 학현리300
7	백운물소리펜션	010-8441-9638	백운면 구학산로 1047
8	해오름펜션	010-9776-5455	한수면 미륵송계로3길 7
9	산마루펜션	010-7487-4412	송학면 오미로 13안길 36
10	호수풍경펜션	043-642-8049	금성면 청풍호로 1595-52
11	금수산펜션	043-643-0967	청풍면 청풍호로 1595-50
12	갈맷소 펜션	043-646-6646	청풍면 청풍명월로 439

리조트

연번	업체명	전화번호	도로명
1	클럽ES리조트	043-648-0480	수산면 옥순봉로 1248
2	리솜포레스트	043-649-6000	백운면 금봉로 365

게스트하우스

연번	업체명	전화번호	도로명
1	청풍 게스트 하우스	070-8621-5886	익림대로 6길 5
2	바람좋은제천 게스트하우스	010-2221-4127	금성면 국사봉로 28길 18
3	자드락게스트하우스	010-4772-1130	청풍면 배시론로 18

작품색인

작품명		작품명	
BigHug	91	라비 상카르	110
DJ 소녀 캔디스	79	라이브하드	86
E.M.O.	90	라이트 업	54
Fiction & Other Realities	85	레오카디아의 꿈	77
Trip of Blues	87	로스 반도	101
가정 오페라	78	로시니를 위한 교향곡	102
감자마을 메탈밴드	57	로큰롤할배	86
경계선	63	리허설	66
고래가 된 남자	94	마리아 칼라스: 세기의 디바	73
그 소녀는 어디에 있을까	93	마이클 잭슨 따라잡기	46
그 여름의 끝	97	만약 내가 떠난다면 - 레너드 스קי너드 이야기	71
그녀의 음악	97	말더듬이 발라드	47
그랜드 피아노	80	말람보 댄서	46
끝나지 않은 노래	62	모차르트 음악의 비밀	78
나비	103	모험가	113
나탈리아, 스페인 최초의 여성 첼리스트	80	무대 뒤에서	113
날파리의 아리아	58	무지개를 노래함	81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60	바이올린의 비밀	66
녹음	92	바지라오 마스타니	107
니코, 1988	55	반값 여행	108
다름의 하모니	52	발다, 90살의 재즈	82
달세뇨	94	밤밤밤	95
대관람차	85	벅스	51
더 크게	61	보이지 않는 도시	88
도박사	59	봄날	88
두개의 빛: 릴루미노	98	뷰티풀마인드, 마음에 그 소리 있지?	45
딤슬립	89	블라인드 오디션	67
또 다른 삶	54	비하르 민중의 드라마	108
라디오그램	56	사랑의 케이크	57

작품명		작품명	
산을 휘감는 목소리	47	울림	89
상송가수 바르바라	51	원썬	96
상카르 마하데반	110	월드 오케스트라	79
소화기	93	음악을 담은 사진가	75
쇼팽 콩쿠르의 모든 것	71	음악이 없다면	67
수퍼 디스코	87	이것도 내 인생	53
스웨덴의 걸크러쉬, 실바나	74	이것이 행복	103
스파이더 재즈	61	이차크의 행복한 바이올린	72
시가박스 블루스	60	인터내셔널	62
신이 잠들 때	48	잠	95
싯데슈와리	109	저항의 발라드	109
아날로그를 위하여	83	절반쯤	65
아다마	81	조도마테 사요나라 오지팡	96
아르모니카	64	주자나 루지치코바와 첼발로	75
아리아	101	짐	104
아메리칸 포크	42	창공에서	107
악기들	102	찾을 수 없습니다	92
안전한 거리	112	첼로의 거장 로스트로포비치	73
액션 뮤지컬 - 하드 웨이	68	침묵이여 안녕	52
어느 피아니스트의 14시	82	카메라맨	112
엄마 나예요, 아들	90	칼 슈미트의 귀환	55
에티오피아 음악의 황금기	45	코조	83
영화음악의 거장들 - 마크 아이삼	76	큐브	63
영화음악의 거장들 - 알렉상드르 데스플라	77	탄	91
영화음악의 거장들 - 장 클로드 프티	76	파차만카 - 자유를 노래함	74
오 마이 블루	56	플라멩코	65
와키와 노래하는 강아지	104	피아노의 거장, 주앙 카를로스 마틴스	53
외계인을 춤추게 하다	59	하모니의 노래	64
운명의 바이올린	58	할아버지의 노래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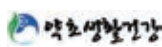
INDEX

Title		Title	
14:00	82	Destiny's Strings	58
24/04 World Orchestra	79	Distinction	52
3:32	64	Dream of Music	97
404 not found	92	E.M.O.	90
Accidental Photographer - Henry Diltz's 50 Years in Rock & Roll, The	75	Easy Street	112
Adama	81	End of That Summer, The	97
Adventurer, The	113	Endless Song	62
After We Have Left Our Homes	67	Ethiopiques - Revolt of the Soul	45
Aloud	61	Festival	71
American Folk	42	Fiction & Other Realities	85
Amidst the Atmosphere	107	Fire Extinguisher	93
Aria	101	First and Last Minute of My Life, The	90
Armonika	64	Flamenco	65
Bajirao Mastani	107	Flipside	83
Bam, Bam, Bam	95	Gambler, The	59
Barbara	51	Good-bye Silence	52
BECKS	51	Goose Goes South, The	85
Behind the Screen	113	Grand Piano, The	80
BigHug	91	Half Measures	65
Blind Audition	67	Half Ticket	108
Borderline	63	Hard Way - The Action Musical	68
Burden, The	104	Hetna - A Modern Opera Singer	78
Butterfly	103	I Lived for Art	60
Cameraman, The	112	If I Leave Here Tomorrow: A Film about Lynyrd Skynyrd	71
Cigarbox Blues	60	IN THE TRACKS OF ALEXANDRE DESPLAT	77
Cube	63	IN THE TRACKS OF JEAN-CLAUDE PETIT	76
Dalsegno	94	IN THE TRACKS OF MARK ISHAM	76
Decoding Shankar	110	Instrument	102
Deep Sleep	89	Internationale, The	62

Title		Title	
Invisible Cities	88	PACHAMANKA - SINGING FOR FREEDOM	74
It's My Life	53	RADIOGRAM	56
Itzhak	72	Ravi Shankar	110
João, the Maestro	53	Ready to Roll - Exterminator	57
Jottomate Sayonara Oji-jjang	96	Recording	92
Kendis	79	Résonances	89
Keys to Mozart: Elegance	78	Rock 'n' Roll Grandpa	86
Kojo	83	Secret of the Violin, The	66
L'Aria del Moscerino	58	Sheikh Jackson	46
Le Chat Doré	66	Siddheshwari	109
Leocadia's Dream	77	Silvana	74
Life without Life	54	Sing a Rainbow	81
Light Up	54	Sleep	95
Listen to Your Heart. The Beautiful Mind	45	Soz: A Ballad of Maladies	109
LIVE HARD	86	Spider Jazz	61
Los Bando	101	Spring Day, A	88
Love Cake	57	Stammering Ballad	47
Magical Mystery - or: The Return of Karl Schmidt	55	Super Disco	87
Make Aliens Dance	59	Symphony for Rossini: Il Turco in Italia, A	102
Malambo, the Good Man	46	This is Happiness	103
Man behind the Microphone, The	72	Trip of Blues	87
Maria by Callas	73	Two Lights: Relumino	98
Mime in Mine	91	Up Down & Sideways	47
MSTISLAV ROSTROPOVITH, the Indomitable Bow	73	Valda	82
Naach Bhikhari Naach	108	Wacky and Her Singing Dog	104
Natalia	80	Whale Song, A	94
Nico, 1988	55	When God Sleeps	48
Oh Mammy Blue	56	Where is the Girl	93
Onesun	96	Zuzana: Music is Life	75

협찬사 SPONSOR

REGION SPONSOR



공식 지정 호텔 :



유캔들잇, (주)광영조경, 청풍영화감상동호회, 그랜드웨딩홀,
명가박달재, 비깅, 김영옥 심리상담소, 여성단체협의회,
하나웨딩홀, 의림자동차매매상사, 설봉한우



도전·성장·자립하는 **CHARM** 인재 양성 Confidence 자기주도 Humanity 나눔과 배려 Adaptability 환경의응 Relationship 대인관계 Mastery 전문

- 한국대학평가원 대학기초평가인증 획득 (2014~2018년)
- 교육부 대학특성상위(CQ) 사업 선정 (2014~2018년)
-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시행 간호교육평가인증 획득 (2014~2019년)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선정 (2017~2020)

- 고등교육부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제약 선정 (2015~2020년)
- 교육부 학부 교육혁신전신도대학 '잘 가르치는 대학' 선정 (2010~2013년)
- 한국학의학교육평가원 시행 학의학교육평가인증 획득 (2015~2020년)

세명대학교
SEMYUNG UNIVERSITY

학생경험중심 NO.1

“
두개의
1등급
”

라 100%
체세포수 1등급 · 세균수 1A

체세포수 1등급 · 세균수 1A



유통기한 확인하여 식품안전 준비하기 | 서울유통고객상담 및 주문신청 | 견본자 모집 상담: 080-02-5656(수소저분)



씨알로'㉸

365일 건강한 먹거리를 만나세요!

[illegible]

Product Descriptions

www.crfond.com.br



개·운·함·이·오·래·가·는 프로폴리스 아이런 치약

천연항생제로 널리 알려진 프로폴리스와
소염, 항균작용이 입증된 특허받은 한방추출물이
첨가된 특허받은 치약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인증한 효능 효과]
잇몸질환 예방, 구취제거, 충치예방, 치은염,
치주염(치조농루)의 예방, 치태제거(안티프라그),
이빨 희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한다.

[無] 파라벤, 트리클로산, 불소, 인공향,
광물성오일, 동물유래원료

[임산부와 어린이도 사용할수있는치약]



개운함이 오래가는 프로폴리스 i-REON 치약의 한방추출물

프로폴리스	진삼	생강	황화	인삼	당귀	복	소식약	
항산화기능 소염,항균·항박소항게산 구강에서 항균작용	니코틴제거 소염,항균	항균,항염작용 통증완화	소염,진통 관도상염개선	항균·항박소제거 진통,진통효과	진통효과	냉해제거 지혈작용	니코틴제거	

아이런치약 특허 제 10-1391545호
한방추출물 특허 제 10-1033306호
i-reon 상표등록 제 40-1065015호
ISO 9001 : 2008
국제특허출원 PCT/KR2014/008247

구입판매처 (주)경방 043-648-3777

NAVER **재천물** "치약"을 검색하세요

숙취가 뭐죠?



숙취 걱정없이 스마일~ 레디큐!

신물 받으려
'레디큐' 페이스북으로
GO! GO!

맛있게 **화** **캔다**





명지병원

제천 · 영월 · 단양 등

중부내륙권 최고의 종합병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명지병원
MYONGJI HOSPITAL



GGIO²

나에게 어울리게 : 지오투

지오투 제천 직영점

충북 제천시 풍양로 98

군 농협 사거리 신화당약국 맞은편

BRENTWOOD

Business Life Wear

TEL 043-648-6610

KOLONmall.com



**FOR PICNIC
FOR WORK
FOR PLEASURE**

人77人
3.14planet.com

품질도 가격도 믿을 수 있는 1등 이마트

emart 제천점

충청북도 제천시 장평천로 11
대표전화 043)641-1234

rivella



리벨라 스위스에서 왔습니다!

Switzerland's No.1 Health Drink - **rivella**

알프스 천연 밀크세럼 35%, 칼슘, 마그네슘, 칼륨 다량 함유
Rich in Calcium, Magnesium, Potassium



NO 카페인
NO 방부제
NO 인공색소

No caffeine
No preservatives
No artificial colors



알프스의 천연 밀크 세럼으로 만든 - 리벨라

www.rivella.co.kr

Instagram rivella_kr | rivella_asia

www.paperboat.co.kr

My hope! Paper boat



오렌지
orange



애플
apple



망고
mango



리치
litch



석류
pomegranate



Paper Boat Drinks



(주)페이퍼보트코리아

인천 부평구 충선로 203번길 50,104 TEL: 032_508_3257 FAX: 032_715_8061
189

영화같은 일은 언제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법

캠핑의 시작, 카르닉



www.karnik.co.kr



벅소프는
가족의 안전과 사랑을 먼저 생각합니다



야외에서 모기때문에 고생하신 적 있으시죠?
이젠 걱정마세요! 벅소프가 해결해 드립니다.

모기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100% 착용가능한 손목밴드타입



100% 천연허브에서 추출한 천연아로마 친환경 웰빙제품



국내외 안정성 시험성적서 인증제품



	① 캠핑장 캠핑장 등 야외에서 캠핑을 할 때, 벅소프를 착용하면 모기, 벌레로부터 안전합니다.
	② 캠핑장 내 야외 활동 캠핑장 내 야외 활동 시 벅소프를 착용하면 모기, 벌레로부터 안전합니다.
	③ 캠핑장 내 야외 활동 캠핑장 내 야외 활동 시 벅소프를 착용하면 모기, 벌레로부터 안전합니다.
	④ 캠핑장 내 야외 활동 캠핑장 내 야외 활동 시 벅소프를 착용하면 모기, 벌레로부터 안전합니다.
	⑤ 캠핑장 내 야외 활동 캠핑장 내 야외 활동 시 벅소프를 착용하면 모기, 벌레로부터 안전합니다.
	⑥ 캠핑장 내 야외 활동 캠핑장 내 야외 활동 시 벅소프를 착용하면 모기, 벌레로부터 안전합니다.

구매방법 : 벅소프 홈페이지(<http://bugsoff.kr>) 방문 후 상품구매 페이지 이동

컨테이너를 만듭니다.

고객이 감동할때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컨테이너 전문기업 - 진우건설(주)

행사용 컨테이너 / 컨테이너 교실

각종 컨테이너&아동식 주택 공공서 납품전문기업

www.jinwooct.com



본사 및 공장 : 충북 진천군 문백면 영천길 153 (온한리 217-6) | TEL:043-532-0961 | FAX:043-532-4996
 오송 사무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5로 303 국도부교미로빌딩 607호 | TEL:070-4907-6324 | FAX:043-233-4996
 부산 지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91 크리스탈베치 11119호 | TEL:051-747-7961 | FAX:051-747-7964

DRILLEYS ECO FRIENDLY BAG



drilleys
USA

드릴리스코리아 www.drilleys.co.kr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10길 55 (양재동) / 문의 070-7455-1389

IN ADMIRATION OF MUSIC



영화를
집에서 즐기는
완벽한 방법
달리 젠서 시리즈



오드(ODE)는 재천국제음악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합니다

Dali - ZENSOR 5 black

ODE
www.ode-audio.com

ODE Maison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25길 15-6
02-512-4091

ODE Daegu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대구 신세계백화점 5F
053-661-6504

ODE Port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25길 15-10
02-512-4091

ODE Jeju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남서길 7
064-799-5008



NH농협은행 나눔을 입다

NH농협은행의 나눔은
'농협봉사단'이 새겨진 옷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의 실천으로 행복한 웃음으로
단순한 옷을 넘어, NH농협은행은
나눔을 입었습니다

대한민국 나눔 파트너로서 아낌없는 사회공헌활동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6년 연속 사회공헌 1위 은행

[전국은행연합회 발표기준]

사랑함께 응원함께
 NH농협은행

 농협봉사단